

第一章 한국전통직물(韓國傳統織物)의 역사(歷史)

第1節 韓國傳統織物의 基源

第2節 先史時代의 織物

第3節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織物

第4節 渤海의 織物

第5節 高麗時代의 織物

第6節 朝鮮時代의 織物

第1節 한국전통직물(韓國傳統織物)의 기원(起源)

인류(人類)가 천연섬유(天然纖維)로 실과 직물(織物)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부터이다. 인류(人類)는 직물(織物)을 제작하기 이전에 모피의류(毛皮衣類)를 통하여 모섬유(毛纖維)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였으며 인피식물류(人皮植物類)의 인피(靸皮)로 노끈과 망(網)을 제조하게 됨에 따라 선상물(線狀物)로부터 평면물(平面物)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어 편물(編物)을 제조하게 되었다고 추측한다. 과도적인 것으로 결국 직물(織物)은 노끈·실·망(網)·편물(編物) 등의 제조과정 이후에 직물제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까닭은 직물(織物)은 망(網), 편물(編物)과 같이 한올의 끈 또는 실로서 연결하여 제조되는 것이 아니고, 경사(經絲)과 위사(緯絲) 두올의 끈 또는 실로서 조직(組織)됨으로서만이 제조될 수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끈 망(網)과 편물(編物)이 한올의 선상물(線狀物)로서 일차원적(一次元的)으로 제조되는 것에 대하여 직물(織物)은 두 선상물(線狀物)의 조직(組織)으로 제조된다는 점에서 이차원적(二次元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羅)도 편물과 직물의 과도적인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망, 편물, 라가 발전되어 직물이 된 것은 아니며 다만 선상물에서 평면상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터득하게 하여 준 것들이다.

결론적으로 직물(織物)은 인류(人類)의 지능발달(知能發達)이 수반(隨伴)됨으로써 그 제조가 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인류문화(人類文化)의 진전단계(進展段階)에서 직물제작(織物製織)의 기원연대(起源年代)는 그 지역(地域)의 문화발달(文化發達)을 가름하는 연대(年代)로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직물제작(織物製作)의 기원연대(起源年代)는 실을 제조할 때 사용하였던 기구(器具)로서 부품(部品)인 가락바퀴, 직물(織物), 제사제작(製絲製織)과 관계되는 조각품(彫刻品), 회화(繪畫)등이 발견되는 유적지(遺蹟地)의 연대(年代)를 간접적으로 예측하여 조사·연구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발굴조사 및 연구된 가락바퀴중에서 가장 오랜 연대(年代)의 것은 기원전(紀元前) 6,750년기(年紀)의 서(西)아시아의 자르모(Jarmo) 유적출토품으로 알려져 있다. 1) 인류(人類)는 적어도 9000年前에 근접되는 시기(時期)에 실을 제조하였음이 나타난다. 관습적으로 가락바퀴가 발견되는 연대(年代)를 직물제작연대(織物製織年代)로 보고 있으므로 인류(人類)는 9000년전(年前) 가까이에 이미 직물(織物)을 제작하였다고 보고 있다. 서(西)아시아 지역(地域)은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가 일찍이 진전(進展)된 지역(地域)

1) Edwards, Iorwerth Eiddon Stephen ; Gadd, Cyril John; and Hammond, Nicholas Geoffrey Lempriere, eds.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 1, Pt. 1. 3rd ed. Camgridge: University Press, 1970.

이므로 직물제직기술(織物製織技術)의 발상(發祥)도 일찍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체로 서아시아 지역 이외의 신석기문명발상지역(新石器文明發祥地域)에서는 기원전(紀元前) 2,500 - 5,000년(年紀) 사이에 織物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각종유품(各種遺品)들이 발견되고 있다.²⁾ 세계직물사상(世界織物史上) 이와같은 지역(地域)을 포괄적으로 직물제직기술(織物製織技術)이 발상(發祥)된 지역(地域)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제직직물사상(織物製織史上) 직물기술(織物技術)이 발상(發祥)된 지역과 발상지(發祥地)로부터 전파(傳播)되어 직물기술(織物技術)을 수용(受容)하여 직물제직(織物製織)이 이루어진 지역(地域)을 구분(區分)하고 있다. 이와같은 구분(區分)은 곧 그 지역(地域)의 문명(文明)의 척도(尺度)를 가름하는 요소(要素)의 기준(基準)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직물제직기술(織物製織技術)이 발상(發祥)되었다고 보는 지역(地域)으로는 기원전(紀元前) 5,000 년(年紀)의 Tasa 유적(遺蹟)에서 유체(遺體)를 싼 포(布)와 기원전(紀元前) 4,000 년(年紀)의 바다리(Badari) 유적(遺蹟)에서 수평직기(水平織機)가 그려진 접시가 발견된 이집트, 기원전(紀元前) 3,300-2,300 년(年紀)의 양저문화시대(良渚文化時代)에 견직물(絹織物)이 출현(出現)된 것으로 보고 또 기원전(紀元前) 2,500 년(年紀)의 양소문화기(仰韶文化期)의 양소촌유적(仰韶村遺蹟)에서 가락바퀴가 출토(出土)된 중국(中國), 기원전(紀元前) 2,500 년(年紀)의 모헨조다로(Mohenjo-daro)유적(遺蹟)에서 가락바퀴와 천염면단편(茜染綿斷片)이 발견된 인도지역(印度地域)등이다. 이리하여 직물제직기술(織物製織技術)의 발상연대(發祥年代)는 지역(地域)에 따라 상당한 간격이 있지만 대략 기원전(紀元前) 6,720-2,500 년(年紀)사이로 추정된다.

한국직물제직(韓國織物製織)의 기원연대(基源年代)와 직물제직(織物製織)의 발상여부(發祥與否)를 조사 연구하는 자료로 출토(出土)된 가락바퀴와 섬유유품(纖維遺品)의 연대(年代)를 고고학적(考古學的) 조사결과를 토대로 발췌해 보겠다.

1. 가락바퀴의 형태(形態)와 사용방법(使用方法)

가락바퀴는 인류가 실을 제조하기 위하여 만든 기구(器具)의 부품(部品)이다. 나무, 뼈, 돌, 토기편, 도제 등으로 원반형, 주산알형, 산형, 사다리형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각기 중앙부에는 축(軸)을 꽂는 구멍이 뚫려있다. 가락바퀴는 일본(日本)에서는 방추차(紡錘車), 중국(中國)에서는 방륜(紡輪), 방전(紡縛)이라고 한다. 가락바퀴와 가락바퀴 중앙부에 꽂는 축으로서 방사(紡絲), 방적(紡績)하여 긴실을 꼬아 실을 만들고 단섬유를 포함 연결시켜 꼬아 실을 만드는 것이다. 보통 가락바퀴 구멍에 꽂는 축(軸)은 나무이기 때문에 부패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부패되지 않는 돌, 토기편, 토제, 도제 등의 가락바퀴만이 고대인들이 생활한 유적이거나 또는 분묘의 부장품 등으로 발견된다.

실에 꼬임을 주거나 실을 만들때는 가락바퀴의 중앙부의 구멍에 축(軸)을 꽂고 긴실의 실끝 또는 단섬유에서 실끝을 내어 축(軸)에 감아매고 공중에 늘어뜨려 가락바퀴를 손으로 회전시키어 실을 제조한다. 축(軸)은 목제외(木製外)에 철제(鐵製), 골제(骨製)등도 있다.

고대인의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추(錘)의 종류중(種類中)에는 어망추(魚網錘)와 수직직기(垂直織機)의 추(錘)가 있는데, 혹간의 연구자(研究者)들은 수직직기(垂直織機)의 추(錘)를 가락바퀴(방추차(紡錘車))로 오인한 경우가 있으나 가락바퀴와 직기추(織機錘)는 아주 다른

2) 下中邦彦, 『世界考古學事典 下』, p. 1409, 平凡社(日本 東京), 1972. 2.

것이다. 전자(前者)는 제사구(製絲具)이고, 후자(後者)는 제직구(製織具)인 것이다. 한국(韓國)의 가락바퀴에 대한 연구(研究)로서는 일본인(日本人) 팔번일랑(八幡一郎)과 서천굉(西川宏), 한국(韓國)의 최호림(崔虎林) 제씨(諸氏)³⁾의 연구(研究)가 있다.

2. 한국방직기원기(韓國紡織機源期)의 가락바퀴

한국신석기인(韓國新石器人)들의 생활유적(生活遺蹟)은 대동강(大洞江), 한강유역(漢江流域) 및 그 인접도서(隣接島嶼)를 포함한 동북해안지역(東北海岸地域), 낙동강유역(洛東江流域)을 포함한 남해안지역(南海岸地域) 등에 약(約) 150여개소(餘個所)가 밀집 분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⁴⁾ 이들 유적중(遺蹟中)에서 서포항(西浦項) 1기층(期層), 오산리(鰲山里) 하층(下層), 동삼동(東三洞) 1기층(期層)이 기원전(紀元前) 6,000-5,000년대(年代)에 한국(韓國) 신석기인(新石器人)들의 생활 유적으로 조사 연구됨으로써, 한국(韓國)에서의 일찍이 신석기 생활(新石器生活)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中國)의 경우 근간(近間)까지의 고고학적(考古學的) 연구결과(研究結果)에 의하여 허북성(河北省) 무안현(武安縣) 자산(磁山) 유적(遺蹟)과 허남성(河南省), 신정현(新鄭縣) 배이강(裴李崗)유적(遺蹟)등이 기원전(紀元前) 5500-4900연기(年紀)의 조기신석기유적(早期新石器遺蹟)임이 밝혀져서 東아시아지역에서는 일찍이 우리나라와 중국지역(中國地域)에서 신석기인(新石器人)들의 생활(生活)이 시작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韓國)의 조기신석기시대(早期新石器時代)(6000-5000B.C)의 생활유적에서는 어망추(魚網錘)가 많이 발견되어 어로생활을 하였음이 나타나며 신석기시대 전기(5000-3500B.C)와 중기(3500-2000B.C)의 유적에서도 어망추가 계속하여 많이 발견되었다. 어망추의 발견은 곧 인피섬유식물(靱皮纖維植物)의 인피(靱皮)로 어망(魚網)을 제조하였다는 사실을 뜻하며, 선상물(線狀物), 평면물(平面物)을 제조하는 지능생활을 하였던 증거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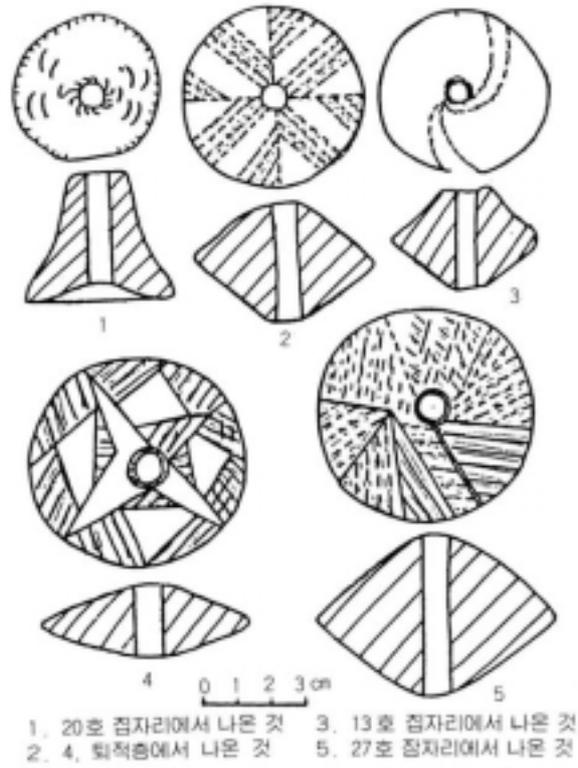
동삼동(東三洞) 1기층(期層)에서는 압날망문(押捺網文) 유문토기(有紋土器)도 발견되어 망(望)을 제조 사용한 사실도 나타나고 있다. 이후, 서포항(西浦項) III기(期)(3500-2500B.C) 주거지(住居地)에서 토제(土製)가락바퀴가 발견되었다. ⁵⁾ <그림1>. 서포항(西浦項) IV기층(期層)(2500-2000B.C)에서도 깔대기형, 산형, 구형 주판알형 18점(點)이 보고되어 있다. 평남(平南) 온천군(溫泉郡), 문하리(雲下里) 궁산패종(弓山貝塚)의 전기신석기유적하층4호주거지(前期新石器遺蹟下層4號住居地)(4000-3500B.C)에서도 즐문토기(櫛文土器)와 함께 원판형(圓板形)인 직경 3-4cm, 두께0.5-0.6cm, 공경(孔經) 0.5cm-1.0cm의 토제파편(土製破片)의 가락바퀴 18점이 발견된바 있다. ⁶⁾ <그림 2>. 오산리유적(鰲山里遺蹟)의 지표(地表)에서도 직경 4.5cm, 두께 3.5cm 공경(孔經)0.8cm의 토제주산(土製珠算)알형 가락바퀴가 발견되었다.

3) 八幡一郎, 「朝鮮半島の古代紡錘車資料」, 『朝鮮學報』, 第49輯, pp. 435-456, 1968.10.
八幡一郎, 「東アツアの紡錘車」, 特輯韓國の考古學 第3卷 第3號, 東京韓國研究員, 1974. 1
西川宏, 「織物採用の歴史的意義」, 『論集 日本原史』, 吉川弘文館, 東京, 1985, 4
崔虎林, 「韓半島出土紡錘車에 관한 研究」(1) 한국정신문화원 1985. 여름호.
崔虎林, 「韓半島出土紡錘車에 관한 研究」(2) 한국정신문화원 1986. 여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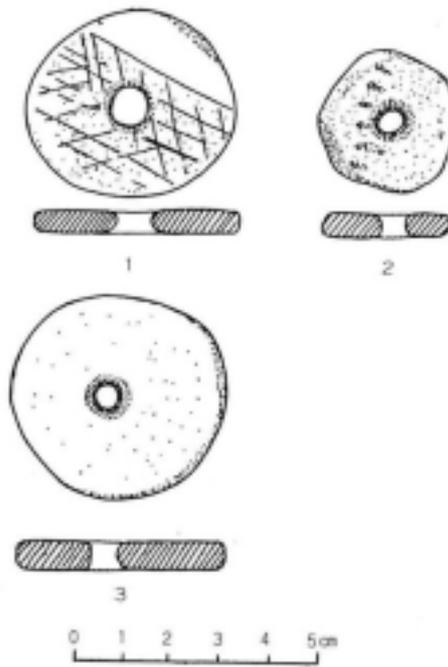
4) 韓國考古學研究會, 『韓國考古學地圖』, 三和書籍株式會社, p 13, 1984.

5) 김용간, 서국태, 「서포항원시유적발굴보고서」, 『고고민속논문집』, 第4輯, pp.31-145, 1972

6) 「弓山原始遺蹟發掘報告」, 『遺蹟發掘報告』第二輯, 1957.



<그림1> 서포항(西浦項) III기(期)의 가락바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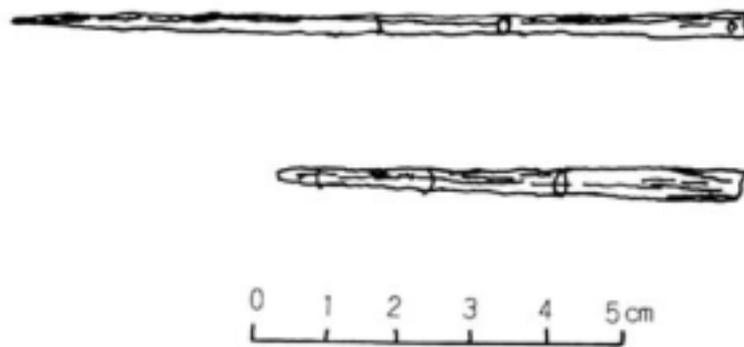
<그림2> 궁산패총(弓山貝塚)의 가락바퀴

한국(韓國)에서 적어도 기원전(紀元前) 3000 년기(年紀)의 유적에서 가락바퀴가 출토된 것은 곧 한국(韓國)에서 기원전(紀元前) 3000년기경(年紀頃)에 섬유로 실을 제조한 것이 실증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락바퀴의 출토연대(出土年代) 직물제직연대(織物製織年代)로서 보는 경향이므로 한국지역(韓國地域)에서도 기원전(紀元前) 3000년기(年紀)에 직물(織物)이 제직(製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日本)의 강촌길우위문(岡村吉右衛門)씨도 방추차(紡錘車)의 출토(出土)에 의하여 직물(織物)의 유무(有無)가 판단(判斷)될 수 있으며, 이 판정(判定)을 굳이 부정(不定)할 필요는 없다⁷⁾고 하였다. 기원전(紀元前) 3000-2500 년기(年紀)까지는 세계적(世界的)인 방직발상기(紡織發祥期)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신석기시대(韓國新石器時代)(3000-2500 B.C)에 출토된 가락바퀴의 의의(意義)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최고연대(最古年代)가 수정되는 가락바퀴의 출토(出土)가 있기를 기대한다.

3. 궁산패총(弓山貝塚)의 마사(麻絲)

전기신석기시대(前期新石器時代)(4000-3000B.C.)의 유적으로 보는 궁산패총(弓山貝塚)에서는 단면(斷面)이 원형(圓形)인 직경 2.5mm, 길이 9cm 가 되는 골침(骨針)이 발견되었는데 골침(骨針)의 바늘귀에 마사(麻絲)가 감겨진 것이 발견되었다. ⁸⁾ <그림 3>

일찍이 마사(麻絲)가 제조되어 사용된 것이 나타난다. 한국지역은 마섬유(麻纖維)의 재배적지로서 양질(良質)의 섬유가 채취되어 섬세한 마포(麻布)를 예로부터 제직하였다. 따라서 그 제조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3> 궁산패총(弓山貝塚)의 골침(骨針)

7) 岡村吉右衛門, 「染ぬと織りの 起源」, 『服裝文化』 No. 167, 1980. JUL.

8) 註 6)과 同

第2節 선사시대(先史時代)의 직물(織物)

한국(韓國) 선사시대(先史時代) 전기구석기시대(前期舊石器時代)부터 삼국시대(三國時代) 개시이전(開始以前)까지의 시대(時代)이다.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그 하한(下限)이 낙랑군(樂浪郡)이 설치되고,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이 정립(鼎立)된 시기(時期)를 포함하여 백제(百濟),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가 실질적으로 고대국가(古代國家)를 형성(形成)하게 되는 기원(紀元) 3세기(世紀)정도까지가 된다.

이 시기의 한국직물과 관계되는 연구자료로 오늘날까지 조사된 것은 가락바퀴, 직구부품(織具部品)이 있고 문헌자료(文獻資料)는 「한서(漢書)」, 「삼국지(三國志)」 등이 있다. 섬유(纖維), 실 직물(織物)의 유품(遺品)으로는 궁산패총(弓山貝塚)에서 출토(出土)된 마사(麻絲)와 낙랑출토(樂浪出土)의 직물(織物)들이 있다. 낙랑(樂浪)에서 출토(出土)된 직물(織物)은 오늘날까지 한(漢)의 직물(織物)로서만 조사 연구되었는데 필자는 우리 나라 지역(地域)에서 출토(出土)된 직물(織物)로서 재고(再考)하고자 한다.

1.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가락바퀴

제1절의 2에서 전기신석기시대(前期新石器時代)(3000-2000 B.C) 유적(遺蹟)에서 출토(出土)된 가락바퀴에 대하여 이미 기술하였다. 본장에서는 그 이후의 중요한 가락바퀴의 출토(出土)에 대하여만 기술하고자 한다.

대체로 한국(韓國)의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는 조기(早期)(6000-5000 B.C.), 전기(前期)(5000-3500 B.C), 중기(中期)(3500-2000 B.C), 후기(後期)(2000-1000 B.C)로 구분(區分)된다.

신석기인들은 마제석기(磨製石器)를 사용하였고 조기(早期)부터 토기(土器)를 만들었으며 중기(中期)(3500-2000 B.C), 후기(後期)(2000-1000B.C)로 구분(區分)된다.

신석기인들은 마제석기(磨製石器)를 사용하였고 조기(早期)부터 토기(土器)를 만들었으며 중기(中期)에 이르러서는 섬유(纖維)로 실을 만들었음이 출토유물을 통해 나타난다. 서포항(西浦項), 궁산패총(弓山貝塚)에서 가락바퀴가 출토된 이래 후기신석기시대(後期新石器時代)에 이르기까지 전국토에서 가락바퀴가 출토되고 있다. 서포항(西浦項) V기(期)(2000-1500 B.C)유적에서 원관형, 주관알형, 산형의 토제가락바퀴 9점이 출토되었으며 평북(平北) 중강군(中江郡) 토성리(土城里) 유적에서도 원관형, 산형 갈대기형의 토제 가락바퀴 8점이 출토되었다. 9) 또 경남(慶南) 김해군(金海郡) 장유면(長有面) 수가리(水街里) (2000-1000B.C) 유적에서는 주관알형 토제가락바퀴 3점이 발견되었다. 10) 이러한 가락바퀴의 출토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紀元前) 3000-1000 연기(年紀)에 실을 제조하였음이 실증(實證)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직물(織物)이 계속 제작되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신석기시대의 직물은 토기면(土器面)에 남아있는 직물(織物)의 흔적(痕迹)으로서 많이 조사 연구되는 것이 외국(外國)의 연구동향(研究動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되고 있

9) 「鴨綠江禿魯江流域 高句麗遺蹟發掘報告書」, 『遺蹟發掘報告』 第13輯, pp. 99-136, 1983. 이병선, 「중강군 토성리 원시 및 고대유적 발굴중간보고」, 『문화유산』, pp. 61-5, 1961.

10) 鄭澄元外, 「金海水佳里貝塚」, 『釜山大學校博物館 遺蹟調查報告』, 第4輯, 1981.

지 않다. 고고학적(考古學的) 조사연구의 진전에 따라 가락바퀴로 직조된 신석기시대 직물의 실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2.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의 직구(織具)와 직물(織物)

한국의 청동기시대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기원전 1000-400년기 까지로 보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특징은 생활용구와 무기를 청동으로 제조하는 기술적 변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경에 비롯한 많은 생활양식이 변화,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청동기인들은 송화강, 요하유역으로부터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청동기문화권을 이루고 생활하였다.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일백십수여개의 청동기유적이 발굴 조사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보다 많은 양의 가락바퀴가 출토되어 농경, 어로의 발전과 더불어 실을 제조하고 직물을 제작하는 양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가락바퀴

평안북도 강계시 공귀리 11) 유적은 상당히 이른 시기의 청동기시대 유적이다. 이 유적의 5호주거지에서 어망추(魚網錘)와 석제(石製), 토제(土製)의 가락바퀴가 출토되었는데 형태는 원통형 혹은 채두원추형(2개), 원판형(13개), 만두형(1개), 입형(1개)이다.

함경북도 회령군 오동유적 12)에서도 채두원추형, 만두형, 원판형, 주산알형 등 37개가 출토되었다.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패총은 청동기시대 후기 유적으로 수십개의 가락바퀴가 조사되었다. 형태는 원판형, 주산알형 등이다. 이외에도 지석묘와 주거지에서 가락바퀴가 많이 출토(出土)되었다.

2)직구(織具)

평안북도 강계시 공귀리유적에서 수직식직기(垂直式織機)의 추(錘)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13)원통형, 제형, 정방형의 유공토추라고 한다.

수직직기는 직기에 걸린 경사가 지면에 대하여 수직인 위치에 있는 직기이다. 대체로 수직직기는 두 개의 나무막대를 직물폭에 맞추어 일정한 간격으로 땅에 박아 고정시키고 두 나무막대의 윗부분에 횡목(橫木)을 가로 질러 놓는 것이다. 경사는 횡목에 제직하려는 직물의 경사밀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걸어 고정시키고 경사의 한끝은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내려 뜨려 경사끝에 직기추를 매어 일정한 경사의 장력을 유지 시킨다. 수직기(垂直織)의 하단(下端)에는 횡목(橫木)을 고정시켜 경사를 고정시키기도 한다. 제직은 직기추로 경사를 고정시키고 위에서부터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에 횡목을 치고 아래에서부터 제직하여 올라가기도 한다. <그림4>. 이와같은 직기는 높이에 제한이 있으므로 직물의 길이에 제한이 생긴다.

이 직기가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기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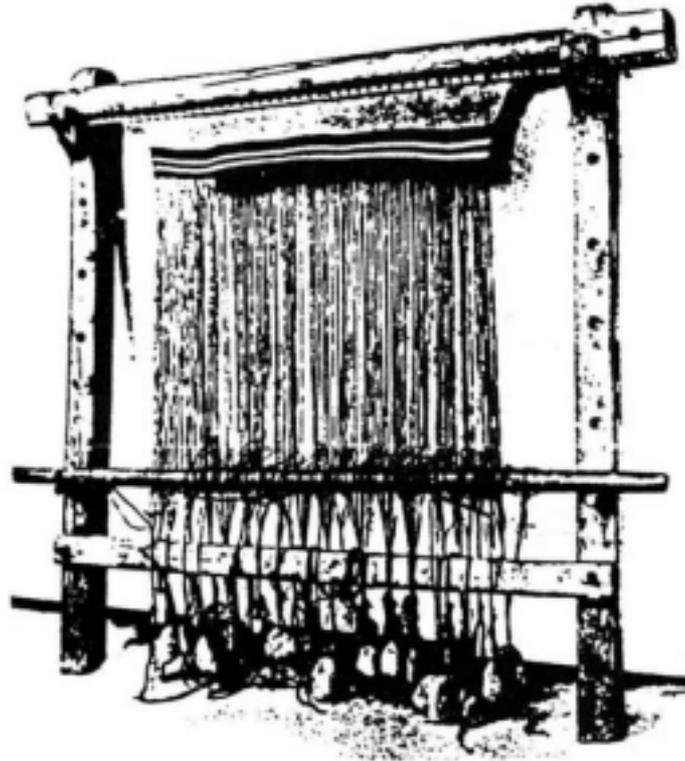
11) 과학원, 「강계시공귀리원시유적 발굴보고서」, 1955.

12) 도유호, 「회령오동원시유적 발굴보고서」, 1960.

13) 註3), 西川 宏, p. 547.

7000년기의 아나토리아 (Anatolia)의 가탈훅(Catal Hyuk)에서 수직직기추가 발견되어 상당히 일찍부터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뿐이다.

이 직기는 근동(近東)(the near East)지역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에도 여러지역에서 카펫제직에 사용되고 있다. 인도에서도 수직직기로 비단카펫을 제직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 전승되고 있는 수직기(手織機)는 모두 경사형직기(傾斜型織機)인데 공귀리유적에서 수직식직기(垂直式織機)의 추(錘)가 출토된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그림4> 수직기(垂直緒) 추(錘)

우리나라에서 수직식직기(垂直式織機)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는 삼국시대(三國時代)에 모사(毛絲)로 구유(毳氈)(Carpet, Rug)를 제직하여 중국지역(中國地域)에 보낸 기록 14)과 고려시대(高麗時代)에 화려한 모직물(毛織物)을 제직하여 후진(後晋)에 보낸 기록 15)이 있다. 또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조선철(朝鮮綴)이라고 명명(命名)된 모직물(毛織物)을 제직하여 일본(日本)에 보낸 것이 오늘날까지 일본(日本)에 남아 있어 여러 점을 필자가 조사하였다. 그러나 그 흔적이 없어서 그 실존(實存)자체를 의심할 정도이나 우리나라에도 오랜 옛날

14) 一然, 『三國遺事』 p. 251, 東西文化社, 1978.

15) 「高麗史」世家二 惠宗條

부터 수직직기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함경북도 회령군 오동유적에서는 원시적 베틀의 바디가 출토되어 보고되었다.¹⁶⁾ 바디는 경사간격과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위사(緯絲)를 일정한 밀도로 위타(緯打)하게 하는 직구(織具)로서 원시적(原始的)인 직구(織具)에서부터 발전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원시직기(元始織機)는 태(台)가 없는 상태의 수직기(手織機)이며 바디와 같은 직구는 처음에는 갖추어 있지 않았다. 고대의 직구는 목제품으로 부패되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오동유적에서 출토된 바디는 우리나라 원시직기(元始織機)의 발전과정(發展過程)을 알 수 있는 유품(遺品)으로 중요하다.

3) 직물(織物)

전국토(全國土)에 걸쳐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의 가락바퀴가 많이 출토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청동기시대에는 직물제작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서(漢書)」¹⁷⁾에는 ‘기자(箕子)가 조선에 와서 그 백성에게 예의와 전잠직조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직물제작에 대한 한국 청동기시대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오늘날 기자조선의 실존여부에 대한 역사적 논의는 부분하나 본장에서는 인물 및 통치기구에 대한 역사적 논의와는 관점을 달리하여 「한서(漢書)」에 나타난 시기(時期) 곧 은(殷)나라가 쇠한 때인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에 뽕나무가 있어 누에를 치고 견사(絹絲)를 조사(繰絲)하여 견직물(絹織物)을 제작(製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삼국지(三國志)」¹⁸⁾에는 부여인(夫餘人)이 나라밖을 나갈 때에 회(繪), 증(繒), 금(錦), 계(鬪)를 입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원전(紀元前) 4세기(世紀)경의 부여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회(繪)는 비단에 그림을 그려 염색한 화려한 견직물이며 금(錦)은 선염사(先染絲)로 제작한 문직(紋織)의 견직물(絹織物)이며 계(鬪)는 정세(精細)한 모직물(毛織物)이다.

중국(中國)에서 금(錦)이 출토(出土), 조사된 것으로는 전국시대(戰國時代)(403-221 B.C)의 것이 있다.¹⁹⁾ 오늘날 세계직물사상(世界織物史上)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유적에서 출토(出土)된 금(錦)은 세계최초(世界最初)의 중직(重織)의 견문직물(絹紋織物)로서 경이적(驚異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같은 금(錦)을 부여인(夫餘人)들이 중국(中國)의 전국시대(戰國時代)와 동시기(同時期)에 의료(衣料)로서 사용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같은 부여(夫餘)의 화려한 의생활(衣生活)은 청동기시대 초기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견직물문화(絹織物文化)의 전승(傳承)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기원전후기(紀元前後期)의 직물(織物)

이 시기는 청동기시대가 끝나고 철기시대가 시작되거나 또는 지역에 따라서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가 공존한 기원전 3세기경부터 기원후 3세기경까지를 다루고 있다. 철기시대로 굳이 구분하지 않은 것은 이 시기가 반드시 청동기, 철기라고 하는 기술사적인 면에서만 주시될 수 없는 시기이며, 이 시기 이후에 삼국이 형성되므로 삼국의 전단계로 사회·정치적 비

16) 註13)과 同

17) 『漢書』地理地 燕條

18) 『三國志』魏志 東夷傳 夫餘條

19) 閔吉子, 「絹織物の發祥發展에 대한 研究」, 『國民大學校育學論叢』 第一輯, pp.180-182 1981.

중이 커지는 특징이 있어 시대구분(時代區分)의 양식(樣式)을 달리하였다.

이 시기에는 청동기시대의 경제, 사회적 변화로 송화강유역의 부여, 압록강중류지역의 예맥, 요하와 대동강유역의 고조선, 동해안의 함흥 등지의 임둔, 황해도지역의 진번, 한강이남의 진국이 일어났으며 이 이후 철기의 사용으로 생활과 사회가 변화, 진전되어 갔다.

연(燕), 한(漢)과 접촉으로 고대국가에 변화가 일어나 강대하였던 고조선이 쇠퇴하고 위씨조선이 일어났으며 낙랑, 임둔, 진번, 동예의 고지(故地)에 한(漢)의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되었다. 남쪽의 진국은 고조선의 유민(流民)들이 들어온 철기문화로 급속한 정치·경제적 변혁이 일어나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등 삼국(三國)으로 분립(分立)됐다.

「위지(魏志)」한전(韓傳)에 인용된 위략(魏略)에 낙랑인이 한지(韓地)에서 목재(木材)를 벌채하여 간 일, 변한의 철(鐵)이 낙랑군이 대방군(帶方郡)에 공급된 일 등 삼한(三韓)과 한(漢)의 교류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직물(織物)에 있어서도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에 의하여 진전되고 변화되고, 교류되는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때이다.

1)부여(夫餘)의 직물(織物)

부여(夫餘)는 기록상(記錄上) 기원전(紀元前) 4세기경(世紀頃)에 확실히 나타나며 기원(紀元) 1세기(世紀)부터는 역사상에 그 명칭이 자주 거론된다. 부여의 직물은 청동기시대에서 이미 기술하였으나 부여가 기원(紀元) 4세기경(紀元前)까지 존속된 지역이므로 청동기시대에 이어 본 장에서 다시 거론한다.

부여인들이 사용하였던 의료(衣料)는 백포(白布), 회(繪), 증(縵), 금(錦), 계(闕)등과 같은 인피류직물(靱皮類織物), 견직물(絹織物), 모직물(毛織物) 등과 리(狸)유(狽), 백흑초(白黑貂)의 구(裘) 등이 있다. 상품(上品)의 의료(衣料)로서 고도(高度)한 염색술(染色術)과 제직기술(製織技術)로 제조된 것들이다.

2)삼한(三韓)의 직물(織物)

「삼국지(三國志)」에 의하면 마한(馬韓)에서는 잠상(蠶桑)을 알고 면포(綿布)를 제직하였으나 금은금수(錦銀錦繡)를 진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의(衣)는 포포(布袍)였다고 하였다. 뽕을 길러 누에를 쳐서 직물을 제조하고, 인피류(靱皮類)의 포(布)를 제직하여 의료(衣料)로 사용하였다 한다. 변진(弁辰)에서는 뽕을 길러 누에를 치고 겹포(縑布)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한다. 그리고 광폭세포(廣幅細布)를 만든다고 하였다. 「위지(魏志)」의 한전(韓傳)에 인용(引用)된 「위략(魏略)」에는 변한포(弁韓布)만오천필(萬五千匹)을 진한(辰韓)의 염사착(廉斯鑿)가 낙랑으로 가져간 기록이 있는데 광폭세포(廣幅細布), 변한포(弁韓布)는 모두 마포(麻布)로 여겨진다. 삼한지역(三韓地域)에서는 마섬유(麻纖維)가 풍토상 많이 재배되고 우수한 포(布)가 제직된 것이다.

3)가락국(駕洛國)의 직물(織物)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수로왕비(首露王妃)가 된 아유타국(阿踰陁國)의 공주인 허씨(許氏)의 시종 15명에게 각각 쌀 10석과 포(布) 30필씩을 주어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하였다. 이때의 포(布)는 마포(麻布)로 보이며 가락국에서 상용(常用)된 직물(織物) 역시 마포(麻布)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허씨(許氏)가 본국에서 가지고온 의료(衣料)에는 금(錦), 수(繡), 능(綾), 라(羅)와 의상필단(衣裳疋段) 등이 있으며 그외에서 불가승기(不可勝記)로 갖어

은 것이 많았다고 하였다. 인도(印度)의 소국(小國)인 야유(冶遊)타국은 기원전후시기(紀元前後時期)에 면직물제직(綿織物製織)이 성(盛)하여 동남아시아, 로마 등 많은 지역과 교류(交流)하였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불가승기(不可勝記) 곧 다 적지못한 품목중(品目中)에 인도에서 일반적이었던 면직물(綿織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 본다. 이 기록은 가락국과 인도 지역(印度地域)과의 직물교류상(織物交流相)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

4)낙랑(樂浪)의 직물(織物)

1916년(年)부터 일인(日人)들에 의하여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주관으로 한국전역(韓國全域)의 유적(遺蹟), 유물(遺物)에 대한 학술조사가 연차적(年次的)으로 실시되었다. 야수건외(野守建外) 수인(數人)²⁰⁾은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부근을 낙랑군시대(樂浪郡時代)의 유적(遺蹟)으로 보고하였다. 왕간묘(王汗墓)로 명명(命名)된 이 유적에서 출토(出土)된 직물류중(織物類中) 라(羅)(보고서에는 문사(文士)로 되어있다)와 평직물류(平織物類) 3점(點)을 원전숙인(原田淑人)씨가 조사하여 발표한 바가 있다.²¹⁾ 포목순랑(布目順郎)씨에 의하여도 채광총외(彩筐塚外) 석암리(石巖里) 왕간묘(王汗墓) 출토(出土) 견제품(絹製品)이 조사되었다.²²⁾ 원전(原田)씨가 조사한 직물류는 第三章에서 기술하였다. 원전(原田)씨가 조사한 섬유(纖維)의 굵기는 <표1>과 같다.

<표1> 왕간묘(王汗墓)의 견섬유(絹纖維)의 굵기

①	경(經)	8.1	8.1	13.5	8.1	10.8	10.8	12.15	9.4	8.11	8.1	평균(平均) ^㉑ 7.92
	위(緯)	12.15	10.8	9.45	8.1	9.45	10.3	13.15	14.85	8.1	12.15	10.9
②	경(經)	10.8	10.8	13.5	13.5	12.15	12.15	13.5	13.5	13.5	12.15	12.56
	위(緯)	6.75	8.1	12.15	10.8	9.45	6.75	12.15	13.5	10.53	10.53	10.53

포목(布目)씨가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포목(布目)씨가 조사한 낙랑직물(樂浪織物)

20) 關野貞, 「大同郡大洞江面古墳」, 「龍岡郡海雲面及龍月面古墳」, 1916

野守建外, 「平安南道大洞江面梧野里古墳調査報告」. 第1冊, 1930.

野守建外, 「永和九年在銘博出土古墳調査報告」, 1932.

21) 原田淑人, 「東亞古文化研究」座右寶刊行會(日本, 東京), 1940.

22) 布目順郎, 「絹織物遺物の研究」, 1967.

布目順郎, 「養蠶の起源と古代絹」 雄山閣(日本), pp. 272-276, 1930.

원자료 (原資料)	경위 (經緯) 별(別)	섬유색 (纖維色)	纖維(brin) 횡 단면(橫斷面)에 대한 측정			사(絲)를 구 성(構成)한 纖維(brin) 수(數)	Lousine ss 纖維 의 정도 (程度) 와 형 (型)	직목(織目)의 밀도(密度)(경사수(經絲 數)×위사수(緯絲數))
			완전도 (完全度)	면적(綿 織)(μ ²)	供式織物 (brin)의 數			
채광총(彩筐塚) 및 병분평건(丙 墳平絹)(1)	경(經)	초다(焦茶)	47.83.59	80.68.67	30	약(約)33	0	
동상(同上)	위(緯)	동상(同上)	47.63.58	64.35.54	32	32	0	70×30
동분(同墳), 평건(平絹)(2)	경	동상(同上)	48.33.58	74.76.38	36	37	0	
동상(同上)	위	동상(同上)	49.44.02	61.65.87	42	約 50	0	80×40
동분(同墳), 평건(平絹)(3)	경	시(柴)	45.82.81	24.62.21	33		0	
동상(同上)	위	시(柴)	46.33.07	30.92.34	50		0	80×40
동상(同上), 풀숨		시(柴)	54.737.5	28.53.18	50		0	
석암리(石巖里)212호분(號墳), 평건(平絹)(1)	경	초다(焦茶)	50.53.47	49.44.30	42		0	72×40
동상(同上)	위	초다(焦茶)	46.82.57	38.22.76	50		0	
동상(同上), 풀숨		시(柴)	51.72.97	24.41.81	61		0	
동분평건(2)	경	초다(焦茶)	54.43.51	42.93.49	31		0	
동상(同上)	위	동상(同上)	49.62.73	36.42.53	51		0	80×33
동분평건(3)	경	동상(同上)	44.14.27	35.83.71	38	約43	0	
동상(同上)	위	동상(同上)	54.03.73	38.23.35	50	約55	0	100×40
동분(同墳), 평건(平絹)(4) (여의 女衣)	경	동상(同上)	54.24.38	53.15.59	39	42	0	
동상(同上)	위	동상(同上)	55.43.74	46.63.03	51		0	
동상(同上), 풀숨		시 초 다(柴 焦茶)	42.02.95	42.03.63	50		0	
동분(同墳), 평건(平絹)(5)	경	초다(焦茶)	53.73.21	54.24.55	50	約55	0	30×30
동상(同上)	위	동상(同上)	53.73.26	46.62.68	51	約71	0	
동분(同墳), 평건(平絹)(6)	경	동상(同上)	53.23.22	56.35.16	50		0	
동상(同上)	위	동상(同上)	47.63.21	37.93.16	50		0	18×18
왕간묘(王肝墓), 평건(平絹)	경	동상(同上)	66.54.69	59.29.33	16		0	
동상(同上)	위	동상(同上)	56.74.69	67.43.74	26		0	76×38

포목(布目)씨는 백오고길(白烏庫吉)²³⁾씨의 논고를 참고하여 낙랑의 잠태(蠶台)라는 곳이 그 지역(地域)에서 누에를 길렀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地名)일 것으로 보고 출토(出土)된 견직물(絹織物)의 원사(原絲)는 현지(現地)에서 조달된 것이라는 견해(見解)를 갖고 있다. 그리고 잠태(蠶台)는 「한서(漢書)」 지리지중(地理誌中) 낙랑(樂浪) 25현중(縣中)의 한곳이며 이 지역(地域)은 예민족(濊民族)의 고지(故地)였다고 보고 있다. 또 잠중(蠶種)의 품종(品種)에 대하여 삼면계품종(三面系品種)이라고 하였다. 이 품종(品種)은 은허(殷墟)에서 출토(出土)된 견(絹)의 단면적(斷面積)에 가깝고 중국(中國) 전국시대(戰國時代)의 남방(南方)의 것과 비교하면 단면적이 아주 적다고 하였다. 이것이 곧 잠태현(蠶台縣)의 잠중(蠶種)은 은허(殷墟)와 가깝고 중국(中國) 전국시대(戰國時代)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구정화애(駒井和愛)²⁴⁾씨는 지내박사(池內博士)가 위(魏) 문제(文帝)의 조(詔) 일절(一節)에

23) 白烏庫吉, 「漢の朝鮮四郡疆域考」, 『東洋學報』 2卷 2號, pp.125-180, 1912.

있는 「낙랑연위정(樂浪練爲精)」을 통해 연(練)이 낙랑(樂浪)의 우수한 특산물(特産物)임을 기술하고 있다고 하였다. 구정(駒井)씨는 낙랑(樂浪)의 견(絹)의 소재(素材)를 예(濊), 한(韓)에서 공급(供給)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낙랑(樂浪)의 직물(織物)에 사용된 소재(所在)에 대한 일인학자(日人學者)들의 견해(見解)를 종합하여 보면 결국 소재(素材) 조달이 현지(現地) 또는 예(濊), 한지역(韓地域)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잠종(蠶種)의 품종(品種)은 삼면계품종(三眠系品種)인데 조선계(朝鮮系)에 고려삼면(高麗三面), 한삼면(韓三眠), 조선삼면(朝鮮三眠) 등 품종(品種)이 많은 것은 잠태현(蠶台縣) 등의 품종(品種)과 일맥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견해(見解)도 가지고 있다.

필자(筆者)는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오야리(梧野里)에서 출토(出土)된 방공사로 보는 평직물(平織物) 소편(小片) 수편(數片)과 소편(小片) 나류(羅類), 경무직 등을 조사하였다. 그중 소략한 평직편(平織片)은 철(鐵)로 도포(塗布)된 것으로 흔히 유체(遺體)의 머리부분에서 발견되며 관(冠)에 사용되어 방공사(方空紗)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고려사(高麗史)」, 「고려도경(高麗圖經)」²⁵⁾,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동사강목(東史綱目)」 등 문헌에 급사(皂絲), 오사(烏紗) 등이 관(冠), 복두(幘頭) 등의 소재(素材)로서 많이 쓰였다는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고려(高麗)에서 송(宋)에 진봉(進奉)한 목록(目錄) 중(中)에도 복두사(幘頭紗) 40매(枚), 모자사(帽子紗) 20매(枚) 등이 있어 이와같은 직물류(織物類)가 곧 낙랑유적(樂浪遺蹟)의 흑칠(黑漆)된 평직물편(平織物片)과 같은 것으로 사(紗)와 같이 방공적(方空的)이어서 사(紗)로 명명(命名)된 평직물(平織物)이라고 본다. 라(羅)에 있어서도 삼국시대(三國時代)로부터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 걸쳐 다양한 소재(素材)의 라(羅)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많이 전하여져 온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라(羅)는 다양(多樣)한 유품(遺品)이 현존(現存)되어 있다.

낙랑(樂浪)의 직물(織物)은 그 소재(素材)가 우리나라 국토내(國土內)에서 조달되었고 현지(現地)에서 제직(製織)된 것으로 많은 연구자(研究者)들은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各種) 문헌(文獻)에서 낙랑(樂浪)지역에서 출토(出土)된 류(類)의 직물명(織物名)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유품상(遺品上)으로도 동류(同類)의 것이 후대(後代)에 많이 사용되고 제직된 것이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일인(日人)들이 한대(漢代)의 낙랑직물(樂浪織物)로 발표한 직물류(織物類)는 중국(中國)의 한(漢)보다는 우리나라와 많은 부분(部分)에서 밀접하게 관계(關係)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筆者)는 이 직물(織物)들을 우리나라의 기원전후기(紀元前後期)의 직물(織物)로 편입시키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낙랑(樂浪)의 위치(位置)에 대하여 역사적(歷史的)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²⁶⁾ 이와같은 논의의 향방(向方)에 따라 낙랑(樂浪)의 한대직물(漢代織物)로 발표(發表)된 직물(織物)의 진실도 밝혀 질 것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誌) 연조(燕條)에 기자(箕子)가 은(殷)나라가 쇠함에 따라 조선(朝鮮)에 와서 전잠직조(田蠶織造)를 백성에게 가르쳤다고 하였으며, 낙랑(樂浪)의 견직물(絹織物)인 잠종(蠶種)의 품종(品種)은 은허(殷墟)에서 출토(出土)된 견(絹)의 단면종(斷面種)과 같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낙랑(樂浪)의 잠품종(蠶品種)과 은(殷)나라의 잠품종(蠶品種)이 동류(同類)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므로 낙랑지역(樂浪地域)(평양지역)에서 양잠(養

24) 駒井和愛, 「樂浪—漢文化の殘像」, 1972.

佐藤武敏, 「中國古代絹織物研究上」, p.256, 風間書房(日本, 東京), 1977

25) 「高麗圖經」, 卷七, 王服.

26) 尹乃鉉, 「韓國古代史新論」, pp.305-345, 一志社, 1986.

蠶된 잠종(蠶種)은 적어도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연대(年代)까지 소급되는 역사성(歷史性)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포목(布目)씨는 낙랑(樂浪)의 잠품종(蠶品種) 단면(斷面)과 중국(中國) 전국시대(戰國時代)의 남방(南方) 단면(斷面)과 비교하여 차이점이 있는 견해를 말하였다. 그리고 낙랑(樂浪)의 잠종(蠶種)은 고래(古來)로 화북(華北)에서 사육(飼育)된 삼면계(三眠系) 품종(品種)과 동계통(同系統)이고, 오늘날 계통보존(系統保存)되어 있는 산동삼면(山東三眠)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였다.²⁷⁾

일설(一說)에 은(殷)나라의 문화(文化)는 동이인(東夷人)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화(文化)라고 하는 설(設)이 있다고 한다.²⁸⁾ 은(殷)나라의 유지(遺地), 은허(殷墟)의 잠품종(蠶品種) 단면(斷面)과 낙랑(樂浪)의 잠품종(蠶品種) 단면(斷面)이 동류(同類)이고 우리나라에서 잠품종(蠶品種)이 고려삼면(高麗三面), 한삼면(韓三眠), 조선삼면(朝鮮三眠)등 삼면품종(三眠品種)이 많았던 점, 또 일본(日本)에 도일(渡日)한 우리나라의 고대인(古代人)들이 사용한 잠품종(蠶品種)에 삼면품종(三眠品種)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종합하여보면 낙랑(樂浪)의 잠품종(蠶品種)은 일찍이 동이인(東夷人)들의 생활권(生活圈)에서 서식(棲息)되었던 잠종(蠶種)과 일맥(一脈)을 이루는 것이라는 결론(結論)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낙랑(樂浪)의 한대직물(漢代織物)로 통칭(通稱)되어온 직물(織物)에는 많은 연구결과(研究結果)가 남아 있으며, 일본인(日本人)들이 조사, 연구한 것으로 그 끝을 맺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4. 선사시대(先史時代) 직물(織物)의 종류(種類)와 특성(特性)

선사시대(先史時代)에 사용 제직한 직물(織物)의 종류에는 문헌상(文獻上)에 포(布), 마포(麻布), 백포(白布), 광폭세포(廣幅細布), 변한포(弁韓布), 면포(綿布), 겹포(縑布), 회(繪), 증(縉), 금(錦), 계(鬪) 등이 있다. 출토품(出土品)으로는 낙랑(樂浪)의 직물(織物)로 조사된 라(羅), 칠사(漆紗)외에 평직물류(平織物類), 경무직류가 있다.

1)포(布)

포(布)는 처음에는 인피섬유류(靱皮纖維類)의 직물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각종 섬유의 직물이 제직됨에 따라 직물과같은 뜻으로도 사용하게 되었다. 곧 「소이아광복(小爾雅廣服)」에서는 포(布)는 마(麻), 저(紵), 갈(葛)의 통명(通名)이라고 하였으나 「당서(唐書)」서역역전(西域傳)에서는 ‘직수양모위포(織水羊毛爲布)’라고 하여 모직유(毛纖維)의 직물(織物)에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래에는 면포(綿布), 견포(絹布) 등 섬유에 관계없이 사용하여 직물(織物)의 의미로서 사용된다.

포(布)는 사용된 시대(時代)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三韓時代)에 이미 포(布)가 포(布), 마포(麻布) 백포(白布) 등과 같이 인피섬유직물명(靱皮纖維織物名)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면포(綿布), 겹포(縑布)와 같이 타섬유(他纖維)의 직물명(織物名)으로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면포(綿布)의 면(眠)은 「中文大辭典」에 의하면 「면동면(綿同縣)」이라고 하여綿과 같은 것이다. 이때의 면(綿)은 면섬유(綿纖維)의 면(綿)이 아니고 견

27) 布目順郎, 「養蠶の起源と古代絹」, 雄山閣(日本), pp.271-273, 1980.

28) 桶口隆康, 「日本人はどこから来たか」, 講談社(日本 東京), 1971.

섬유(絹纖維)(silk)를 지칭한 것이다. 후한대(後漢代)의 「급취편(急就篇)」에 면(綿)에 대하여 ‘정(精)한 비단솜’이라고 한 것에서 그 사실이 나타난다. 중국인(中國人)들이 면(綿)(cotton)을 모르던 당시의 면자(綿字)는 견(絹)과 관계된 문자(文字)였던 것이다. 그러나 면(綿)(면(縣))이 중국(中國) 후대(後代)에는 면직물(綿織物) (cotton fabric)에도 사용하게 되었다. 곧 중국(中國) 후위(後魏)의 「제민요술(齊民要術)」에는 중국(中國)에는 없는 산물(產物)이라고 하고,

‘오륙지리지왈 교지정안현목면유 수고대실여주배구유면여잠지면 우가작포 명왈백침명 모포 (吳錄地理誌曰 交趾定安縣木縣有 樹高大實如酒杯口有縣如蠶之縣 又可作布 名曰白牒名 毛布)’라고 하여 이 당시에는 면이 식물성면(植物性綿)의 나무를 지칭하기도 하고 견면(絹綿)을 지칭하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중국(中國)의 후위시대(後魏時代)에는 면(縣)이 목면(木棉) (Gosypium Cotton Plant)과 견면(絹綿)(비단솜)의 명명으로 같이 사용된 것이 보인다.

그러나 「삼국지(三國志)」의 웨인전(倭人傳)에 목면(木棉)이 나오는데 일본(日本)에서는 이것을 식물성잡섬유(植物性雜纖維)의 포(布)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일본(日本)에는 「만엽집(萬葉集)」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목면(木縣);’목면(木綿);’을 ‘ゆう’라고 훈(訓)하여 곡(穀)의 나무 또는 그 껍(皮)과 그 섬유(纖維)로 제직된 포(布)를 지칭하고 있다. 그리하여 ‘면(縣);’ ‘면(綿)’은 시대(時代)와 지역(地域)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다.²⁹⁾

그런데 「三國志」에 보이는 예(濊)의 ‘유마포잠상작면(有麻布蠶桑作縣)’의 ‘면(縣)’은 잠상(蠶桑)하여 면포(綿布)는 곧 견포(絹布)(비단솜)를 말한 것이 틀림없다. 변한(弁韓)에서 ‘지잠상(知蠶桑) 작면포(作綿布)’라고 한다. 한 면포(綿布)는 곧 견포(絹布)(silk fabric)를 말하며, 「삼국지(三國志)」의 겸포(縑布)는 견포(絹布)의 한 종류(種類)이다. 그리하여 삼한시대(三韓時代)에는 포(布)가 인피류직물명(靱皮類織物名), 기타 직물명(織物名) 등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삼한(三韓)의 포(布)는 마포(麻布)를 말하는 것이겠으나 마포(麻布)가 또 나오기도 하다.

2)증(縉)

견직물(絹織物)의 통칭(通稱)이다. 「석증(釋縉)」에 의하면 ‘증백야백증야(縉帛也帛縉也)’라고 하며 백(帛)은 이미 중국(中國) 은(殷)나라때에 갑골문(甲骨文), 금문(金文)에 나오는 문자(文字)이며, 중국(中國)에서 백(帛)은 시대(時代)에 따라 그 해석이 분분하나 청대(清代)에 임대춘(任大椿)은 ‘백(帛)을 견직물(絹織物)로 해석하고 있다. 곧 증(縉)은 견직물(絹織物)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한 종류의 견직물(絹織物)이 아닌 견직물(絹織物)의 총칭(總稱)으로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3)회(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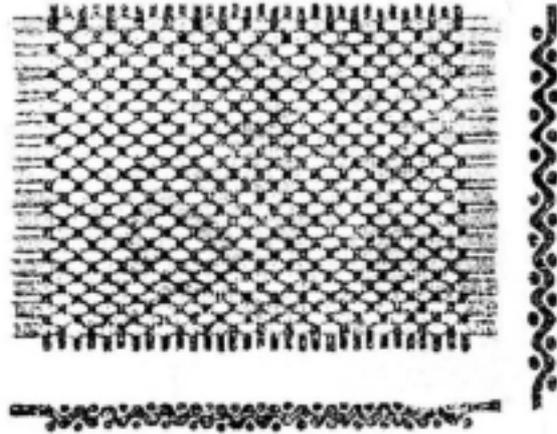
「설문(說文)」에 ‘회화야(繪畫也)’라고 하였다. 직물(織物)에 그림을 그린 것을 말한다.

4)겸포(縑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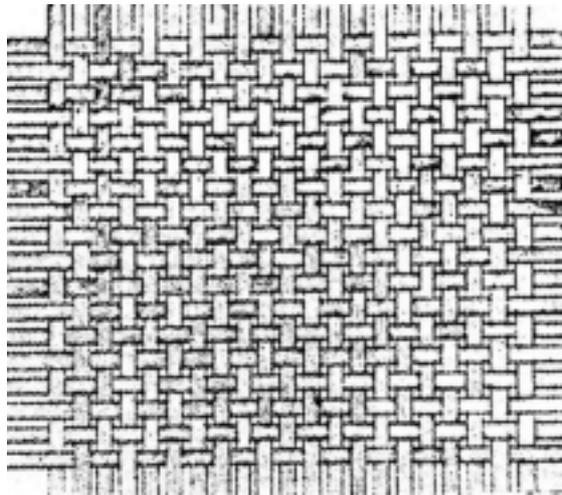
「설문(說文)」에서는 ‘병사증(并絲縉)’, 곧 병사로 제직한 견직물(絹織物)이라고 하였고 「석명(釋名)」에서는 세치(細緻)한 실을 겹쳐서 제직한 견직물(絹織物)이라고 하였다. 오늘

29) 閔吉子, 「絹織物製織年代에 관한 研究」, 『國民大學校教育學研究所教育總叢』 第3輯 p.86 1984.

날 일반적으로 2올 병사(并絲)로 된 직목(織目)을 <그림 5,6>과 같이 구별하였다. 「석층(釋繒)」에 40척의 겹(縑)이 60척의 견(絹)에 해당하니 겹이 무겁고 견이 가볍다고 한 것같이 겹(縑)이 견보다 상품(上品)이고 견사(絹紗)의 원사(原絲)가 더 들어간 견평직(絹平織)인 것이다.



<그림 5> 겹(縑)(문물(文物) 1962-7,8)



<그림 6> 평견(平絹)(문물(文物) 1962-7,8)

일본(日本) 경도대학교(京都大學校) 인문과학연구소에 중국(中國) 춘추시대(春秋時代)에서 전국시대간(戰國時代間)의 것으로 보는 동검(銅劍)이 부착된 1cm²에 90×33의 경위사 실로 된 평직물(平織物)을 포목순량(布目順郎)씨의 겹(縑)이라고 하였다.

5) 금(錦)

금(錦)은 전한(前漢)의 「급취편(急就篇)」에서 ‘직사위문야(織絲爲文也)’라고 하여 선염사(先染絲)로 제직한 견직물(絹織物)로 기록되어 있다. 후한(後漢)의 「석명(釋名)」에서 그 값은 금(金)과 같다고 하여 상당히 고가(高價)한 상품(上品)의 직물(織物)로 나타난다. 오늘날

고대(古代)의 금(錦)을 조직적(組織的)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선염사(先染絲)로 제작된 중직(重織)의 문직물(紋織物)임이 나타난다.³⁰⁾

부여인(夫餘人)이 의료(衣料)로 사용하였던 금(錦)이 어떤 종류(種類)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당시가 중국(中國) 전국시대(戰國時代)로 비정되어 전국시대(戰國時代)의 금(錦)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는 있겠다. 중국(中國)의 능전신(能傳新)씨³¹⁾에 의하면 전국시대(戰國時代)의 금(錦)은 이중경금(二重經錦), 삼중경금(三重經錦)으로 제작된 것으로 조사 발표되었다. 금(錦)은 경금(經錦), 위금(緯錦)으로 대별(大別)되어 분류(分類)되었다. 이 분류(分類)는 일본(日本)에서 최초로 한 것인데 중국(中國)에서도 오늘날 이 분류법(分類法)을 따르고 있다. 경금(經錦)은 경사(經絲)로 직문(織紋)된 것이고 위금(緯錦)은 위사(緯絲)로 직문(織紋)된 것이다.

경금(經錦)은 보통 이색(二色), 삼색(三色) 정도의 선염사(先染絲)를 경사(經絲)로 정경(整經)하여 제작된다. 그러나 그이상의 색사(色絲)로도 제작된 경우가 문헌상에 나타나고 있으나 경금(經錦)의 경우 경사(經絲)가 색수단위(色數單位)로 중첩되어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색수(色數)가 증가하면 경사(經絲)의 개구(開口)에 무리가 가게되어 제작(製織)이 어렵게 되므로 보통 이색(二色), 삼색(三色)으로 이중(二重), 삼중(三重)의 문직물(紋織物)로 제작한다. 보통 중국(中國)의 경금(經錦)은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제작된 것이 유품출토(遺品出土)로 나타나고 있는데 발달(發達)되어 전성을 이룬 때는 한 대(漢代)이다.

위금(緯錦)은 위사(緯絲)로 직문(織紋)되므로 개구(開口)된 경사(經絲)의 개구(開口)에 위사(緯絲)를 위입(緯入)하여 직문(織紋)하므로 제작(製織)에 있어서 위사의 색수(色數)를 늘여도 제작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그리하여 위금은 경금보다 색채가 다채(多彩)로우며, 문양(紋樣)도 복잡한 것이 제작된다. 위금(緯錦)은 원래 중국(中國)(한(漢))에서 제작된 경금(經錦)이 Silk Road를 통해 서역(西域)으로 직물과 그 제작기술이 전파되어 페르시아(파사(波斯))에서 그들의 장식능력(裝飾能力)으로 고안(考案)되어 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리하여 경금에 비하여 대단히 화려한 위금은 파사국(波斯國)의 동서(東西)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페르시아의 위금(緯錦)이 동역(東域)의 당(唐)으로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의 통일신라(統一新羅)에도 전파되어 왔다. 페르시아는 이와같이 견문직사상(絹紋織史上)에서 대단한 문직물(紋織物)인 위금(緯錦)을 제작하였는데 페르시아 자체(自體)의 기록(記錄)으로 오늘날에 남아 전하는 것은 없다고 한다. 다만 「남사(南史)」 서역전(西域傳)에 염무제(染武帝) 보통(普通) 원년(元年)(520)에 활국(滑國)에서 파사금(波斯錦)(페르시아 위금(緯錦))을 중국(中國)에 진헌(進獻)한 기록이 있어 기원(紀元) 6세기(世紀)에 위금(緯錦)이 제작된 것으로 추측한다.

현장(玄裝)이 파사국(波斯國)을 방문한 기원 640년경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의 파사조(波斯條)에 「대금(大錦)」을 제작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금(大錦)은 대문(大紋)의 위금(緯錦)으로 보고 있다. 위금(緯錦)은 경금(經錦)을 90°회전시킨 것과 같은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부여에서 사용된 금(錦)은 세계적(世界的)인 금제직(金製織)의 연대(年代)로 보아 경금(經錦)에 속하는 금(錦)이 확실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三國時代)에 금(錦)이 많이 사용되고 제작되어 그 직물과 제작기술은 일본(日本)에 전파(傳播)되어 오늘

30) 閔吉子, 「韓國傳統紋織物의 組織에 관한 考察 I」, 『國民大學校教育論叢』, 第10輯 1990

31) 能傳新, 「長紗新發現의 戰國絲織物」, 『文物』, 1975-2.

날 일본(日本)에 유품(遺品)으로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품(遺品)조사가 되어있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필자(筆者)가 온양민속박물관(溫陽民俗博物館)에 소장된 아미타불복장유물중 금(錦)에 해당되는 문직물(紋織物)을 발견하여 간단히 개략적으로 발표하였다.³²⁾

우리나라에서 금(錦)의 조직(組織)과 제직양식(製織樣式)을 연구(研究)하는데 있어서는 불가분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에 현존(現存)하는 금(錦)을 통하여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금(錦)일지라도 우리나라와 중국(中國)의 조직과 제직양식이 동일(同一)한 것은 아니다. 각기 토속적(土俗的)인 특징(特徵)이 있다.

6) 계(罽)

계(罽)는 정세(精細)한 모직물(毛織物)이라고 한다.³³⁾ 조후(粗厚)한 모직물(毛織物)은 갈(褐)이라고 보통 명명되었다. 세계적(世界的)으로 고대(古代)의 모직물(毛織物)에는 평직(平織), 능직(綾織), 문직물(紋織物)과 직성(織成) 등과 같은 타피스트리종류가 있는데 부여의 계(罽)가 문헌고찰(文獻考察)만으로는 어떤 종류(種類)였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부여(夫餘)에서 계(罽)가 사용된 기록이 나타나는 이래로 종류는 다르나 신라(新羅)에서 구유(毳氈), 백제(百濟)에서 탐등(毳氈)을 제조하였다. carpet 또는 rug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화려한 문직모직물(紋織毛織物)이 제직되었다. 의류(衣類), 장식용(裝飾用) 모직물(毛織物) 또는 모진(毛氈)과 같은 모(毛)의 축융물(縮絨物)이 꾸준히 제조되었다.

7) 라(羅)

평양(平壤)교외에서 출토(出土)된 라(羅)가 낙랑군(樂浪郡)의 한 대직물(漢代織物)로 발표되어 오늘에 이른 것을 전장에서 이미 기술하였다. 능문(菱紋)으로 된 것이다.

경상북도 경산군 압량면(押梁面)일대의 임당고분(林堂古墳)에서 능문직물(菱紋織物) 소편(小片)이 발견되어 필자(筆者)가 조사한 바 있다. 흙에 절어 있으며 워낙 소편(小片)이고 건드리면 풀어져 버릴 위험이 있어 육안으로 관찰하는 정도로 조사하였는데, 능문나편(菱紋羅片)인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라(羅)가 제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중애(仲哀) 9년 10월에 신라왕(新羅王)이 일본(日本) 금은채색(金銀彩色)과 같이 능(綾), 라(羅), 견(縑), 견(絹)을 보냈다고 한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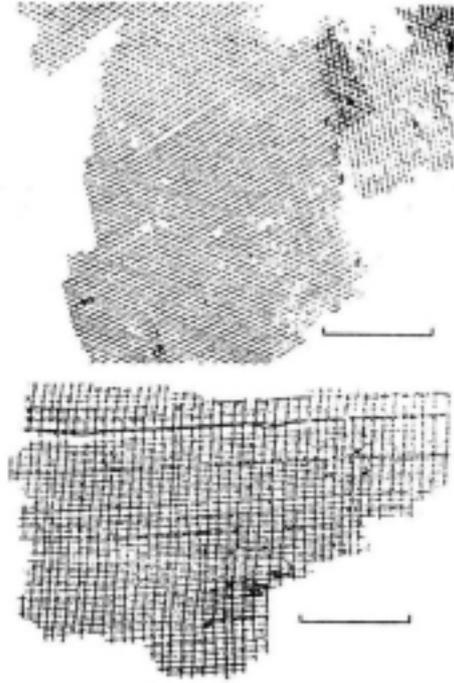
8) 칠사(漆紗)

평양(平壤)교외에서 출토(出土)된 낙랑의 한 대직물로 일인(日人)들에 의하여 조사 발표되었다. 평직물(平織物)의 일종(一種)으로 유연한 평직물(平織物)이 아니고 경사밀도가 일정하지 않다. 제직사의 굵기도 약간 가늘고 굵은 변화가 있으며, 평직물에 흑색(黑色)으로 칠이 뽀뽀하게 되어 있다. 필자는 오야리의 이와같은 평직물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바 있다. 이것은 관(冠)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평직물(平織物)이나 방공(方空)상태에서 사직물(紗織物)과 같이 투시되는 직물(織物)이므로 고대인(古代人)들은 사(紗)라고 한 것 같다.

32) 註 30과 同, pp.111-112.

33) 高漢玉, 『中國歷代織染繡圖錄』, 商務印書館香分館, p.19, 1986

34) 註 21), pp 432-433



<그림 7> 칠사(漆紗)

第3節 삼국(三國) 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직물(織物)

1. 고구려(高句麗)의 직물(織物)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주몽이 이끈 부여의 일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서기 53-146년에 걸쳐 동가유역(佟佳流域)에서 형성된 예맥족(濊貊族)과 부족국가(部族國家)에 의하여 세워진 왕국(王國)이라고 한다. 건국초기의 고구려는 험한 산이 많고 농경지가 적었으며 한랭한 기후 등으로 역경을 겪었으나 그 후 옥저(沃沮), 동예(東濊)를 복속시켜 미천왕14년(313)때에 대동강(大洞江)유역으로 진출하여 낙랑군(樂浪郡)을 축출하고 영토를 넓혔다. 광개토왕(廣開土王)때에는 영토를 서쪽으로 넓혔으며 장수왕(長壽王)때에도 국도(國都)를 압록강 중류의 통구(通溝)로부터 평양(平壤)으로 천도하였다. 고구려인들은 초기의 역경을 극복하고 국력(國力)을 길러 북위(北魏) 동북(東北) 중국(中國), 북방계문화지역(北方系文化地域), 일본(日本)등과 교섭하였고 부여계의 발달된 고유문화(固有文化)의 기초위에 외래적(外來的), 문화요소(文化要素)를 융합하여 독자적(獨自的) 전통문화(傳統文化)를 이루어갔다.

직물(織物)에 있어서도 이지역이 마(麻)의 적지이고 양잠의 적지인 예지역(濊地域)이 포괄되어 일찍이 농상(農桑)을 장려하여 직물생산(織物生産)에 힘썼다. 이리하여 각종 섬유와 각종 직물을 제직하게 되었으며 특산물(特産物)은 일본(日本), 중국(中國)에 전파되어 갔다. 직물제직기술(織物製織技術)도 일본(日本)에 많은 부분이 전파되어 갔으며, 중국(中國)에도 특수한 직물의 제직기술이 전파되어 갔다.

1) 문헌(文獻)을 통하여 본 고구려(高句麗)의 직물(織物)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주몽(朱蒙)이 모둔곡(毛屯谷)에 이르러 세삼과 만났는데 마의(麻衣), 남의(衲衣), 수조의(水藻衣)를 입었다고 하였다. 「위서(魏書)」에 의하면 고구려에는 의복(衣服)이 포(布), 백(帛), 피(皮)인데 잠농부족(蠶農不足)으로 자급자족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북위(北魏)의 사신 이부(李敷)가 태무제(太武帝) 시광(始光)4년(427)에 기록한 것인데, 초기 고구려의 상태를 기록한 것이다.

「三國史記」에는 농상(農桑)을 장려한 사실이 평원왕(平原王) 25년(583)으로 나타나 있는데 「당서(唐書)」에는 왕복(王服)은 오채(五彩)이고 백라관(白羅冠)을 썼다고 하였듯이 직물(織物)의 사용과 제조는 차차 발달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구당서(舊唐書)」에는 고구려에서 양잠(養蠶)이 중국(中國)과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직물에 대하여 백라(白羅), 청라(靑羅), 비라(緋羅)가 관(冠)에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앞서 「위서(魏書)」에도 자라(紫羅)가 관(冠)에 사용된 것이 나타나 있다.

당(唐)의 고종(高宗) 현경(顯慶) 5년(660) 이전에 저술한 것으로 저자(著者) 장초금의 자서(自序)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한원(翰苑)」에 ‘…… ‘高麗婦人衣白 而男子衣紅錦 飾以金銀

‘(고려부인의백 이남자의홍금 식이금은

貴者冠幘 而後以金 爲鹿茸 加之幘上 賤者冠折風 穿耳以金環 上衣白衫 下曰長袴 腰有銀帶 귀자관책 이무이금 위녹용 가지책상 천자관절풍 철이이금환 상의백상 하왈장고 요유은대 左佩礪 而右佩五子刀 足履豆禮답 高麗記云 其民亦造錦 慈地纈文者爲上 次有五色錦 次有雲 좌패려 이우패오자도 족리두례답 고려기운기민역조금 자지힐문자위상 차유오색금 자유은 布錦 又造白疊布 靑布而尤佳 又造障曰 華言接籬 其毛卽鞞猪鬣也’

포금 우조백첩포 청포이우가 우조장왈 화언접의 기모즉발갈저발야)’와 같이 고구려(高句麗)의 복식(服飾)과 직물(織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高句麗)에서 제직(製織)한 직물류(織物類)는 금(錦), 자지힐문(慈地纈文)한 염문직물(染紋織物), 오색금(五色錦), 운포금(雲布錦), 백첩포(白疊布), 아주고운 청포(靑布)이고 말갈저발(鞞猪鬣)로 만든 장왈(障曰)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각종직물(各種織物)을 제직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남자의(男子衣)로 사용된 홍금(紅錦)도 고구려에서 제직하였다고 본다.

백첩포(白疊布)에 대하여 필자는 면직물(綿織物)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³⁵⁾ 장왈(障曰)은 중국(中國)에서 접리(接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한원교석(翰苑校釋)」³⁶⁾에서는 「어람(御覽)」六八七 복장부사(服章部四)의 長曰條에 ‘晉人王故事曰 初趙王倫將篡位 落下童謠曰 屠蘇障曰伊兩耳 當有瞎兒 作天子 于時商農通著大裁障曰 倫實眇目也’를 들어 상인(商人), 농부(農夫)가 해를 파하여 쓰는 모자(帽子) 또는 두건(頭巾)을 말한다고 하였다. 곧 자왈은 모포(毛布), 모직물명(毛織物名)이 아니다.

2) 고구려(高句麗)의 직물(織物)과 제직기술(製織技術)의 교류(交流)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대조대왕(大朝大王) 69년 (121년)에 숙신(肅愼)의 사신이 와서 고구려에 자구(紫裘)를 바쳐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흠명제(欽命帝) 23년(562)에 대방협수언(大伴狹手彦)이 고구려에 가서 궁전(宮殿)의 칠직

35) 閔吉子, 「白疊布, 白氎布考」, 『國民大學校 教育論叢』 第7輯, 1987.

36) 湯淺幸孫校釋, 『翰苑校釋』 國書刊行會 (日本), p.92. 1983.

(七織)의 장(帳)과 오색번(五色幡)을 일본(日本)에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日本)의 「용주부지(雍州府志)」에는 ‘고려승무(高麗勝武)’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죽으로 만든 염색된 갑옷이라고 한다.³⁷⁾ 혁염(革染)의 일종(一種)으로서 고구려인이 염색한 것이며 후에는 일본(日本)에서 고려염부(高麗染部)(こまそのべ)로 제도화(制度化)하였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일본(日本)의 인현천황(仁賢天皇) 6년(493)고구려왕이 수류지(須流枳)(するき), 노류지(奴流枳)(ねるき) 등 혁공(革工)을 보내어 박염부(狛染部)(こまそのべ)의 조상(祖上)이 되었다는 기록과 같은 것일 것이다. 승무염(勝武染)은 남염(藍染)으로 약간 갈색을 띠는다고 하며 산남염(山藍染)이라고 한다.

일본(日本)에서 수류지(須流枳), 노류지(奴流枳)는 대화산변군(大和山邊郡) 액전읍(額田邑)에서 공교한 기술로 염색하여 후대(後代)에 혁염(革染)은 비후입대군고한고(肥後入代郡古閑稿)에 기술이 전하여졌다고 한다. 고구려(高句麗)의 혁염기술(革染技術)이 일본(日本)에 전파(傳播)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日本)의 「왜명초(倭名抄)」에는 고려금(高麗錦)은 담□금(曇□錦)이라는 기록이 있다. 일본(日本)의 정창원어물중(正倉院御物中)에 산수팔괘배입면경(山水八卦背入面鏡)의 팔각형상개(八角形箱蓋) 끈, 팔각상자의 뚜껑에 붙여진 직물(織物)이 고려금(高麗錦)이라고 하는데, 고구려에서 일본(日本)에 도래(渡來)되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³⁸⁾

중국(中國)의 「책부원구(冊府元龜)」에는 대종(太宗) 대력(大曆) 6년 4월(771)에 사치를 금하는 조중(詔中)에 고려백금(高麗白錦)은 제조하여도 된다고 한 기록이 있다. 고구려(高句麗)에서 담□조(曇□調)의 금(錦)과 백금(白錦)이 제직되어 일본(日本)과 중국지역(中國地域)에 전파되었던 사실이 나타나는 기록들이다.

「삼국지(三國志)」에는 옥저(沃沮)에서 고구려에 맥포(貂布)를 부조(腑祖)로 바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맥포(貂布)는 예맥(濊貂) 등지의 마포(麻布)로 본다.

3) 고구려(高句麗) 대안리고분(大安里古墳)의 직녀도(織女圖)

평안남도 용강군 대안리에 5세기경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고구려 고분인 대안리(大安里)1호분(號墳)의 현실남벽에 직녀도(織女圖)가 있다.³⁹⁾ 보고서에 의하면 ‘이벽 서쪽부분은 완전히 박락되어 알 수 없고 동쪽부분만이 일부 남아 있는데, 벽상부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베틀에 앉아서 베를 짜는 광경을 그렸다. 이러한 직녀도는 고분벽화에서 처음보게 되는데 그 시기 수공업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나 벽면이 흐려서 베틀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직기의 원형(元型)을 가름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

2. 백제(百濟)의 직물(織物)

백제(百濟)는 진왕(辰王)이 지배한 마한(馬韓)의 백제국(伯濟國)이 중심이 되어 점차로 주변의 여러지역을 통합하여 세운 국가이다. 백제의 건국년대는 3세기에서 4세기로 유동적인 여러 견해가 있으나 백제의 제8대 고이왕대(古爾王代)(234-258) 정도로 보고 있다. 왕계(王系)는 고구려와 부여계로 보는 경향이나 민족은 토착한족(土着韓族), 동예(東濊), 고구려(高句麗) 방면의 한 지류(支流)와 북방유이민(北方流移民), 낙랑(樂浪), 대방군(帶方郡)의 유민

37) 渡邊素白, 『日本服飾美術史 上』. p.56, 雄山閣(日本, 東京), 1973.

38) 註37). p.125

39) 「평안남도 용강군 대안리 제1호분 발굴보고서」, 『고고학자료집』 2집, 과학원출판사.1959.

(流民)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잡다한 민족적 구성위에 건국후 고구려와의 대항, 교섭, 중국의 동진(東晉), 남조(南朝)의 송(宋), 제(齊), 양(梁), 진(陳) 등 강남제국(江南諸國)등과의 접촉, 신라의 백제와의 접근 등에 의하여 백제문화에는 다양한 요소가 함축되게 되었으며 이들 문화요소들이 융합되어 특이한 백제문화(百濟文化)를 발전시키었다.

백제는 고구려로 인하여 중국의 북조(北朝)와 접촉이 곤란하였으나 백제의 문화요소속에 북위(北魏)의 문화요소(文化要素)도 있다고 하니 그 문화요소의 범위가 아주 넓다고 하겠다. 「위서(魏書)」의 백제전(百濟傳)에 의하면 백제의 의복과 음식이 고구려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부여족의 전통이 같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같이 백제의 문화요소에는 부여족의 고유문화와 낙랑, 대방군의 요소 그리고 남조(南朝)와의 접촉에 의한 영향 등을 들어 그 문화 구성요소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종합적으로 이입(移入)된 문화보다는 기원(紀元) 제1-2세기경(紀元前) 의외(意外)로 고도한 문화요소가 토착(土着)되었던 잠재적 지역문화가 백제 제반문화의 기태(基台)가 되었으며 직물(織物)에 있어서도 그 기층문화(基層文化)의 요소(要素)가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지속되었다고 본다.

1) 문헌(文獻)을 통하여 본 백제(百濟)의 직물(織物)

백제는 고이왕(古爾王) 27년(260)에 16등관계(等官階)를 정하고 복색(服色)을 정비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6품(品)이상은 자색(紫色)을 입고, 은화(銀花)로서 관(冠)을 장식하며 11품(品) 이상은 비색(緋色)을 입고 16품(品) 이상은 청색(靑色)을 입게하였다고 하였다. 「당서(唐書)」에 의하면 왕(王)은 자색수포(紫大袖袍)와 청금고(靑錦袴), 금화식조라관(金花飾鳥羅冠), 소피대(素皮帶), 조위리(鳥韋履)를 신었다고 한다. 「구당서(舊唐書)」에는 관인(官人)은 비화(緋畫)로 된 의복을 입고 은화식관(銀花飾冠)을 썼으며 서인(庶人)은 비색(緋色)등 의복을 입을 수 없다고 하였다. 「수서(隨書)」에 의하면 백제에서는 좌평(佐平)(1품(品))에서 장덕(將德)(7품(品))까지는 자색대(紫色帶), 시덕(施德)(8품(品))은 향색대(향색帶), 고덕(固德)(9품(品))은 적색대(赤色帶), 계덕(季德)(10품(品))은 청색대(靑色帶), 대덕(對德)(12품(品)).문독(文督)(12품(品))은 황색대(黃色帶), 무덕(武德)(13품(品))에서 극우(克虞)(16품(品))까지는 백색대(白色帶)라고 하여 색(色)에 존비(尊卑)의 차이를 두었던 것이 나타난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일본최근(日本最近)의 관위(官位) 12계(階)를 성덕태자(聖德太子)가 재정하였는데 정상광정(井上光貞)은 백제의 관위를 제일 중시하고 백제의 제도를 중심(中心)으로 고구려의 제도를 참조하여 성립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모든 제도를 종합하여 볼 때 백제에서는 왕(王)이 금(錦)으로 된 옷을 입고 관인(官人)은 비색화(緋色畫)의 옷감으로 된 옷을 입었으며 색(色)은 자(紫), 청(靑), 금(鎔), 적(赤), 청(靑), 백(白), 소(素), 비색 등이 등위(登位)에 따라 사용되었던 것이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왕과 관인들이 사용한 직물(織物)과 색(色)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백제의 일반인(一般人)들의 직물(織物)에 대하여 「문헌통고(文獻通考)」에 포(布), 견(絹), 마(麻), 미(米) 등으로 부세(賦稅)를 낸다는 기록이 있어 포(布), 견(絹), 마(麻)가 일반적(一般的)인 직물(織物)이었음이 나타난다. 백제의 고지인 마한(馬韓)은 잠상지대(蠶桑地帶)였으므로 견(絹)이 많이 제직되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광개토왕(廣開土王) 능비(陵碑)의 비문에 영락왕(永樂王) 6년(396)에 왕(王)이 친히 수군(水軍)을 거느리고 백제를 정벌하였을 때 백제가 세(勢)의 궁핍을 알고 남녀일천인(男女一千人)과 세포일천필(細布一千匹)을 내어 항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사실로서 백

제(百濟)에서는 일찍이 세포(細布)가 많이 제직되었던 것이 나타난다.

「위서(魏書)」에는 중국(中國) 연흥년간(延興年間)(471-175)에 백제에 내린 조(詔)의 내용에 '所獻錦 布 海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백제가 고구려와의 항쟁에 북위(北魏)의 성원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사신을 북위로 보낼 때 백제의 사신이 가져간 물목(物目)에 대한 중국(中國)의 회신물목(回信物目)이다. 백제(百濟)에서 금(錦)이 제직되고 있었음이 나타나는 내용이다.

2) 백제(百濟)의 직물(織物)과 제직기술(製織技術)의 교류(交流)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일본(日本)의 응신천황(應神天皇) 14년(283)에 백제의 왕(王)이 봉의공녀(縫衣工女)(きねるいをみな)을 일본(日本)에 보냈다고 한다. 웅략천황(雄略天皇) 7년(463)에는 백제에서 화부인사라아(畫部因斯羅我)와 금부정안나금(錦部定安那錦)이 일본(日本)에 가서 금부연(錦部連)의 시조(始祖)가 되었다고 한다.

흠명천황(欽明天皇) 12년(551)에는 석가불(釋迦佛)과 금동상(金銅像), 번개(幡蓋) 약간(若干), 경론(經論) 약간권(若干卷)을 성명왕(聖明王)이 보냈다고 하였다. 흠명천황(欽明天皇) 15년(554)에는 백제(百濟)에서 호금이필(好錦二匹), 탐등일령(髡毳一領)을 보냈다고 하였다. 추고(推古) 7년(599)에는 낙타일필(駱駝一匹), 양이두(羊二頭), 노일필(牛一匹), 백치일쌍(白雉一雙)을 보냈다고 한다.

곧 백제에서 일본(日本)에 보낸 직물(織物)은 호금(好錦), 탐등(髡毳)이고, 직물제품(織物製品)으로서 번개(幡蓋)가 있다. 번개(幡蓋)는 번두(幡頭)라고도 하는데 불전내외(佛殿内外)의 벽과 기둥에 세웠던 기(旗)의 선단부분(先端部分)이다. 이것은 자수직물(刺繡織物), 금(錦) 등으로 화려하게 만든 것이다. 탐등(髡毳)은 신라(新羅)의 구유(毳毼)와 같은 모(毛)의 제품(製品)으로서 carpat, rug에 해당되는 것이다.

일본(日本)에서 금(錦)을 제직하게 된 것은 웅략제(雄略帝) 7년 (463)에 백제(百濟)에서 직공(織工) 정안나(定安那)가 도일(渡日)하여 하내(河內) 도원(桃源)에서 한금(韓錦)을 제직하게 된 때부터라고 한다. 이것이 일본(日本)의 하내금(河內錦)이고 일본(日本)의 금부연(錦部連)의 조상(祖上)이 된 것이라고 한다.

일본(日本)의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에 의하면 하내국(河內國) 금부연(錦部連) 삼선숙미(三善宿彌)는 백제(百濟)의 운고왕(連古王)의 후예이고 화천국(和泉國)의 금부연(錦部連) 삼선숙미(三善宿彌)와 같은 조상(祖上)이다. 산성국(山城國)의 금직촌주(錦織村主)와 대화국(大和國)의 금직촌주(錦織村主)는 한인(韓人) 파노지(波奴志)의 후예라고 한다. 중하내(中河內)에는 백제사(百濟寺)가 있고 백제인이 많이 귀화하였다고 한다. 금부안정나(錦部安定那)가 금직부(錦織部)의 조상(祖上)이 되고 그 후 일본(日本)의 금(錦)은 발전되었다.

백제(百濟)의 직물(織物)과 그 제직기술(製織技術)은 일본(日本)의 직물(織物)과 제직기술의 바탕이 되었다. 그위에 의복을 제조하는 봉의공녀(縫衣工女)가 일본(日本)에 가서 바느질법을 가르쳤으며 성덕태자(聖德太子)는 백제(百濟)의 관위(官位)를 참고하여, 일본최초(日本最初)의 관위십이계(官位十二階)를 제정하였으니 일본(日本)의 섬유(纖維), 직물(織物), 제직기술(製織技術), 염색기술(染色技術), 의복제작(衣服製作), 관복제도(冠服制度)는 백제(百濟)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⁴⁰⁾

한편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백제의 무왕(武王) 38년(1637), 입당(入唐)하는 사신에게 금포(錦袍)와 채백삼천단(彩帛三千段)을 당제(唐帝)가 주었다고 하였다. 「양서(梁書)」에는

40) 大野達之助, 「聖德太子の研究」, 吉川弘文館(日本. 東京), 1970

공장화사(工匠畫師) 등이 양(梁)으로부터 백제의 초치(招致)된 기록이 있다. 당(唐)과 양(梁)으로부터 금포(錦袍)와 화사(畫師)가 백제에 온 기록이다. 백제는 이와같이 일본(日本), 중국(中國) 등지(等地)와 교류(交流)되었다.

3. 신라(新羅)와 통일신라(統一新羅)의 직물(織物)

신라(新羅)는 혁거세(赫居世)가 건설하였다고 전하여 온 진한(辰韓) 12국중(國中) 사라국(斯羅國)이 주위의 부족국가(部族國家)들을 통합하여 점차로 낙동강연안(洛東江沿岸)의 가야제연맹국(伽倻諸聯盟國)을 병합하여 이른 왕국(王國)으로서 내물왕대(奈勿王代)(356-401)를 건국연대(建國年代)로 보고 있다.

낙동강하류지방(洛東江下流地方)의 변한(弁韓) 12국(國)은 진왕(辰王)의 지배를 받지않는 연맹국으로서 그중 구사국(狗邪國)(김해(金海)), 미오사마국(彌烏邪馬國)(고령(高靈)) 등이 있었던 구사국(狗邪國)은 수로왕(首露王)을 시조(始祖)로 받들고 대가야(大伽倻)로 발전하고 미오사마국(彌烏邪馬國)은 어진야고(伊珍侂고)를 시조로 받들고 대가야(大伽倻)로 발전하여 이 지방의 여러 부족국가들과 연합하여 가야연맹을 형성하고 특히 본가야(本伽倻)을 중심으로 해상활동(海上活動)을 하여 서해안으로는 낙랑(樂浪), 대방(帶方) 등과 접촉하고 동해안으로는 예(濊)와, 남으로는 왜(倭)와 접촉하여 발달된 문화(文化)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와 중간에 위치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신라(新羅) 법흥왕(法興王) 19년(532)에 본가야(本伽倻)가 신라에 복속되어 신라는 가야제국의 문화(文化)까지 합류(合流)하게 됐다.

신라는 지리적으로 동남일우(東南一隅)에 위치하여 독자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특색이 있었다. 진한의 전통적 요소를 기반으로 그위에 고구려, 백제의 문화와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는 북방계문화 또는 직접적인 북방문화, 백제를 배경으로 하는 중국의 남조문화(南朝文化), 중국본토(中國本土)의 문화(文化), 적계는 낙랑(樂浪), 대방문화(帶方文化) 등 각종문화요소(各種文化要素)와 접촉되어 수용(受容), 소화(消化), 변용(變容)의 과정을 거치며 민족성(民族性)을 지주로 하는 전통문화(傳統文化)를 이루어갔다.

금(錦), 은(銀), 철(鐵), 화강암(花崗巖)등을 다루는 공예기술이 발전하였는데, 양산부부총(梁山夫婦塚), 서봉총(瑞鳳塚) 등에서 발견된 관(冠), 이식(耳飾), 대금구(帶錦具), 요패금구(腰佩金具), 완륜(腕輪)(팔찌)등을 통하여 화려하고 섬세한 금은세공의 발달과 생활문화(生活文化)의 양상이 나타난다.

그후 고구려 보장왕(寶藏王) 27년(668), 백제 의자왕(義慈王) 20년(660)에 고구려와 백제는 망하고 신라(新羅) 문무왕(文武王) 16년(676)에 삼국(三國)을 통일(統一)하였다.

고구려가 당(唐)과의 항쟁에서 멸망한 후 요동지방(遼東地方)의 많은 부분이 당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또 고구려의 유민(流民)들이 발해(渤海), 송화강유역(松花江流域)(옛부여의고지)에 발해국(渤海國)을 건립하게 되어 통일신라의 영역이 삼국시대의전국토에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신라의 통일은 한국민족의 독자적 역사발전의 터전을 이루는 출발이었다.

통일을 전후하여 신라에는 왕실(王室)의 의(衣),식(食),주(住)를 비롯하여 여러 수공업품(手工業品)을 제조하는 관서(官署)를 두었고 여기에는 노비신분의 수공업자(手工業者)들이 소속되었다. 천민도 농경, 목축,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경덕왕(景德王) 14년(755)에 작성된 서원경(西原京)과 그 부근 4개촌의 장적(帳籍)에는 촌(村)의 호수(戶數), 인구(人口), 우마수(牛馬數), 토지면적(土地面積), 잣나무, 호도나무의 본수(本數)와 더불어 상목(桑木)의 본수(本數)가 기록되어 있어 뽕을 심어 누에치는 일이 국가

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음이 나타난다. 대외적(對外的)으로는 당(唐)과의 조공형식(朝貢形式)의 경제적 교역(交易)으로 원료(原料)와 공예품(工藝品)(직물(織物) 포함)을 당(唐)나라에 보내고 당(唐)의 수입품으로서 귀족(貴族)들의 기호에 따라 공예품, 직물들이 들어왔다. 문화적(文化的)인 면(面)에서도 당(唐)으로부터 서적과 미술품이 수입되었다. 일본(日本)과도 문화적(文化的)인 교섭이 있었고 아라비아 상인들도 출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성덕왕대(聖德王代)(702-736)에 이르러는 만파식적(萬波息笛)으로서 평화(平和)를 누리며 토속적(土俗的) 전통(傳統)위에 국제적(國際的) 문화(文化)를 융합해나갔다. 그러나 흥덕왕(興德王) 9년(834)에는 사치를 금하는 하교(下敎)가 내려지기에 이르렀다. 이 하교(下敎)의 내용을 통(通)하여 그 당시 다양(多樣)한 직물(織物)이 사용된 것이 나타난다. 뿐만아니라 일본으로 건너간 각종 공예품과 직물류(類)를 통하여 신라인의 고도로 발달한 공예기술을 알 수 있다.

1) 문헌(文獻)을 통하여 본 신라(新羅)와 통일신라(統一新羅)의 직물(織物)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시조(始祖) 혁거세(赫居世) 거서간(居西干) 17년에 왕이 왕비(王妃)와 같이 육부(六部)를 순행(巡幸)하며 백성에게 농상(農桑)을 장려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국초(國初)부터 뽕나무를 심고 누에치는 일을 국가적으로 장려하였음이 나타난다. 유리(儒理) 이사금(伊師今) 9년(32)에는 가배(嘉俳)행사를 하여 왕(王)이 6부(部)를 정하고 한가운데를 갈라 나누어 두 왕녀(王女)가 각기 부내여자(部內女子)를 거느리고 적마(績麻)하고 그 성적을 가름하여 진편이 주식(酒食)을 제공하고 일을 하였다고 한다. 곧 삼삼고 베짜기를 장려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다.

눌지(訥紙) 마립간(麻立干) 7년(423)에는 왕이 노인(老人)을 초청하여 진치 음식을 내리고 곡식과 비단을 나누어주었다는 기록이 있어 비단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임이 나타난다. 소지(昭知) 마립간(麻立干) 22년(500)에는 왕이 발기군(발己郡)에 행차하신 때에 군인(郡人) 파로(波路)가 16세의 딸을 금수(錦繡)의 옷을 입히어 색견(色絹)가마에 태워 왕에게 바쳤다고 한다. 이 시기에 일반인들이 화려한 비단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나타나는 기록들이다. 법흥왕(法興王) 7년(520)에는 주자지질(朱紫之秩)의 백관공복제(百官公服制)를 선포하여 이로서 복제(服制)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니 직물(織物)과 색(色)의 사용에 있어 귀천(貴賤)의 제도가 생긴 것이다. 진덕왕(眞德王) 4년 (650)에는 왕(王)이 오언태평송(五言太平頌)을 직입(織入)한 직금(織錦)을 제작하여 당제(唐帝)에게 보냈다. 이 기록은 「구당서(舊唐書)」, 신라전에도 기록되어 있다. 문자금(紋字錦)이 제작된 것이다. 진덕왕(眞德王) 7년(653)에는 당(唐)에 금총포(金總布)를 보냈다. 문무왕(文武王) 5년(665)에는 견포(絹布) 10심(尋)을 1필(匹)로 하였는데 고치어 7보(步), 넓이 2척(尺)을 한필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견포(絹布)의 규격화(規格化)인 것이다. 문무왕(文武王) 10년(670)에는 안승(安勝)을 고구려왕에 봉하고 능(綾) 5필(匹), 견세포(絹細布) 각(各)1필(匹), 면(綿)15칭(稱)을 주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경덕왕(景德王)때에 당(唐)의 대종대황(太宗皇帝)가 불교에 독실함을 알고 침단(沈檀)을 조각하여 명주미옥(明珠美玉)으로 만든 일장여(一丈餘)의 가산(假山)을 묘사한 만불산(萬佛山)이라고 명명된 공예품(工藝品)을 제작하여 당제(唐帝)에게 보냈다고 한다. 이 만불산(萬佛山)은 오색(五色)의 구유(毳氈)로 된 깔개(carpat, rug)를 깔았다고 한다. 구유는 모제품(毛製品)이다. 통일신라(統一新羅)에서는 신라시대부터 쌓아온 민족문화(民族文化)의 기초(基調)로 독자적인 신라공인의 기혼(氣昏)이 나타나는 공예예술(工藝藝術)을 이루었다. 해초(蕙草) (704-?)는 해로(海路)로 인도로 갔으며 귀로는 비단길을 통하여 727년 중국으로 들어가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기술하였다. 신라인은 해상

(海上)으로 진출하여 북(北), 남중국(南中國)은 물론 요동, 일본과 통교하였다. 동지나해상(東支那海上)의 패권을 장악하고 요하지역에서 강남(江南)까지 대륙연안(大陸沿岸)의 요항각지(要港各地)에 신라인의 거류지를 놓고 또 육로(陸路)로는 만주에 출입교역하여 상리(商利)를 얻어 경제적 기반을 쌓고 문화를 발전시키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잡지(雜誌)의 색복(色服), 거기(車騎)의 조(條)에 의하면 신라의 의복제도는 법흥왕때 처음으로 6부(部)의 복색(服色)이 제정되어 존비제도(尊卑制度)를 이루었는데 오히려 동이(東夷)의 풍속 그대로였다고 하였다. 진덕왕(眞德王) 2년(648)에는 김춘추(金春秋)가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 의식(儀式)을 따르고자 청하자 현종(玄宗)(태종(太宗)의 오(誤)라고 한다)이 의대(衣帶)를 급여(給與)하였고 이로인해 중국풍속이 들어왔다고 한다. 문무왕(文武王) 9년(669)에는 부인의 의복(衣服)까지 개혁하여 의관(衣冠)이 중국(中國)과 같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왕가(王家), 귀족(貴族)들이 중국(中國)의 복식(服飾)을 개혁하여 의관이 중국과 같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왕가(王家), 귀족(貴族)들이 중국(中國)의 복식(服飾)을 따른 것이니 직물(織物)에 있어서도 변화(變化)가 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층(基層)의 복식(服飾)과 직물문화(織物文化)는 토속적(土俗的)인데서 쉽사리 변화될 수 없었을 것이며 그 문화(文化)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전통(傳統)의 기층(基層)이 되었을 것이다. 의복제도(衣服制度)의 변화(變化)와 더불어 아라비아 상인들의 출입에 의한 변화도 대단히 컸을 것이다. 곧 위금(緯錦)과 같은 화려한 견문직물(絹紋織物)과 제직기술도 직접 또는 당(唐)을 통하여 들어왔다고 본다.

법흥왕(法興王)때의 제령(制令)에는 태대각간(太大夫)에서 대아찬(大阿飡)(5등급(等級))까지 자의, 아찬(阿飡)(6등급(等級))에서 급벌찬(級伐飡)(9등급(等級))까지 비색(緋色)으로 모두 아삼(牙參)을 가지게 하였다. 대나마(大奈麻)(10등급(等級)), 나마(奈麻)(11등급(等級))은 청의(靑衣), 대사(大舍)(12등급(等級))에서 조위(造位)(17등급(等級))까지는 황의(黃衣)였다. 이찬(伊飡)(2등급(等級)), 잡찬(迺飡)(3등급(等級))은 금관(錦冠)을 쓰고 대나마(大奈麻), 적위대사(赤位大舍)는 조영(組纓)을 매었다. 조영(組纓)은 실로 짠 다회(多繪)이다. 이와같은 복제(服制)의 변화(變化)와 더불어 색(色)과 직물(織物), 조물(組物)에 사용에 변화(變化)가 생겼을 것이다.

흥덕왕(興德王) 9년(834)에 하교(下敎)되어 허용된 직물(織物)과 금지된 직물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보면 그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다. 금지된 직물(織物)도 그 시대에 사용되었으므로 금지된 것이니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직물은 허용된 직물, 금지된 직물 모두가 된다고 본다. 하교(下敎)된 내용에서 ‘…… 백성들이 다투어 호화사치를 일삼고 다만 외래품의 진기한 것만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품을 싫어하며 ……」하고 한 것으로 미루어 외래의 직물류도 다양하게 수입되어 사용된 것이 나타난다.

아래의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허용된 직물과 금지된 직물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표 3>에 작성하였다.

<표3> 삼국시대의 직물

계 급	허용된복식의 직물		금지된 복식의 직물	
진골대등(眞骨大等)	말(襪)(버선) 리(履) 포(布)	능(綾)이하 피(皮), 사(絲), 마(麻) 입 의사용 26승(升) 이하	표의(表衣), 반비 (半臂) 고(袴),화(靴)	계(鬪), 수(繡), 금(錦) 라(羅) 자피(紫皮)
진골녀(眞骨女)	포(布)	28승이하	표피(表皮) 내의(內衣), 반비 고, 버선, 신 표(袂)(목도리 색(色)	계, 수, 금, 라 계, 수, 라 계, 수에 금은(金銀) 공작모(孔 雀毛), 비취모(翡翠毛), 사용금 9색(色) 자(赭), 황색(黃色) 금
육두품(六頭品)	복두(幞頭) 표의(表衣) 내의(內衣) 고(袴) 말(襪) 포(布)	세(總), 라(羅), 시(紵), 견(絹) 포 금세(錦細), 세포(細布) 소문능(小紋綾), 시(紵) 견포(絹布) 시, 견, 금세, 포 시, 금세, 포 18승 이하	화(靴) 신	검은고라니 주름진 자주피 피(皮), 마(麻)
육두품녀(六頭品女)	표의(表衣) 포(布)	소문능, 시, 견 25승이하	내의 반비 고 표 배(褙), 당(檔) 단의(短衣) 표 요의반(褖衣攀) 속치마 대(帶) 버선목 버선 신 관(冠) 색(色)	계, 수, 금 야초라(野草羅) 계, 수, 라, 세라(總羅) 계, 수, 금, 라 세라, 금니(金泥) 계, 수, 금, 라, 금은니(金銀泥) 계, 수, 금, 라 포방라(布紡羅), 야초라, 금은니 계, 수, 금, 라, 세라, 야초라, 금은니, 협힐(纈纈) 계, 수 계, 수, 금, 라 야초라 금은사(金銀絲), 공작모, 비취 모, 계, 라, 세라 계, 수, 금, 라 세라, 야초라 계, 수, 금, 라 세라 자, 황(黃), 자분금설홍(紫粉金 屑紅)
오두품(五頭品)	복두(幞頭) 표의 내의와 반비 고 버선 신 포	라, 시, 견, 포 포만 사용 소문릉, 시, 견, 포 면세(綿細), 포 면세 피, 마 15승이하	신	검은사슴의 주름진 무늬와 자 색가죽

계 급	허용된복식의 직물		금지된 복식의 직물	
오두품녀(五頭品女)	표의(表衣) 내의(內衣) 목수건 신 포	무문독직(無紋獨織) 소문능 능, 견 피(皮)이하 20승이하	반비 고 배, 당 단의 표 옷고름 내 대 버선목 버선 색	계, 수, 금 야초라, 세라 계, 수, 금, 라 세라, 야초라, 금니 계, 수, 금, 야초라, 포방라, 금 은니, 협힐 계, 수, 금, 야초라, 포방아, 세 라, 금은니, 협힐 계, 수, 금, 야초라, 세라, 금은 니, 협힐 계, 수, 금, 라 계, 수, 금, 야초라, 금은니, 협 힐 금은니, 공작모, 비취모 계, 수, 금, 라, 세라 계, 수, 금, 라, 세라, 야초라 자황, 자, 자분황설홍(紫粉黃 屑紅) 비색
사두품(四頭品)	복두 표고(表袴) 내의, 반비 신 포	사, 시, 견, 포 포만사용 시, 견, 면주(綿紬), 포 우피(牛皮), 마(麻)이하 13승이하	화(靴)	검은사슴 주름짐 자피(紫皮)
사두품녀(四頭品女)	표의(表衣) 내의(內衣) 반비, 고 목수건 단의 배당(褙襠) 표 옷끈 옷고름 대(帶) 버선목 버선 신 포	면주이하 소문능 소문능, 능, 시 견이하 견이하 능이하 시, 견이하 치마와 같음 월라(越羅) 면세(綿細)이하 소문능이하 소문능, 시, 금세, 포 피(皮)이하 18승이다	대(帶) 색(色)	수, 야초라, 승천라(乘天羅), 월라 자황(赭黃), 자, 자분황설비(紫 粉黃屑緋) 홍멸자(紅滅紫)
평인녀(平人女)	표의 내의 고 표 옷고름 띠 버선목 버선 포	금주(今週), 포 시, 견, 면주, 포 시이하 견이하 능이하 능, 견이하 무늬없는 것 시, 면주 15승이하	색	사두품녀(四頭品女) 동(同)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성덕왕(聖德王) 22년(723), 「책부원구(冊府元龜)」에 경덕왕(景德王) 7년(748), 혜공왕(惠恭王) 9년(773) 조하주(朝霞紬)를 당(唐)에 보낸 것이 나타나 있다. 또한 경문왕(景文王) 9년(869)에 대화어아금(大花魚牙錦) 10필(匹), 소화어아금(小花魚牙錦) 10필(匹), 조하금(朝霞錦) 20필(匹), 40승백침필(升帛鬣布) 40(匹), 30승저삼단(升紵衫段) 40필(匹), 비힐피(緋纈皮) 100장(張) 등을 당에 보낸 기록이 있다. 이것은 모두 토산(土産)이라고 본다. 그리고 직관(職官)에 염곡전(染谷典), 능색전(陵色典), 조하방(朝霞房), 염궁(染宮), 소전(疏典), 홍전(紅典), 소방전(蘇房典), 찬염전(撰染典), 금전(錦典) 모전(毛典), 피전(皮典), 피하전(被打典), 마이전(麻履典), 마전(麻典), 기전(綺典), 석전(席典), 침방(針房) 등이 있어 각종염색(各種染色), 각종직물(各種織物), 피물(皮物) 등을 제조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 김유신전(金庾信傳)에는 경순왕(敬順王) 2년(928)에 수천리(數千里)가 농상(農桑)을 즐겨 업으로 하여, 7, 8년간(年間)이나 사졸(士卒)들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였다. 널리 잠상(蠶桑)이 이루어져 있었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2) 신라(新羅)와 통일신라(統一新羅)의 직물(織物)과 제직기술(製織技術)의 전파(傳播)

(1) 일본(日本)으로 전파(傳播)된 직물(織物)과 제직기술(製織技術)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중애천황조(仲哀天皇條)에 ‘金, 銀, 彩色, 多彩其國’이라고 있으며 계체천황조(繼體天皇條)에도 ‘初以 海表金銀之國 高麗, 百濟, 新羅, 任那 等 ...’ 이라고 하였다. 일본인(日本人)들에게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등은 금은보화와 채색(彩色)이 무궁한 별천지로 인식되었던 기록이다. 같은책 중애천황조(仲哀天皇條)에 ‘고식신라국(袴食新羅國)’이라고 있다. 고금(袴衾)은 일본(日本)에서 다구부스마(たくぶすま)라고 한다. 강촌길우위문(岡村吉右爲門)씨는 고(袴)(クタ)는 한국(韓國)경유의 명사(名詞)일 것이나 남방중국(南方中國)의 탐(tap)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상과식물(桑科植物)의 인피섬유(靱皮纖維)로 된 닥일 것이다. 동조(同條)에 금(金), 은(銀), 채색(彩色), 능(綾), 라(羅), 겐(縑), 견(絹) 등을 신라왕이 보냈다고 하였다.

라(羅)는 일본(日本)에서 비조시대(飛鳥時代)부터 백봉시대(白鳳時代)까지는 신라에서 조달되었다고 한다.⁴¹⁾ 곧 기원(紀元) 4세기부터 8세기까지 일본(日本)에서 사용된 라가 신라의 라였다는 것이다.

추고천황(推古天皇) 29년(621)에는 신라, 임나에서 관정법일구(觀頂幡一具), 소번(小幡) 12조(條)를 가져갔으면 광정번(觀頂幡)이 사천왕사(四天王寺)에 납입(納入)되었다고 한다. 천무천황(天武天皇) 8년(680)에는 금(金), 은(銀), 철(鐵), 정(鼎), 금(錦), 견(絹), 포(布), 피(皮), 마(麻), 구(狗), 라(羅), 낙타가 신라에서 갔으면 금(金), 은(銀), 도(刀), 기류(旗類)가 천황(天皇), 황후(皇后)에게 별도로 간 것이 나타나 있다. 천무천황하(天武天皇下) 주작(朱雀) 원연조(元年條)에는 세마(細馬) 1필(匹), 라(羅) 1두(頭), 견(犬) 2구(狗), 두금기(鍔金器), 금(金), 은(銀), 하금(霞錦) 능라(綾羅), 호표피(虎豹皮), 약물류외(藥物類外) 백여종(百餘種)이 갖고 역지상(亦智祥)과 건훈(建勳)에게 별도로 금(金), 은(銀), 하금(霞錦), 능라(綾羅), 금기(金器), 병풍(屏風), 안피(鞍皮), 견포(絹布), 약물류(藥物類)가 16종(種)이 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신라(新羅)에서 일본(日本)으로 간 직물류(織物類)는 채색(彩色), 능(陵), 라(羅), 겐(縑), 견(絹), 번(幡)(관정번(觀頂幡), 소번(小幡)), 금(錦), 포(布), 세포(細布), 하금(霞錦), 병풍(屏風), 기(旗) 등이다. 번(幡)은 불전(佛殿)의 기둥과 벽에 거는 기(旗)로서 금(錦)과 기타 고급직물

41) 青木保外 「増補服裝大百科事典」, 下卷 p.486. 文化出版局, 1990.

(高級織物)로서 제작된 것이다. 병풍에도 여러 가지 염직품(染織品)으로 된 것이 있다. 고대(古代)의 삼힐(三纈) □힐(□纈), 협힐(纈纈), □힐(□纈)로 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들 모든 유품(遺品)은 오늘날까지 여러 수장고(收藏庫)와 박물관, 사찰 등에 보존(保存)되어 있다.

도변소단(度邊素丹)씨는 일본고대(日本古代)의 능(綾), 라(羅), 견(絹)은 신라의 것이라고 하고 신공섭정(神功攝政) 5년(205) 신라에서 적(績)을 짜는 공인(工人)을 대화(大和)에 이주(移住)시키고 그 자손이 능인(綾人)(あやびと)이라고 하였다.⁴²⁾

그 외에 정창원(正倉院)에는 잔흠부전(殘欠付箋)에 행권한사가화전일염물득추우(行卷韓舍價花氈一念物得追亏)라고 한 화문(花紋)의 모전(毛氈)이 있다고 하며, 북창(北創)의 자색장방형모전(紫色長方形毛氈)에도 ‘紫草郎宅紫稱毛一念物級綿乃得進亏今綿一五斤 長七尺廣三尺四寸’이라고 묵서(墨書)된 것이 있다고 한다.⁴³⁾

마포전(麻布箋)은 상품(商品)에 부착된 부찰(付札)이며 행권한금(行卷韓金)은 신라 인명(人名)과 제조한 곳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데, 신라(新羅)에는 모전(毛氈)을 제조, 판매, 교역(交易)하는 관청(官廳)인 관영공방 또는 택(宅)이라고 하는 부유한 귀족, 호족의 공방이 있었다고 한다. 신라의 전(氈)은 당(唐)나라에도 알려진 특산물(特産品)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신라(新羅)의 직물문화(織物文化)가 일본(日本)의 직물문화(織物文化)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

(2)중국(中國)과 거란(契丹)에 전파(傳播)된 신라(新羅)의 직물(織物)

신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중국쪽과 통교하는 시기가 백제, 고구려보다 늦었다. 양(梁)의 무제(武帝) 보통(普通) 2년(521)에 이르러서 신라는 양(梁)과 통교가 되어 「양서(梁書)」 신라전(新羅傳)에 전하여져 있다. 「구당서(舊唐書)」 신라전(新羅傳)에는 고종(高宗) 영휘(永徽) 원년(元年)(650)에 진덕왕(眞德王)이 오언태평송(五言太平頌)을 직문(織紋)한 직금(織錦)을 당에 보낸 기록이 있다. 「책부원구(冊府元龜)」에는 영휘(永徽) 4년(653)에 김총포(金總布)가 간 기록이 있다. 또한 「당회요(唐會要)」에는 영휘(永徽) 원년(元年)에 오언태평송(五言太平頌)의 직금(織錦)과 함께 능채(綾彩) 이백단(二百段)이 간 사실도 있다.

이후 신라통일이 이루어진 후로는 해상(海上)으로 진출되어 북조(北朝), 남조(南朝), 요동(遼東), 일본(日本)과도 통교(通交)되었고 그리하여 요하유역(遼河流域)부터 강남(江南), 대륙연안(大陸沿岸), 요항각지(要港各地)에 신라인의 거류지를 두어 육로(陸路)로 만주(滿洲)까지 교역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책부원구(冊府元龜)」에는 외신부(外臣部)에 현종(玄宗) 개원(開元) 11년(723) 조하주(朝霞紬), 어아주(魚牙紬), 해표피(海豹皮)를 신라에서 당에 보냈다고 하였다. 「당회요(唐會要)」에는 현종(玄宗) 천보(天寶) 7년 (748)에 육십총포(六十總布), 어아주(魚牙紬), 조하주(朝霞紬)를 신라에서 당에 보냈다고 하였다. 대종(太宗) 대역(大曆) 8년 (773)에도 조하주, 어아주가 갔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경문왕조(景文王條)에도 경문왕 9년(869)에 대화어아금(大花魚牙錦) 20필(匹), 소화어아금(小花魚牙錦) 20필(匹), 조하금(朝霞錦) 20필(匹) 40승백첩포(升白氈布), 30승저삼단(升紵衫段)은 신라의 특산물로서 중국지역(中國地域)으로 간 것이다. 「책부원구(冊府元龜)」 외신부(外臣部)에는 개평(開平) 2년(908)에 거란에서 조하금(朝霞錦) 1필(匹)을 후량(後梁)에 보낸 기록이 있다. 운하금(雲霞錦)2필(匹)을 보낸 기록이 있다. 「태평

42) 註 37)과同, p.63.

43) 鈴木靖民,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p.424 吉川弘文館(日本, 東京). 1986.

어람(太坪御覽)」에는 ‘...雲霞之布 如今之 朝霞布也’라고 있어 운하(雲霞)와 조하(朝霞)는 같은 것임이 나타난다.

거란은 요서(遼西)로부터 요하유역(遼河流域)까지 활동하였으므로 발해만과 요하유역(遼河流域)까지 진출, 통교하였던 우리나라와 만나 중국지역에는 없는 조하금을 신라로부터 입수하여 중국에 보내는 공물품(貢物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신라에서 하금(霞錦)이 일본에 간 기록이 있다. 하금(霞錦)은 조하금(朝霞錦)과 같은 것으로 본다. 조하금(朝霞錦)은 신라(新羅)의 특산(特産)으로서 중국(中國), 일본(日本), 거란 지역(地域)에 알려진 것이다.

4. 삼국(三國) 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직물(織物)의 종류(種類)와 특성(特性)

1) 인피섬유직물(靱皮纖維織物)의 종류(種類)와 특성(特性)

삼국시대에 사용된 인피섬유직물은 대마직물과 저마직물이 대표적인데, 포(布), 마(麻), 세(總), 30승저삼단(升紵衫段) 등으로 명명(命名)되었다. 포(布)는 승수(升數)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마(麻)는 마포(麻布)(대마직물(大麻織物))이다. 헤는 15승마직물(升麻織物)을 용도에 따라 분류 명명한 것으로서, ‘포백명물(布帛名物)’⁴⁴⁾ ‘..總衰 是也 有鏤如十五升而成七升半者細麻...’라고 적혀 있으므로 알 수 있다, 30승저삼단(升紵衫段)이라고 하는 저직물명(紵織物名)이 있어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포(布)(인피섬유직물(靱皮纖維織物))가 마(麻), 저(紵)로 분류되어 명명된 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단독으로 포(布), 또는 승수(升數)가 붙은 포(布)로서 명명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포(布)가 마(麻), 저(紵)로 분류하지 않은 상태로 통칭(通稱)된 것이 있는지, 또는 다만 마포(麻布)만을 지칭(指稱)한 것인지는 석연하지가 않다. 다만 거의 마포(麻布)에 대한 명명(命名)으로 예상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30승저삼단(升紵衫段)에 대하여 오늘날까지 저섬유(紵纖維)로 된 직물(織物)이라고 보는 견해 이상은 언급된 바가 없다. 그런데 단(段)은 원칙적으로 주자문직물(朱子紋織物)의 직물명(織物名)이다. 세계적으로 단(段)이 사용된 것으로 예측되는 연대(年代)는 12-13세기이다.

30승저삼단(升紵衫段)은 9세기(869)의 것이다. ‘단필(段匹)’이라고 하여 문직물명(紋織物名) 일반(一般)으로 조선시대에 사용한 경우가 있어 삼단(衫段)은 삼(衫)의 소재(素材)로서의 직물(織物)일반(一般)으로 명명(命名)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문저포(紋紵布)가 특산품으로 제직되었던 일과 일찍이 「후한서(後漢書)」⁴⁵⁾에 애우이지역(哀宇夷地域)에서 난간세포(蘭干細布)라고 하는 저직물(紵織物)이 기원초(紀元初)에 제직되었던 사실들을 참고한다면 30승저삼단(升紵衫段)이 경사(經絲)를 포폭간(布幅間)에 2400올로 정경하여 문직(紋織)으로 제직, 삼(衫)의 소재직물(素材織物)로 사용되었던 저(紵)의 문직물(紋織物)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주변국가들의 문저직물(紋紵織物)의 제직, 또는 단(段)의 제직연대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더불어 관심을 갖고 재고(再考)하여야 할 직물명이다. 30승포(升布), 40승포(四十升布)는 신라의 특산직물(特産織物)인데, 「동국통감(東國通鑑)」에는 30종포(綜布), 40종포(綜布)로 되어 있다.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는 종리경야(綜理經也)라고 있다. 승(升)과 종(綜)이 모두 포폭간(布幅間)의 경사(經

44) 「布帛名物」 布帛篇 第一

45) 『後漢書』 卷一一六 西南夷傳, 哀宇夷條

絲)의 수(數)에 의한 포(布)의 정(精), 추(麤)를 나타내어 직물명에 부쳐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종(綜)은 종광(綜統)과 관계되는 용예(用例)가 있기도 하다.

필자(筆者)는 1985년에 국제복식학회(國制服飾學會)(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stume)에서 신라의 40승포(升布)를 들어 신라는 동(東)아시아 지역(地域)에서 가장 섬세(纖細)한 포(布)를 제직한 지역이라고 하는 요지의 논고를 발표한 바 있다.⁴⁶⁾ 곧 마포(麻布), 저포(紵布)는 일찍이 우리나라와 중국(中國)의 지역에서 제직되었으며, 그 식물(植物)과 제직기술(製織技術)이 우리나라로부터 일본(日本)에 전파되어 갔다.⁴⁷⁾ 그리하여 일본(日本)에서도 많이 재배, 제직되었다.

한국(韓國), 중국(中國), 일본(日本)에서는 포(布)의 정(精), 추(麤)를 나타내는 기준과 명명이 같았다. 중국(中國)의 「포백명물(布帛名物)」에 의하면 ‘布八十縷爲升’이라고 하였고, ‘布幅二尺二寸幅間容升數有多少不同最精者三十升最疏者三升以是爲吉凶精麤之等’이라고 하였다. 포폭(布幅)은 2척(尺)2촌(寸)이고 그 폭간(幅間)에 경사(經絲)가 80올이 정경(整經)되어 제직된 포(布)를 1승포(升布)라고 하는데, 30승포(升布)가 가장 정(精)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라에서 제직된 40승포(升布)는 중국(中國)의 가장 정한 30승포(升布)보다 더 정한 포(布)이고, 40승포(升布)를 통하여 신라에서 중국보다 더 섬세(纖細)한 포(布)를 제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포(布)의 용도에 있어서도 신라가 중국지역(中國地域)보다 의복(衣服)에 더 섬세한 포를 사용하였다. 「포백명물(布帛名物)」에도 또 ‘冕級爵弁之布三十升 吉服之布 十五升十五升以降皆在凶服之限’이라고 한 점으로 볼 때, 중국(中國)에서는 길복(吉服)에 15승포(升布)가 법제화(法制化)되어 있었던 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어 ‘冕三十升衣十五升首服尊故冠之升倍衣也...’라고 있다. 머리가 존중한 것이기 때문에 옷에 사용되는 승수의 배(倍)가 되는 포(布)를 관(冠)에 사용한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30승포(升布)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져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통일신라에서 진골녀(眞骨女)의 의복(衣服)으로서 28승(升)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복식금제(服飾禁制)의 제도(制度)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상의 포(布)가 의복자료로서 사용되었던 것이 나타나는 기록이다. 우리나라는 의복자료로서도 중국(中國)보다 더 섬세한 포(布)가 사용되었음을 엿보게 하는 기록이다.

포(布)의 정추(精麤)를 가름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은 포폭(布幅)의 넓이이다. 포폭(布幅)은 지역(地域)과 시대(時代)에 따라서 변동(變動)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포폭(布幅)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유물(遺物)로서 알 수 있는데 보통 36cm 전후이다.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도지준절(度支準折)」에 의하면 백중포일필(白綜布一匹)의 유격이 장사십척(長四尺) 광칠촌(廣七寸)으로 되어 있다. 50cm여(餘)의 척도(尺度)가 사용되었던 것이 나타난다. 그런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古者布幅闊二尺二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래시대와 조선시대 이전의 포폭(布幅)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중국(中國)의 「의례복식고관(儀禮服飾考辨)」에는 ‘...古布幅闊二尺二寸 當今一尺三寸一分...’이라고 하고, 주척(周尺)은 23공분(公分)(23cm)정도라고 하여 결국 「포백명물(布帛名物)」의 이척이촌(二尺二寸)은 50cm여(餘)를 뜻한다. 중국(中國)의 전국시대(戰國時代)에서 한(漢代)에 걸쳐 사용되었던 출토척(出土尺)에서도 이척장(二尺長)에서도 일척장(一尺長)

46) Gil Za Min, 「Ancient Korea Specially Fabric」 International Association Costume, 1985.

47) 岡村吉右衛門, 『日本元始織物の研究』, p.8, 文化出版局(日本, 東京), 1977.

이 23cm 전후(前後)였던 것이 나타나고 있다.⁴⁸⁾ 이 척(尺)을 기준으로 하여 이척이촌(二尺二寸)을 계산하면 대략 포폭(布幅)이 51cm 전후이며, 길이는 40척(尺)임으로 9.3m 전후가 된다.

그리하여 신라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포폭(布幅)은 이척이촌(二尺二寸) 중국지역(中國地域)과 같은 것으로 보고, 그 척(尺)이 주척(周尺)으로 보아 역시 포폭(布幅)이 50cm 전후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라의 40승포(升布)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36cm 정도의 포폭(布幅)에 대하여 환산하면 30승포(升布)가 되고, 신라, 통일신라의 30승포(升布)는 고려, 조선의 20승(升)정도의 포(布)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도 20승백저포(升白苧布),⁴⁹⁾20승마포(升麻布)⁵⁰⁾가 제작된 것이 나타나 있다. 이들 저포(紵布), 마포(麻布)는 이척이촌(二尺二寸)의 포폭(布幅)으로 환산하면 30승포(升布)가 되는 것이니 신라, 통일신라시대의 30승포(升布)가 계속하여 제작된 것임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섬세직포의 제작은 조선시대로도 이어진다.

오늘날에는 12승저포(升紵布), 12승마포(升麻布)가 제작되고 있는데 포폭(布幅)이 30cm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 12승포(升布)들은 신라, 통일신라시대의 20승포(升布)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우리 민족은 끈질지게 섬세직을 제작하고 있는 민족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민족이 섬세직을 이렇게 제작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마(麻), 저(紵) 식물(植物)의 품종(品種)이 우수하여 섬세하게 쪼개어 섬세한 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1916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주관으로 일본인(日本人) 실전문(室田武隣)씨가 조선산과 중국산 마포, 저포를 비교실험 조사한 결과⁵¹⁾에 의하면 많은 섬유학적(纖維學的) 특성(特性)에 있어서 조선산(朝鮮產)이 중국산(中國產)보다 우수한 것이 나타나 있다.

둘째, 우리 민족이 섬세직제작을 꾸준히 즐겨 이어온 것은 우리 민족의 미의식(美意識)의 중요한 요소(要素)가 섬세(纖細)한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땅에서 재배되는 마섬유의 품종이 우수하여 세분(細分)되는 것이 특성이 있어 섬세하게 쪼개고 또 쪼개었으며, 그 위에 섬세(纖細)한 것을 즐겨 섬세직(纖細織)을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섬세하게 쪼개고 짜는 기공(技工)이 여인(女人)들의 손에 익어 그 기공(技工)은 오늘날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마섬유(麻纖維)와 그와같은 여인(女人)의 기공(技工)으로 제작된 마포(麻布), 저포(紵布)로 여름 한복(韓服)을 지어입은 우리나라 男, 女의 복식미(服飾美)와 멋은 어떠한 다른 섬유직물(纖維織物)이 따를 수가 없다. 가히 마포(麻布)(베)와 저포(紵布)(모시)는 신라와 통일신라의 특산직물(特產織物)이며 오늘날에도 그와 같다. 그 중에서도 40승포(升布), 30승포(升布), 30승저삼단(升紵衫段)은 우리나라의 대단한 특산직물(特產織物)이다.

중국(中國)의 「의례복식고판(儀禮服飾考辨)」에는 ‘本謂麻三十升難成也 不必疑’라고 되어 있다. 중국인(中國人)들은 30승포(升布)는 짜기가 힘들고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각지역(各地域)마다의 토속적(土俗的) 특성(特性)이 나타나는 것이다. 직물(織物)의 토속적(土俗的) 특성(特性)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섬유와 토착민이 선호하는 미적(美的)특성(特性)과 실용성, 기공능력(技工能力) 등이 종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동(東)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품질(品質)이 우수한 마포(麻布)와 저포(紵布)를 제작할 수 있는 지역임을 잊지말아야 하겠다. 그리하여 마(麻), 저(紵)의 재배와 제작의 가치를 깨달아 그 올바른 전승(傳承)을 계승(繼承)하여서는 아니되겠다. 우리나라의 마포

48) 中國國家計量總局, 「中國古代度量衡圖集」, 文物出版社(北京) 1981.

49) 『高麗史』, 世家, 卷二十四, 高宗 40年條.

50) 『高麗史』, 世家, 卷三十, 忠烈王 19年條

51) 室田武隣外, 『朝鮮間麻布の品位と製織改良標準』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1930.

(麻布)와 저포(紵布)는 미래(未來)의 귀중한 세계적(世界的)인 특산직물(特産織物)이기도 하다.

2) 견섬유직물(絹纖維織物)의 종류와 특성

삼국시대의 견직물에는 견(絹), 시(紵), 겐(縑), 주(紬)(면주(綿紬), 어아주(魚牙紬), 조하주(朝霞紬)), 능(綾)(소문능(小紋綾)), 금(錦)(홍금(紅錦), 오색금(五色錦), 운포금(雲布錦), 청금(靑錦), 고려금(高麗錦), 고려백금(高麗白錦), 하금(霞錦), 조하금(朝霞錦), 소화어아금(小花魚牙錦), 대화어아금(大化魚牙錦), 호금(好錦), 비금(秘錦), 한금(韓錦), 비금(緋錦), 오언태평송직금(五言太平頌織錦), 라(羅)(백라(白羅), 자라(紫羅), 조라(烏羅), 월라(越羅), 야초라(野草羅), 포방나(布紡羅), 승천라(乘天羅)), 사(紗) 등이 있다. 선사시대(先史時代)보다 견직물(絹織物)의 종류(種類)가 다양(多樣)하게 나타나 있다.

(1) 견(絹)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견(絹)의 색견(色絹), 견포(絹布), 견세포(絹細布)등으로 있어 견직물(絹織物)의 총칭(總稱)으로 사용되었다.

중국(中國)에서는 전국시대말(戰國時代末)의 「관자(管子) 승마편(乘馬篇)에 견(絹)이 보이는데, 한 대(漢代)의 「설문(說文)」에서는 ‘縑如麥絹色’이라고 하여 맥경(麥經)의 색(色)과 같은 증(縑)으로써 색(色)에 의해 분류된 견직물(絹織物)의 일종(一種)으로 보았다. 「석명(釋名)」에서는 ‘□也 其絲□厚 而疏也’라고 하여 직목(織目)이 조(組)한 견직물(絹織物)의 일종(一種)으로 보았다. 당대(當代)의 「대당육전(大唐六典)」에서는 ‘一曰布 二曰絹 三曰紵 四曰紗 五曰綾 六曰羅 七曰綿 八曰綺 九曰간 十曰褐’이라고 하여 견(絹)은 견직물중(絹織物中)의 일종(一種)으로 분류(分類)된 것이 나타난다. 한대(漢代)의 「급취편(急就篇)」에도 나타나 있는데 안사고(顔師古)는 주(注)에서 ‘生白縑’ 곧 흰생견직물이라고 하였다. 「광운(廣韻)」에서는 ‘縑絹也, 縑絹也’라고 하여 겐(縑)과 같이 보기도 하였다.

일본(日本)의 「왜명류취초(倭名類聚抄)」에서는 ‘陸詞切韻云 絹縑帛也’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견(絹)에 대한 자서(字書), 유서(類書)의 해석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注)의 해석도 각기 다르다. 견(絹)은 지역(地域)과 시대(時代)에 따라 그 용예(用例)가 달랐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 와서 견섬유(絹纖維) 또는 그 직물(織物)의 총칭, 통명으로 된 것이다.

(2) 시(紵)

「삼국사기(三國史記)」의 흥덕왕(興德王) 복식하교(服飾下敎)(복식금제)에 의하면 시(紵)가 표의(表衣), 내의(內衣), 반비(半臂), 표상(表裳), 복두(幘頭), 관(冠), 요대(腰帶), 말(襪)의 자료로 실용화되어 사용되었던 것 같다.

「광운(廣韻)」에서는 ‘縑似布’라고 하였고, 「석증(釋縑)」에서 임대춘은 ‘說文□粗緒也徐鉉曰今俗別作紵非是’라고 한 바 있다. 또한 「옥편(玉篇)」에서 ‘經緯粗細不同□縑同’이라고 하여 경위사(經緯絲)의 굵고 가늘기가 다른 것을 시(紵)라고 하는데, 시(紵)와 같다고 하였다. 또 「광운(廣韻)」에서는 ‘縑似布蓋言其絲大而粗也’라고 하여 굵은 실로 제직된 견직물(絹織物)이라고 하였다. 「신당서(新唐書)」여복지(麗服志)에서는 ‘五品以上冕以羅爲之六品以下爵弁以絹爲之文官之巾則以紫黑紵’로 기록되어 있는데 시(紵)가 견직물중(絹織物中)에서 라(羅), 견(絹)의 차품(次品)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신당서(新唐書)」 권이사차복지

(卷二四車服志)에는 유외관(流外官), 서인(庶人), 부곡(部曲), 노비(奴婢)가 주(紬), 견(絹)시(紵), 포(布)를 사용할 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세(細), 견(絹)과는 다른 종류의 시(紵)라고 하는 견직물(絹織物)이 있었던 것이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중국지역에서의 시(紵)에 대한 해석은 견(絹)의 조직물(組織物)인 것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반드시 중국측의 해석은 삼국시대(三國時代)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시(紵)에 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명칭의 직물(織物)일지라도 지역(地域)과 시대(時代)에 따라, 또는 제직조건, 제직 기공능력(技工能力)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3)주(紬)

주(紬)는 「설문(說文)」에서는 ‘大絲絹也’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굵은 견사(絹絲)로 제직된 견직물명(絹織物名)으로 명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唐)의 안사고(顔師古)는 「급취편(急就篇)」의 주(紬)에 대하여 추견사(麤繭絲)로 제직한 것이라고 하였다. 「급취편(急就篇)」은 후한대(後漢代)의 저작(著作)이고 「설문(說文)」은 전한대(前漢代)의 저작(著作)임으로 한대(漢代)의 주(紬)는 섬세한 견직물이 아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三國時代)이후 종류가 다양화되어 통일신라시대에는 면주(綿紬), 조하주(朝霞紬), 어아주(魚牙紬)가 당(唐)나라에 보내는 공물품(貢物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의 문헌기록으로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성덕왕(聖德王)22년(723)의 기록과 중국측의 「당회요(唐會要)」, 「책부원구(冊府元龜)」에 나타나 있다.

어아주(魚牙紬)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경문왕(景文王) 9년(869) 당(唐)나라에 보낸 직물(織物)로 대화어아금(大花魚牙錦), 소화어아금(小花魚牙錦), 조하금(朝霞錦)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어아(魚牙)와 조하(朝霞)가 금(錦)에 형용사적(形容詞的)으로 사용되어 금(錦)의 제직양식(製織樣式)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어아(魚牙)에는 대화(大花), 소화(小花) 형용사적으로 사용되어 문양(紋樣)의 양식(樣式)을 나타내었던 것 같다.

조하(朝霞)도 「석명(釋名)」에 ‘女王國有 朝霞錦鍊水香麻爲之光耀芬馥五色相間’이라 기록한 「초사(楚辭)」의 ‘滄六氣 而飲沆瀣漱正陽 而含朝霞’를 주(註)하여 ‘陵陽子明經言 春食朝霞 朝霞者日始欲出赤黃氣也’라고 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조하(朝霞)는 아침해가 뜰 때의 적황기(赤黃氣)같은 색채적(色彩的)인 형용(形容)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三國時代)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주(紬)는 중국의(中國側) 「설문(說文)」 「급취편(急就篇)」에 나타나 있는 주(紬)와는 다른 직문(織紋) 또는 염문(染紋)의 주(紬)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주(紬)가 명주(明紬)로 명명되어 섬세직(纖細織)을 상품(上品)으로 제직(製織)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中國)의 「설문(說文)」 「급취편(急就篇)」의 주(紬)인 대사견(大絲絹), 추견사직(麤繭絲織)과는 다른 주(紬)가 제직되었던 것이 나타난다. 이것은 신라와 통일신라시대에는 마(麻)와 저(紵)의 섬세직(纖細織)을 즐겨 제직한 것과 같이 주(紬)도 섬세직(纖細織)으로 선호하여 제직한 것으로 본다.

오늘날까지 유품(遺品)으로 전하여진 평견직물중(平絹織物中)에 월정사팔각구층석탑(月精寺八角九層石塔)(국보(國寶) 第48號)을 보수할 때 발견된 황색(黃色)평견직물(平絹織物)이 있다. 이 유물(遺物)은 통일신라말(統一新羅末)에서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50cm여의 포폭(布幅)으로 기준한다면 40승(升)정도가 되는 섬세포이다. 이 평견직물(平絹織物)을 주(紬)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주(紬)의 섬세도(纖細度)를 알 수 있다.

(4) 능(綾)

「옥편(玉篇)」에서 능(綾)은 문증(文縵)이라고 하였다. 「한서(漢書)」 주(注)에서는 기(綺)를 세능(細綾)이라고 하여 능(綾)과 기(綺)의 유사점이 있고 어떤 특성(特性)에 의하여 능(綾)과 기(綺)가 구별되는 것이 나타난다.

「석명(釋名)」에서는 능(綾)은 능(凌)이고 그 문(紋)은 영릉(永陵)의 이(理)와 같다고 하였다. 즉 능(綾)은 문직물(紋織物)이라는 것이다. 곧 오늘날의 능(綾)은 능선(稜線)이 일정(一定)한 방향(方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고대(古代)에는 경능(經綾)또는 위능(緯綾)으로 문(紋)과 지(地)를 달리 제직하였던 것이다.

월정사팔각구층석탑중(月精寺八角九層石塔中)에서 능형문능(菱形紋綾)의 보자기가 발견되었다. 통일신라말 또는 고려시대초로 보는 것임으로, 삼국시대(三國時代)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능(綾)을 짐작할 수 있는 유품(遺品)이다. 소문능(小紋綾)과 같은 직물명(織物名)이 있어 능(綾)에 문양직물(紋樣織物)이 있었던 증거가 나타났다.

(5) 라(羅)와 사(紗)

「설문(說文)」에서는 라(羅)를 ‘以絲賈鳥也...’, 즉 새그물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석명(釋名)」에서는 ‘文疏羅也’라고 하여 경위사밀도(經緯絲密度)가 소(疎)하다고 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라(羅)에는 세라(總羅), 월라(越羅), 야초라(野草羅), 포방라(布紡羅), 승천라(乘天羅)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세라(總羅), 월라(越羅), 야초라(野草羅), 포방라(布紡羅)는 식물성섬유사(植物性纖維絲)로 된 라(羅)인 것으로 본다. 월라(越羅)는 애매한 것이나 「후한서(後漢書)」 육속전(陸績傳)에 ‘越布’가 나오는데 월지역(越地域)의 포(布)라는 뜻이고, 『집운(集韻)』춘추전(春秋傳)의 ‘大路越席’는 월초(月初)라고 하는 식물로 만든 석(席)이라는 뜻이다. 그리하여 월라(越羅)는 식물성라(植物性羅)라 일수도 있고, 월지역(越地域)과 관계되는 라(羅)일수도 있어 그 연원에 대한 계속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물명고(物名攷)」 권삼(卷三) 무정류(無情類) 초조(草條)에 ‘越焦紵織布曰越’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초정직라(焦紵織羅)’로 볼 수도 있겠다. 초저(焦紵)는 파초(巴草)를 말하는 것이다.

라(羅)는 고려시대(高麗時代)의 특산(特産)으로 많이 제직되었는데, 불복장(佛腹藏)의 유품(遺品)으로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전하여지고 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기원전(紀元前)4세기경(紀元前) 중애천황(仲哀天皇) 때 이미 라(羅)가 신라에서 일본(日本)으로 전파되었으며, 비조(飛鳥)에서 백봉시대(白鳳時代)까지 일본에서 사용된 라(羅)는 모두 신라에서 공급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신라의 라(羅)의 실상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경산군(慶山郡) 임당고분(林堂古墳)에서 출토(出土)된 능문라편(菱紋羅片)과 낙랑지역(樂浪地域)에서 출토(出土)된 라(羅)의 양식(樣式)이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불복장물(佛腹藏物) 중(中)의 라(羅)와 같은 점에서 신라에서 사용된 라(羅)도 이와 같은 동류(同類)이고, 또 이들 직물은 현지(現地)에서 제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 파사국왕(波斯國王) 23년(102)에 오늘날 경산(慶山) 근처 압독국(押督國)의 왕이 신라에 항복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압독국지역(押督國地域)에 해당되는 임당고분(林堂古墳)의 능문라편(菱紋羅片)은 기원초(紀元初) 우리나라 지역(地域)에서 라(羅)가 실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사(紗)는 극소(極小)하게 문헌(文獻)에 나타나 있는데 복두의 용도임으로 평직(平織)의 칠사정도일 수도 있다.

「신당서(新唐書)」에는 춘라(春羅), 조자라(瓜子羅), 공작라(孔雀羅), 삼라(森羅), 단나(緞羅), 보화라(寶花羅), 화문라(花紋羅), 단사라(單絲羅)등과 운라(雲羅), 봉라(鳳羅), 선익라(蟬翼羅), 병라(並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라(羅)의 명명(命名)과 동일(同一)한 것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라를 제직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복식하교(服飾下敎)(복식금제)에 거론된 라(羅)는 토속적(土俗的)으로 제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식물섬유(植物纖維)의 라(羅)가 많이 제직된 것이 특징이다.

(6)금(錦)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제직된 금(錦)에는 고구려(高句麗)의 오색금(五色錦), 운포금(雲布錦), 고려백금(高麗白錦), 고려금(高麗錦) 등이 있다. 백제(百濟)의 금(錦)으로는 한금(韓錦)이 있다. 통일신라(統一新羅)의 금(錦)으로 조하금(朝霞錦), 소화어아금(小花魚牙錦), 대화어아금(大花魚牙錦), 하금(霞錦)이 있다. 이들 금(錦)들은 직물명(織物名)으로 문헌(文獻)에 나타나 있을 뿐 그 금(錦)이 어떠한 양식(樣式)으로 제직된 것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리하여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직물(織物)과 제직기술(製織技術)이 우리나라로부터 전파되어간 일본(日本)의 문헌기록(文獻記錄)과 유품(遺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錦)에 대한 제직양식(製織樣式)을 조사하여 왔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웅략천황(雄略天皇) 8년(464) 백제(百濟)에서 화부인사라아(畫部因斯羅我)와 금부안정나금(錦部安定羅錦)이 도일(渡日)된 기록이 있다.⁵²⁾ 이들은 일본(日本)에서 처음으로 하내도원(河內桃源)에서 한양(韓樣)(からよう)의 금(錦)을 제직하기 시작하여 금부연(錦部連)의 조상(祖上)이 되었는데 하내금(河內錦)은 이 지역에서 제직된 것이다. 정안나(定安那)는 제직(製織)한 금(錦)을 일본(日本)에서 한금(韓錦)(からいしき)라고 한다.

좌좌목신삼랑(左左木信三郎)⁵³⁾씨는 천화만추(天華滿墜)의 화조문금(花鳥文錦)<그림8>을 한금(韓錦)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조직(組織)은 사중경(四重經)의 복양삼매능조직(複樣三枚綾組織)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금(韓錦)은 직물(織物)의 식서(飾緒)가 없어 경위(經緯)가 구별되지 않아 위(緯)의 복양능(複樣綾)의 것도 역시 같이 한금(韓錦)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다. 백제인(百濟人)이 제직한 금(錦)의 실상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8> 화조문금(花鳥文錦)

52) 渡邊素円, 『日本服飾美術史』, 雄山閣(日本, 東京) p.125, 1973.

53) 左左木信三郎, 「新修 神護寺經帙錦綾和見」 p.36, 1958.

도변소엔(渡邊素円)은 신라(新羅)에서 담간조(曇□條)(うんげん)의 하금(霞錦)을 수입하여 이것도 제작하였다고 하였다. 하금(霞錦)은 「일본서기(日本書紀)」의 천무천황하(天武天皇下) 십년조(十年條)에 의하면 신라에서 천황(天皇), 황후(皇后), 태자(太子)에게 보낸 것이다. 하금(霞錦)은 통일신라에서 당(唐)에 보낸 조하금(朝霞錦)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담간조(曇□條)는 짙은색으로부터 옅은색으로 점차로 옮겨가며 희미하게 색이 번져간듯하게 된 색조(色調)이다. 흔히 이кат(IKAT)직물(織物)에서 볼 수 있는 색태(色態)이다.

일본(日本)에서 ‘太子問道’로 명명(命名)된 성덕태자(聖德太子)가 승만경강찬(勝鬘經講贊)때의 어욕(御褥)라고 믿고 있는 경(經)이kat 직물(織物)이 있는데 이것을 일본(日本)에서는 가스리니시기(병금(緋錦))이라고 한다. 적지(赤地)에 적청(赤靑), 백(白), 녹색(綠色)이 산형(山形)으로 표현(表現)된 경(經)이kat의 염직물(染織物)이다. 도변(渡邊)씨는 하금(霞錦)은 광동금(廣東錦)(문도(問道))인 것 같고 담간조(曇□條)라고 하였다. 조하금(朝霞錦), 하금(霞錦)이 문도(問道)로 명명(命名)되는 염직물(染織物)과 연관을 지어보는 견해같다.

통일신라(統一新羅)의 직관중(職官中)에 금진(錦典)과 별도(別途)로 조하금(朝霞錦)이 있어 조하금(朝霞錦), 조하주(朝霞紬)가 이곳에서 제작된 보통 금(錦)과는 제조양식이 다른 금(錦)인 것이다.

조하금(朝霞錦), 하금(霞錦)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일본측(日本側)의 각종광동금류(各種廣東錦類)(문도류(問道類))와 일본측(日本側) 연구(研究)에 중요한 연구자료(研究資料)가 될 것으로 본다. 예컨대 태전영장(太田英藏)의 비금(秘錦)과 태자문도(太子問道)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研究)⁵⁴⁾는 조하금(朝霞錦), 하금(霞錦)연구에 보탬을 준다. 또 일본(日本)의 도변소엔(渡邊素円)은 일본(日本)의 직사부(織司部)에서는 백지(白地) 고려금(高麗錦)을 제작(製織)하였다고 보았다.⁵⁵⁾ 「왜명초(倭名抄)」에 담간금(曇□錦), 고려금(高麗錦)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일본(日本) 정창원(正倉院)에 ‘山水八卦背入面鏡’의 뚜껑에 바른 백지(白地)의 당화문금(唐花紋錦)이 고려(高麗)에서 박재(舶載)된 것이라고 하였다.⁵⁶⁾

이상 여러 가지 조사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금(錦)은 경금(經錦), 위금(緯錦), 염문금(染紋錦)(IKAT류(類))이었던 것이 나타났다.

(7)기(綺)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잡지(雜誌) 직관(職官)에는 기전(綺典)이 있다. 기(綺)가 제작된 직관으로 본다. 그런데 기전(綺典)은景德왕(景德王)때 별금방(別錦房)으로 고쳤었다고 한다. 이 기록을 통하여 기전(綺典)에서는 별금(別錦)으로 불리는 금(錦)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별금(別錦)이란 금(錦)의 한 종류가 아니고 금과 유사한 문직물(紋織物)이로 본다.

기(綺)는 우리나라, 중국(中國), 일본(日本)에서 견문직물(絹紋織物)의 일종(一種)으로서 같은 이름으로 명명되어 문헌에 나타나있다. 「藏방切韻(장방절운)」에서는 ‘綺似錦而簿者也’라고 하였고, 「일절경음의(一切經音義)」에서는 ‘織成文華 次於錦 厚於綾’이라고 하였으며, 「육서고(六書故)」에서는 ‘織絲爲文曰錦 織素爲文曰綺’라고 하였다. 또한 「석명(釋名)」은 ‘綺敬也 其文綺邪不順經緯之縱橫也有杯文文形似杯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러 문헌을 종합하여 보면 기(綺)는 금(錦)보다는 얇고 능(綾)보다는 두꺼운 문직물(紋織物)인 것으로 나타난다. 문(文)은 소(素)하게 제작한 것은 기(綺)라고도 하였다.

54) 太田英藏, 「太田英藏染織史著作集」, 下卷, 文化出版社(日本, 東京), PP.259-272,1986.

55) 註 52)와 同, P.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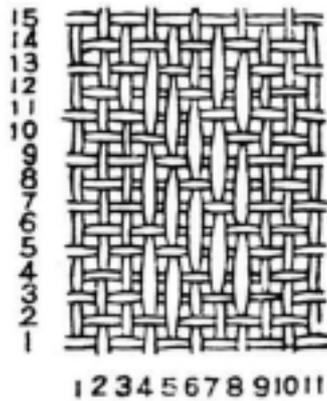
56) 註 52). P.125

그러나 「일절경음의(一切經音義)에서는 ‘案用二色絲’로, 「태평어람(太坪御覽)」에서는 ‘七彩綺, 七彩杯文綺’등 기(綺)의 종류가 나타나 있어 소색(素色)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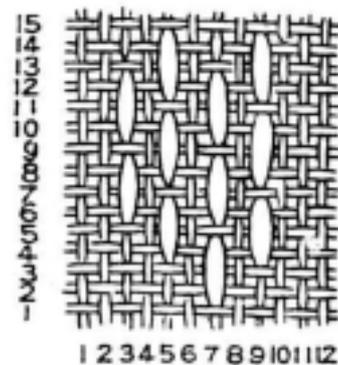
중국(中國)에서는 하정(夏鼎)은 은허(殷墟)에서 발견된 월(鉞)과 치(觶)에 부착된 평직(平織)과 능직(綾織)의 혼합조직으로 된 변화능직(變化綾織)인 능문견(菱紋絹)의 흔적을 조사하여 기(綺)로 발표하였다.⁵⁷⁾ <그림 9>. 이 직물(織物)은 비비시루완(Sylwan, V)⁵⁸⁾에 의해 조사된 바 있는데, 능(綾)(Twill)으로 발표되었다. 같은 유품(遺品)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명명(命名)을 달리하고 있다.

하정(夏鼎)은 이러한 직물(織物) 유사사문조직(Warp Twill)이라고 부르며 있다. 한 대(漢代)의 출토(出土)견문직물중(絹紋織物中)에서도 <그림 10>과 같은 조직(組織)의 직물(織物)을 기(綺)라고 한 예가 있으며, 이 조직을 기(綺)의 ‘한대조직(漢代組織)’이라고 하였다.⁵⁹⁾

그러나 일본(日本)의 서촌병부(西村兵部)씨는 하정(夏鼎)이 기(綺)라고 한 평조직지(平組織地)에 변화능문(變化綾文)(능문(菱紋))인 것을 평지면(平地變)리능문능(綾文綾), 평조직지(平組織地)에 부문(浮紋)인 것을 평지부문릉(平地浮紋綾)이라고 하여 능(綾)의 한 종류로서 분류 하였다.⁶⁰⁾



<그림9> 은허(殷墟)의 기(綺) (고고(考古) 1972-2)



<그림10> 한 대(漢代)의 기(綺) (고고(考古) 1972-2)

57) 夏鼎, 「新疆新 發現的古代絲織品一綺, 錦和刺繡, 中國科學院古古研究所」, p.49

58) Sylwan, V, silk from the Yin Dynasty,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9, pp.119-126, 1937, Stockholm.

59) 註 57)과 同

60) 西村兵部, 「紋織の系譜」日本染織藝術叢書 所收, 藝草堂(日本, 東京), p2, 1975

기(綺)에 대하여는 고문헌상(古文獻上)으로나 유품상(遺品上)으로나 그 명명(命名)에 있어 견해가 분분하다.

「옥편(玉篇)」의 ‘綾文縵也’와 「한서(漢書)」 주의 ‘綺細綾也’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綺)는 항상 능(綾)과 혼돈된다. 그리고 또 금(錦)은 능조직(綾組織)으로 된 것이 있어 금(錦)과도 혼돈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가(價)가 문헌상(文獻上)으로 많이 나타나 있지 않다. 통일신라의 직관중(職官中) 기전(綺典)에서 별금(別錦)이라는 기(綺)를 제직하였던 것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 잡지(雜誌)에 의하여 알려졌으나, 실제로 그에 해당되는 직물(織物)이 조사되지 못하였다.

좌좌목신삼랑(左左木信三郎)씨는 일본(日本)에서 기(綺)라고 하는 고유(固有)의 금(錦)이 있었다고 하였다. 운간금을 담은 폭(幅)이 좁고 얇은 배(杯)라고 하는 설(設)이 그것이다. 그리고 백제(百濟)의 직공(織工) 정안나(定安那)가 전파한 한국(韓國)의 금(錦)은 일본고류(日本固有)의 기(綺)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우수하다고 본 견해도 있어 일본(日本)에서는 기(綺)는 소박하고 얇은 문직(紋織)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동경국립박물관(日本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된 ‘법용사헌납보물(法隆寺獻納寶物)’⁶¹⁾에서 백지(白紙)와 적지(赤地) 이종류(二種類)의 광동금욕(廣東錦褥)로 불리우는 것을 일본(日本)에서는 기류(綺類)로 보고 있는 기(綺)는 관점에 따라 금(錦)으로도 명명되는 문직물(紋織物)인 듯하다. 이것은 평지부문금(平地浮紋錦)으로 불리는 것이며, 위금(緯錦)과 같이 모경(母經), 음경(陰經) 등 두 종류의 경사가 갖추어져 있지않고 한 종류의 경사로만 소박하게 제직되어 이것을 기(綺)로 보는 경향이다.⁶²⁾

이상과 같은 중국과 일본의 기(綺)의 대한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공통점을 ‘평지부문(平地浮紋)’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기(綺)로 볼 수 있는 유품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기전(綺典)까지 있어 기(綺)를 따로 제직한 통일신라의 기(綺)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다. 그런데 필자가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안동김씨분묘(安東金氏墳墓)에서 출토(出土)된 직물(織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지부문(平地浮紋)인 중국(中國)의 하정(夏鼎)이 한식조직기(漢式組織綺)로 발표한 것과 같은 얇은 문직물(紋織物)을 발견하였다. 이와같은 문직물(紋織物)을 한복(韓服)의 옷감으로서 아주 적당하며 수십년 전까지도 흔히 사용되어온 직물이다.

안동김씨 분묘 출토의 이 문직물이 조선시대에 제직한 것인지, 또는 중국산(中國産)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복감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물리적(物理的) 특성(特性)을 갖춘 문직물(紋織物)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통일신라의 별금(別錦)이 이러한 종류의 문직물(紋織物)이었을 가능성은 크다. 이 문직물(紋織物)이 대하여는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직물(織物)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또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302년대(年代)의 아미타불복장중(中)의 자의(恣衣)의 직물(織物)도 기(綺)로 볼 수 있는 문직물이다. 이 직물은 고려시대의 직물에서 기술하겠다.

3)모섬유제품(毛纖維製品)의 종류(種類)와 특성(特性)

61) 青木英夫, 『増補版 服装大百科』, 文化出版局(日本 東京) p.203,1990.

62) 吳淑生外, 『中國染織史』, p.116, 南天書局(台北), (中華民國 76年). 1987.

삼국시대의 모제품(毛製品)으로서는 탐등(毳毼)과 구유(毼氈), 전(氈) 등이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계(鬪)가 있었다. 탐등과 구유는 같은 것이다. 탐등(毳毼)은 파사어(波斯語), 구유는 아랍어(阿拉伯語)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서역(西域)에서 많이 제직된 까닭으로 본다. 중국(中國) 삼국시대(三國時代)의 『남주이물지(南州異物志)』에 의하면 ‘毼氈以羊毛雜群獸之毳爲之 鳥獸人物雲氣 作鸚鵡遠望軒軒若飛也’등과 같은 기록이 있어 양모(羊毛)또는 수모(獸毛)로 직문(織紋)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략(魏略)」에는 오색탐등(五色毼氈), 오색구색수하탐등(五色九色首下毼氈) 등으로 다채(多彩)하게 된 것도 알 수 있다.

신라의 구유(毼氈)는 오색구유(五色毼氈)라고 함으로 오채(五彩)의 색사(色絲)로 된 것이 나타나나 문양(紋樣)은 알 수가 없다. 백제(百濟)에서 일본(日本)에 보낸 탐등(毳毼)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런데 「북당서초(北堂書鈔)」, 卷 134 인(引) 「위략(魏略)」에 의하면 ‘爲鳥獸草木雲氣 千九萬變 唯意所作 上有櫻朮 遠望軒軒如飛 可見毼氈上的圖案花紋生動逼真 精妙傳神 並具有西域民族 活潑歡快的風格’이라고 하였다.⁶³⁾ 조수초목운기(鳥獸草木雲氣) 등을 직문(織紋)한 정요(精)한 것이었음이 나타난다.

백제(百濟) 탐등(毳毼)의 제직양식(製織樣式)의 기본(基本)도 이와 같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문양(紋樣)등의 양식(樣式)은 달랐을 것이나 그 내용을 상고(相考)할 수가 없다.

계(鬪)는 정세(精細)한 모직물(毛織物)이다. 중국(中國)의 신강(新疆)에서는 반계(班鬪)의 유품(遺品)이 출토(出土)되었는데 평직(平織), 능직(綾織)으로 제직되었고 인수포도문(人獸葡萄紋), 구갑사반문(龜甲四班紋) 등 문양(紋樣)으로 위사(緯絲)로 직문(織紋)되었다고 한다. 계(鬪)는 정세하고 화려한 모직물이며 통일신라에서 귀한 의료(衣料)였기 때문에 복식금제의 금지품목으로 거론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 통일신라시대에 모섬유로 된 각종 제품이 특산으로 제조되었던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섬유제품이 긴 역사성이 나타나는 귀중한 근거이다. 이와같은 모섬유제품의 제조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이어져 문헌(文獻)과 유품(遺品)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한다.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서역(西域)의 대완(大宛)(Fergahana)에서 탐등을 중국(中國)에 바친 일과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는 파사국(波斯國)(페르시아)에서 구유를 잘 제직한다는 기록이 있다. 탐등과 구유는 서역의 물산(物産)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인데, 일찍이 백제와 신라의 산물이었다 함은 흥미있는 일이다.

4) 면섬유직물(綿纖維織物)의 종류(種類)와 특성(特性)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면종자가 전래된 때는 고려시대 공민왕 12년(1363)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 「태조실록(太祖實錄)」 졸거기사(卒去記事)에 의하면 ‘면종자는 원나라에서 종자를 가져온 문익점선생의 장인인 정천익이 심었는데 재배법을 몰라 모두 말라주고 일경(一莖)만이 살아남아 3년이 되어 번식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마침 정천익의 집에 유숙하고 있던 호승(胡僧) 홍원(弘願)에게 목화씨를 빼는 취자차(取子車)(씨아)와 실을 뽑는 소사차(纜絲車)(물레)를 만드는 법 등을 배워 가비(家婢)에게 1필(匹)을 짜게 하였는데, 10년도 못되어 이 기술은 전국(全國)에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63) 註 62)와 同

같은 기록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면(綿)(cotton)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고려 공민왕 12년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하여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에는 우리나라에 면직물을 없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삼국지(三國志)」의 면포(綿布)를 이선근(李宣根)씨가 면직물(綿織物)로 본 데 대한 이재호(李載浩)씨의 반론이 있었던 일이 있다.⁶⁴⁾

그러나 「한원(翰苑)」의 백첩포(白疊布),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백첩포(白疊布)가 면직물(綿織物)인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⁶⁵⁾~⁶⁶⁾ 곧 백첩포(白疊布), 백첩포(白疊布)에 대하여 「양서(梁書)」 서역전(西域傳) 고창조(高昌條)에서는 ‘多草木實如繭 繭中絲如細縑名爲白疊子國人取織以爲布’라고 하여 초면(草綿)의 목화로 직물을 만들었음을 알게 한다. 「구당서(舊唐書)」에는 ‘有古具草 緝其花作布 粗者古具 細者名白疊’이라고 있다. 고구초(古具草)는 초면(草綿)임으로 백첩(白疊)은 세면직물명(細綿織物名)인 것이다.

「북위서(北魏書)」에서는 서역강국(西域康國)의 국왕(國王)이 백첩을 의복재료(衣服材料)로 사용하였고 「수서(隨書)」에도 진랍국(眞臘國)의 왕(王)의 상복(裳服)으로 백첩을 입는다고 하였다 진랍국(眞臘國)은 동남아시아의 일지(一地)이다.

「당서(唐書)」에는 인도에서 불도(佛徒)들이 백첩을 입는다고 한다.

「신수대장경(新修大藏經)」에는 중생들이 세백첩의(細白疊衣)를 연등불(練燈佛)에게 공양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신당서(新唐書)」에도 남만(南蠻)의 왕(王)의 의복(衣服)이 백첩(白疊)인 것을 기록하고 있다. 백첩(白疊)과 백첩(白疊)은 인도, 서역지역, 동남아시아지역에 기원초(紀元初)에서 고급면직물(高級綿織物)로서 귀(貴)한 의료(衣料)로 사용된 직물명(織物名)이다.

그런데 백첩(白疊)과 백첩(白疊)의 어원(語源)에 대하여 등전풍인(藤田豊人)씨는 그것이 Bombax Malabaricum, 또는 Gossypium Herbaceum의 화취(火蠶)의 직포(織布)인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지만, 그 어원(語源)에 대하여는 Hirth씨, Laufer씨 등 논의(論議)가 분분하나 오늘날의 파사어(波斯語)의 Bagtak, Bugtak이 그 원형(原形) 또는 유형(遺形)이라고 하였다⁶⁷⁾. 곧 백첩(白疊), 백첩(白疊)은 중국인(中國人)들이 파사어(波斯語)(페르시아어(語))의 면직물명(綿織物名)인 Bagtak, Bugtak을 한자(漢字)로서 음역(音譯)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文獻考察)로서 고구려에 백첩포(白疊布)라고 명명된 면직물(綿織物)이 있었고, 통일신라에 백첩포(白疊布)라고 명명된 면직물이 있었던 것이 나타났다. 고구려에서는 백첩포(白疊布)를 제조하였다고 하였고 통일신라에서는 당(唐)나라에 보낸 품목(品目)중(中)에 있는 것인데 공물품(貢物品)은 토산품(土產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일신라에서 제직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고구려에서 제직하였던 면직물이 통일신라시대로 이어져 제직되었다고 본다.

백첩(白疊)은 고려(高麗) 혜종(惠宗)때에도 공물품(貢物品)으로 사용된 사실이 중국(中國)의 「책부원구(冊府元龜)」와 우리나라의 「고려사(高麗史)」에 나타나 있어 고구려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직물인 것은 분명한 듯하다. 더욱이 경문황제 당(唐)에 보낸 40승(升)백첩포(白疊布)는 대단히 섬세한 것이다.

면섬유(綿纖維)가 어떻게 유통되어 고구려에서 백첩포(白疊布)를 제직하였는지에 대하여

64) 李載浩, 『韓國史研究』, 第36-39輯, pp.80-84, 1982.

65) 閔吉子, 「白疊布, 白疊布考」, 『國民大學校教育論叢』, pp.79-98, 第7輯, 1987.

66) 閔吉子, 「綿織物製織年代에 關한 研究」 『國民大學校教育研究所教育論叢』, 第3輯, 1984.

67) 藤田豊人, 「棉花棉布に關する古代支那の知識」, p.168

는 앞으로 조사,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인도의 면(綿)이 기원초(紀元初)에 이미 동남아시아를 거쳐 오늘날에 중국의 남부에 전파되어, 재배, 제직되었으므로 본다면, 고구려, 통일신라에 면(綿)이 알려져 제직되고 사용된 것이 이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백첩포(白疊布)를 고구려에서 제조한 기록은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한 기록은 없다. 통일신라에서 백첩포(白疊布)를 공납품(貢納品)으로 사용한 기록은 있으나 또한 국내에서 사용한 기록은 없다. 귀(貴)한 직물이었던 듯하다.

중국(中國)에도 면직물(綿織物)이 원대(元代)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면직물(綿織物)은 중국(中國)의 당(唐)시대에는 품귀(品貴)한 직물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섬세한 기공(技工)으로 제직된 백첩포(白疊布)가 통일신라의 특산품(特產品)으로서 공물품(貢物品)이 되었다고 본다.

40승백첩포는 일폭간(一幅間)에 3200올의 경사가 정경되어 제직된 것이며 폭의 넓이는 50cm여가 되었을 것이다. 40승백첩포를 오늘날의 30cm여의 포폭으로 그 승수를 환산한다면 24승정도가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와 수십년 전까지 15승정도는 제직되었으니, 가히 섬세직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옛여인들이 그 정도의 섬세직은 힘들기는 하였겠으나 제직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는 12승면포를 제직하는 정도이다.

第4節 발해(渤海)의 직물(織物)

발해(渤海)는 고구려의 유민이 송화강유역(松花江流域)의 넓은 평원(平原), 즉 부여가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한 나라이다. 발해에는 고구려의 유민외에 북만주일대에 거주하던 말갈인이 예속되어 있었다. 발해는 기원 698년 건국되어 통일신라와 대립되어 독립왕국으로서 발전하였는데, 문화의 성기(盛期)인 선왕(宣王)(818-830) 때에는 동으로 연해주(沿海州), 서로 개원(開原), 남으로 함남(咸男), 북으로 흑룡강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현재의 중국, 소련지역에 걸쳐 있었고 또 북한도 그 고지(故地)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발해사연구는 한국(韓國), 북한(北韓), 중국(中國)이 각기 다른 견해로서 진행되어 왔다. 대립된 신라와 대항하기 위하여 일본(日本)과도 경제적, 문화적 교섭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일본(日本)에서도 관심을 보여왔다. 발해는 초기에는 당(唐)과 대립적이었으나 후에는 당(唐)과 경제, 문화적인 통교를 하였다.

직물(織物)에 있어서는 발해건국 이전 부여(夫餘), 옥저(沃沮), 읍루(挹婁), 고구려(高句麗)의 직물제직의 기반위에 당(唐)과 일본(日本), 신라(新羅)와의 교류(交流)가 있어 다양한 직물이 나타나 있다. 발해의 직물은 「발해국지(渤海國志)」,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篇)」 「발해사상(渤海史上)의 제문제(諸問題)」 등에서 직물(織物)이 물산(物産)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1. 직물(織物)의 종류(種類)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篇)」에 의하면 현주지포(顯州之布), 육십종포(六十綜布), 세포(細布), 세백포(細白布)가 발해포(渤海布)라고 하고 마(麻)로 제직한 것이라고 하였다.⁶⁸⁾ 옥주지면(沃州之緜)에 면(緜)은 견사(繭絲)로 된 옥주(沃州)의 것이라고 하였다. 용주지주(龍州

68) 『渤海國志長篇』, 食貨考, 卷四, 療陽金毓□撰

之紬)에 어아주(魚牙紬), 조하주(朝霞紬)가 발해산(渤海産)의 주(紬)라고 하였다. 동서(同書)의 육십종포(六十綜布), 어아주(魚牙紬), 조하주(朝霞紬)는 모두 당(唐)에 공헌(貢獻)한 것이라고 하였다. 백저(白苧)의 항(項)에서는 동옌국(東門國)에서 계단(契丹)에 공헌한 것인데 발해산(渤海産)이라고 하였다.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篇)」의 어아주(魚牙紬), 조하주(朝霞紬)의 항(項)에는 ‘此蓋因花紋而異其名’이라고 있어 문양에 의하여 명칭을 달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직물(織物)이 외에 호피(虎皮), 표피(豹皮), 해표피(海豹皮), 초서피(貂鼠皮), 웅피(熊皮), 묘피(猫皮), 백토피(白兔皮), 양피(羊皮)등도 있다.

2. 교역(交易)된 직물(織物)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篇)」에 의하면 당(唐)에 사한 것으로 백(帛), 금채(錦采), 견(絹), 채련(採鍊), 면(綿)등이 있는데 면(綿)은 목면(木棉)이라고 하였다. 일본(日本)에서 증(贈)한 직물로서 견(絹), 면(綿), 사(絲), 시(紬), 미농시(美農紬), 능(綾), 채백(彩帛), 조금(調錦), 조포(調布), 용포(庸布), 힐라(庸布), 백라(白羅)가 있다. 또 대흥(大興) 22년 일본(日本)에서 증한 것으로 양면이필(兩面二匹)이 있는데 양면(兩面)의 의(義)는 미상(未詳)이라고 하였다.

3. 발해산(渤海産) 어아주(魚牙紬), 조하주(朝霞紬)에 대한 견해(見解)

발해산(渤海産) 어아주(魚牙紬), 조하주(朝霞紬) 육십종포(六十綜布)에 대하여 일야개삼랑(日野開三郎)씨는 발해산(渤海産)이 아니고 신라산(新羅産)이라고 하였다.⁶⁹⁾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篇)」 권(卷)17 식화(食貨)의 어아주(魚牙紬), 조하주(朝霞紬)의 항(項)에는 ‘大興十一年 黑水部獻六十綜布於唐’이라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내용은 「책부원구(冊府元龜)」 권(卷)971, 외신부조공문(外臣部朝貢門)에 ‘黑水靺鞨 黃頭室韋 如者室韋 賂丹室韋並遣使獻 金銀級 六十綜布 魚牙紬 朝霞紬 牛黃 頭髮 人蔘’이라고 있는데 「당회요(唐會要)」 권(卷)95 신라(新羅)의 항(項)에는 ‘遣使獻 金銀級 六十綜布 魚牙紬 朝霞紬 牛黃 頭髮 人蔘’등으로 같은 종목(種目)의 직물(織物)이 신라에서 당(唐)에 조공된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책부원구(冊府元龜)」와 「당회요(唐會要)」에 기록된 공헌년대(貢獻年代)가 모두 당(唐) 현종(玄宗) 천보(天寶) 7년(748)이라는 것이다.

두 기록은 같은 내용의 기록일 것인데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篇)」의 저자는 「책부원구(冊府元龜)」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동서(同書)에 저술함으로써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또 「책부원구(冊府元龜)」의 기록은 ‘黑水靺鞨 黃頭室韋 和解室韋 如者室韋 賂丹室韋並遣使貢獻新羅使獻 金銀級 六十綜布 魚牙紬 朝霞紬 牛黃 頭髮 人蔘’인 것이 잘못되어 ‘貢獻新羅使’가 탈락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일야개삼랑(日野開三郎)씨는 육십종포(六十綜布), 어아주(魚牙紬) 조하주(朝霞紬)가 신라의 산물(産物)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필자(筆者)도 일야(日野)씨의 이 의견(意見)에 동의(同意)하여 본 장에서 언급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육십종포(六十綜布), 조하주(朝霞紬), 어아주(魚牙紬)가 신라(新羅)의 산물(産物)이 되는 것이니 신라(新羅)의 직물(織物)의 종류(種類)에 육십종포(六十綜布)가 추가되는 것이다.

「동국통감(東國通鑑)」에 의하면 통일신라(統一新羅) 문무왕(文武王) 12년(672)에 40종포(綜布), 30종포(綜布)를 당(唐)에 공물(貢物)한 기록이 있다. 종포(綜布)는 고려시대(高麗時

69) 日野開三郎, 「國際交流より見た滿鮮の絹織物(三)」, 『朝鮮學報』1977.

代)의 「고려사(高麗史)」, 지권(志卷)삼십삼 식화이(食貨二) 충혜왕(忠惠王) 2년조(年條)와 지권삼십삼(志卷三十三) 충숙왕(忠肅王) 15년조(年條)에도 ‘은병(銀瓶)하나에 5종포(綜布) 15필(匹)’등으로 나타나 있다.

중국(中國)의 경우 한 대(漢代)의 포(布)에 종포(綜布)(七綜布, 八綜布, 九綜布, 十綜布등)가 각종(各種) 문헌(文獻)에서 산견(散見)되는데 종(綜)은 승(升)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라와 고려의 종포(綜布)는 승수(升數)를 나타낸 것으로 보면 5승포(升布), 30승포(升布), 40승포(升布), 60승포(升布)가 될 것이다. 실제로 같은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30승포(升布), 40승포(升布)로 되어 있는데, 「동국통감(東國通鑑)」에는 30종포, 40종포로 되어 있어 승(升)과 종(綜)이 같은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0종포(綜布)라면 포폭(布幅)이 50cm여로 오늘날 30cm 여로서는 36승(升)이 되는데 과연 그와 같은 포(布)를 제작할 수가 있었는지는 의문으로 생각된다. 만일 폭(幅)이 50cm보다 더 광폭(廣幅)이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필자(筆者)가 뉴욕 메트로포리탄박물관에서 이집트인들이 제작한 아마폭(亞麻幅)의 폭(幅)이 3m가 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고대(古代)의 포(布)는 포폭(布幅)이 명시되지 않는 한 승수(升數)만으로는 직물(織物)이 경위사밀도(經緯絲密度)를 알 수가 없다. 고려시대(高麗時代) 이전(以前)에는 포폭(布幅)이 주척(周尺)으로 이척이촌(二尺二寸)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으나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에 변진전(弁辰傳)에서 광폭세포(廣幅細布)를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광폭(廣幅)이란 고려시대(高麗時代) 36cm 정도에 대한 주척(周尺) 이척이촌(二尺二寸)인 50cm여(餘)의 포폭(布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포폭(布幅) 이척이촌(二尺二寸)(51cm 정도)보다 저 광폭(廣幅) 즉 그 시대에 일반적인 포폭(布幅)보다 광폭(廣幅)이었다 하는 것이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광폭(廣幅)이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신라, 통일신라에도 특별한 경우 제작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第5節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직물(織物)

왕건(王建)은 918년 후삼국(後三國)을 통일(統一)하여 삼국통일(三國統一)의 대업을 이룩하고 국호(國號)를 고려(高麗)라고 하였다. 고려시대(高麗時代)는 중세(中世)의 특색(特色)을 지니며 고대(古代)와 근세(近世)를 연결하는 교량적인 시대(時代)이다. 고려(高麗)는 전기(前期)에 이미 왕조(王朝)의 기반을 이루어 제도(制度)와 문물(文物)이 정비되었고 국세(國勢)도 강성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는 대내외적(對內外的)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하였던 때이다. 곧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는 일, 여진(女眞)을 정벌하는 일, 당(唐)이후, 송(宋), 금(金), 원(元), 명(明)의 흥기(興起)와의 연관관계 그리고 후기(後期)의 각종(各種) 내란(內亂)과 약 30년간(年間)의 몽고(蒙古)의 침입, 왜구(倭寇)등에 의한 외환(外患)이 연속된 시대(時代)이다. 그 결과 사람과 문물(文物)의 교통(交通)이 다양(多樣)해진다. 일찍이 신라(新羅)의 삼국통일후(三國統一後) 황금시대(黃金時代)를 이룬 신라공예(新羅工藝)가 고려(高麗)에 이어져 더욱 발전하게 된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 백제(百濟)와 신라(新羅)의 황해(黃海)를 통한 중국(中國)과의 교통(交通), 고구려의 남중국(南中國)과의 통교(通交), 통일신라(統一新羅)에 중국(中國)과의 공적(公的) 교통(交通), 후백제(後百濟)의 오(吳), 월(越)과의 국교(國交), 고려시대의 여진(女眞), 거란인의 귀화(歸化), 중국(中國)과의 조공(朝貢), 사여(賜與)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문물교역(文物交易), 대식국(大食國)(아라비아)과 왜(倭)의 상인광의 교역(交易) 등 대외관계(對外關係)는 고려의 문물(文物)이 국제화되고 발전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대식민(大食民)들은 당대(當代)이래 광주(廣州)를 중심(中心)으로 교역(交易)하였으며 송대(宋代)에는 더욱 활발하였다. 대식민(大食民)들은 송상(宋商)의 고려(高麗)와의 교역(交易)에 자극되어 고려(高麗)로 직접 진출하였다.⁷⁰⁾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현종(顯宗) 15년(1024) 9월에 100인의 대식국민(大食國民)이 와서 토산(土產)을 받쳤고 이듬해 9월에도 100인이 출입하였다고 한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직물(織物)은 이상과 같은 제반 상황속에서 삼국시대(三國時代),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 이리 더욱 다양화(多樣化)되어 갔다. 다양(多樣)한 고려시대의 직물은 각국(各國)과의 교섭관계로 이루어진 조공(朝貢), 사여형식(賜與形式)의 교역품(交易品) 물목(物目)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직기술면(製織技術面)에 있어서도 여러 지역과의 교통관계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고려시대에는 더욱 넓은 지역의 직물문화와 제직기술이 융합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고려시대에는 더욱 넓은 지역의 직물문화와 제직기술이 융합하게 된 것이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직물(織物)은 주로 조공(朝貢), 사여(賜與)되었던 물목(物目)에 대한 문헌(文獻)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불복장품중(佛腹藏品中) 다양(多樣)한 종류의 직물유품 조사로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관영공장(官營工匠), 사영공장(私營工匠), 농촌수공업(農村手工業), 사원수공업(寺院手工業) 등의 형식으로 각처에서 직물이 제직되었다. 관영공장(官營工匠)은 액정국(掖庭局)의 금장(錦匠), 나장(羅匠), 능장(綾匠), 견장(絹匠)과 잡직서(雜織署)의 금장(錦匠), 나장(羅匠), 능장(綾匠), 견장(絹匠) 등이 있었고 어의봉공(御衣奉供)을 위하여 수장(繡匠), 대장(帶匠)등도 있었다. 도염서(都染署)에서는 각종(各種) 염색(染色)을 하였다.

농촌수공업(農村手工業)은 농민들의 자급자족적 농업이었으며, 지방에는 특산물을 생산하는 사소(絲所), 주소(紬所)등이 있었다. 농촌수공업자, 귀화인(거란인(契丹人), 여진인(女眞人))들은 도시와 농촌에서 자영(自營)으로 직물수공업에 종사하였다.

고려는 오랜 거란인(契丹人)과의 싸움으로 많은 거란인(契丹人)을 포로로 하였고 투화인(投化人)도 수만(數萬)에 달했다고 한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의하면 그들의 공기(工技)가 11가지였으며 가장 정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왕부(王府)에 머물게 하였다고 한다. 거란(契丹)은 고려에 양천두(羊千頭)를 바친 사실이 있는데 그 양(羊)을 사양하였던 곳이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다.

고려는 여진(女眞)의 투화인(投化人)도 받아들였다. 전공(氈工)등 특수한 기술자는 집과 토지를 주어 민호(民戶)에 편입시켜 공인(工人)이 되게 하였다. 여진의 투화인(投化人)은 고려의 문물을 흠모하며 추장(酋長), 두목 등이 공물(貢物)을 받치고 고려로 오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부여에서부터 계(鬪)(정세모직물(精細毛織物))를 사용하였고고고 백제와 신라에서는 답등(毳氈), 구유(毳氈), 전(氈)과 같은 다채(多彩)하고 다양(多樣)한 문양(紋樣)을 직문(織紋)한 Rug류(類), carpat류(類)를 제직하였다. 모섬유(毛纖維)의 각종(各種) 제조물(製造物)의 기술(技術)은 고려시대로 이어졌으며 거란(契丹)과 여진(女眞)의 공인(工人)들의 기공(技工)도 일조(一助)를 하였다.

고려(高麗) 최자(崔滋)의 「삼도부(三都賦)」에는 금(錦)기(綺)수(繡), 힐(纈),라(羅),초(綃),능(綾),□,겸(縑),곡(穀) 등 각종 직물을 제직하였던 것이 나타나 있고, 서거정의 시에는 고려의 직물은 교초(蛟 초)보다 더 가늘고 월사(越紗)보다 가볍다고 하였다. 교초는 견설에 동해의 교인(蛟人)(인어와 같은 신화속의 사람)이 짜는 비단으로 어느 세상의 비단보다 고운

70) 金庠基, 「東方文化交流史論考」, pp.47-84.乙酉文化社, 1984

비단을 가르치는 것이다. 「삼도부(三都賦)」에도 고려에서 짜는 직물을 ‘불면 날 듯, 연기인 가 안개인가 희나 흰 빛 눈인가 서리인가’라고 형용하였다. 심리에 뺨은 공경(公卿)의 집에 제수(緹繡)로 기둥을 싸고 채전(彩氈)으로 바닥을 깔았다고 하였다. 주옥(珠玉)과 모피(毛皮)를 싸고 꾸린 것이 사방에서 모여와 가득하다고 하였다. 실로서 수불(繡佛)을 만들고 니금(泥金)으로 선가화(禪家畫), 조사결(祖師訣)을 필사하였다고 하였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극히 좋은 문라화능(文羅花綾)이 제직된다고 하였다.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문종(文宗), 이십육년조(二十六年條)에 고려(高麗)에서 송(宋)에 보낸 품목중(品目中) 색대문라(色大文羅), 진홍(眞紅), 진자대문라(眞紫大文羅), 소금홍라(銷金紅羅), 홍라수(紅羅繡), 홍매화라(紅梅花羅), 홍문라(紅文羅), 홍라(紅羅), 황라(黃羅) 등으로 각종 공예품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라(羅)가 많이 제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금(紅錦), 백금(白錦), 청금(靑錦)등으로 된 각종 공예품 역시 송(宋)으로 갔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혜종(惠宗) 2년(945)에 오대(五代) 후진(後晉)에 보냈던 물목중(物目中)에는 계금(闕錦), 홍지금은오색선직성화조계금(紅地金銀五色線織成花鳥闕錦)으로 된 한과(捍胯), 의배(倚背), 군요(裙腰) 등이 있어 모섬유(毛纖維)로 된 화려한 금(錦)이 있었던 것이 나타난다. 또 홍지금은오색선직성일월용봉오단(紅地金銀五色線織成日月龍鳳襖段), 홍지금은오색선직성용상육(紅地金銀五色線織成龍床褥) 등 화려한 직물도 제직되었다고 한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특히 인피섬유직물(人皮纖維織物)인 마포(麻布), 저포(紵布)가 20승저포(升紵布), 20승마포(升麻布), 사저포(紗紵布), 문저포(紋紵布), 각색마포(各色麻布), 흑마포(黑麻布) 등으로 정교(精巧)하게 제직되었다.

고려 공민왕 12년(1363)에 원(元)나라에서 문익점 선생이 면의 종자를 가져오면서 면의 재배가 시작되며, 929년에 후당(後唐), 945년에 후진(後辰)에 백첩포(白氈布)를 보낸 사실이 「고려사(高麗史)」, 「책부원구(冊府元龜)」 등에 나타나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이여성(李如星)씨가 「조선복식고(朝鮮服飾考)」에서 백첩포(白氈布), 백첩포(白氈布)를 모직물(毛織物)로서 분류한 이래 각종 복식사에서 계속 모직물로 분류되어 왔는데 아마 각종 한문사전에 ‘모직물첩(毛織物氈)으로 풀이되어 있어 그렇게 분류된 것 같다. 그러나 사전에는 모(毛)가 ‘동식물(動植物)의 터럭’이라고 풀이되어 있어 모(毛)를 단순히 동물의 터럭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백첩(白氈)과 백첩(白氈)은 중국인(中國人)들의 ‘白毛의 布’라고 한 자의(字意)로서 명명(命名)한 직물명(織物名)이 아니고 파사어(波斯語)(페르시아어)의 면직물명(綿織物名)인 Paktat, Baktak을 음역(音譯)한 것이라고 한다. 논자(論者)에 따라서는 Jagatai Turki 어(語)의 Pakhtak에서 음을 따서 한자(漢字)로 옮긴 것이라고도 한다.⁷¹⁾ 그리고 「양서(梁書)」 고창전(高昌傳), 「구당서(舊唐書)」 권(卷) 197, 남만(南蠻), 서남만전(西南蠻傳)등에서는 백첩(白氈), 백첩(白氈)의 섬유(纖維)에 대하여 고구(古具)(Gossypium Herbaceum)에서 만들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어 면섬유식물(綿纖維植物)임을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中國)의 각종(各種) 섬유직물(纖維織物)의 역사서(歷史書)인 「목면보(木棉譜), 「중국방직사화(中國紡績史話)」 「한대(漢代)의 문물(文物)」에는 백첩(白氈)과 백첩(白氈)이 면직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백첩포(白氈布), 백첩포고(白氈布考)를 통하여 백첩포(白氈布), 백첩포(白氈布)가 면직물(綿織物)이라는 논고(論考)를 발표한 바 있다.⁷²⁾ 또 「면직물제직년대(綿織物製織年代)에 관(關)한 연구(研究)」로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 면직물(綿織物)을 제직하였다는

71) 註 76)과 同

72) 註 35), 29)와 同

논고(論考)⁷³⁾를 발표한 바 있으며 「문익점과 무명문화」⁷⁴⁾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한원(翰苑)」에 ‘조백첩포(造白疊布)’라고 하여 고구려(高句麗)에서 면직물(綿織物)이 제작되었으며 이와같은 기록은 「고려기(高麗記)」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고려기」는 오늘날 남아 있지 않는 문헌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면직물(綿織物)인 백첩포(白疊布)를 제작한 연대(年代)는 막연히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라고 잡았다. 그런데 「한원(翰苑)」의 저자(著者) 장초금(長楚金)의 자서(自序)에 의하면 저작년대가 당(唐)에 고종(高宗) 현경(顯慶) 5년(660)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⁷⁵⁾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면직물(綿織物)을 제작하게 된 때는 면종자(綿種子)가 들어온 1363년보다 적어도 703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상(歷史上)으로 고구려는 남중국(南中國)과 일찍이 통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남중국의 운남(雲南)지역과 동남아시아의 남해제국(南海諸國)에는 일찍이 기원초(紀元初)부터 인도의 면직물(綿織物)과 그 재배, 제작기술이 전파되어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이 「화양국지(華陽國志)」, 「후한서(後漢書)」, 「태평어람(太平御覽)」 외 많은 고문헌(古文獻)에 기술되어 있다. 이리하여 정확하게 면섬유가 어떻게 입수되어 면직물을 제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고구려시대에 면섬유가 입수될 수 있는 지리적(地理的), 경제사적, 교류사적 사정이 충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日本)의 경우 실정시대(室町時代)(1390-1595)에야 비로소 우리나라로부터 면직물(綿織物)과 면종자(綿種子)를 들여가 재배·제작하였으며 일본(日本)의 나량시대(奈良時代)에 전래된 ‘다지쌍조환문목면(茶地雙鳥丸文木綿)’으로 명명(命名)된 문직면포(紋織綿布)가 오늘날까지 전하여지고 있다. 중국(中國)의 경우도 원(元)나라때 면화가 일반화되기 이전에 많은 주변국과 변경에서 면직물이 들어와 이미 면화를 알고 있었고 그 유품도 많이 발견되었다.⁷⁶⁾

우리나라도 면종자가 일반적으로 재배되기 이전에 면직물을 알고 섬유를 구하여 제작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려사(高麗史)」 혜종(惠宗) 이년조(二年條)에 후진(後晉)에 보낸 세백첩포(細白疊布)는 통일신라시대 40승백첩포(升白疊布)을 당에 보낸 것에 이어 계속 제작된 것임이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나라 여인(女人)들의 섬세직 제작의 특기(特技)로 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고려에서는 견(絹), 모(毛), 마(麻), 면섬유(綿纖維)의 각종(各種) 섬유(纖維)의 직물이 모두 제작되었다. 더욱이 고려시대는 모든 천연섬유가 모두 국내에서 재배되어 그 직물들이 제작되었다. 또 통교(通交)된 많은 지역(地域)으로부터 각종 직물이 국내에 들어왔다.

고려와 송(宋)과의 약이백년(約二百年)(962-1164)에 걸친 교류기간동안 송(宋)으로부터 송사편(送使便)에 들어온 직물의 물목(物目)은 「고려사(高麗史)」 문종(文宗) 삼십이년조(三十二年條)(1078) 등에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중국(中國)의 단류(緞類)가 고려에 수입되고 고려의 모직물(毛織物)이 중국(中國)에 수출되었다고 한다.⁷⁷⁾

고려시대(高麗時代)는 다양(多樣)한 특산직물(特産織物)이 각종(各種)으로 제작된 시대(時代)인 동시에 각지역(各地域)으로부터 다양(多樣)한 직물류(織物類)가 수입된 시대이기도 한

73) 註 35), 29)와 同

74) 國立民俗博物館, 「문익점과 무명문화」, 新裕文化社, pp.101-112, 1991.7

75) 湯淺幸孫校綿, 「翰苑校釋」, 國書刊行會(日本, 東京), p.iii, 1983.

76) 角山幸洋, 「木綿革命」, 『服裝文化』, 160, p.54, 文化出版局, 1978.

77) 吉田光邦外, 『原色染織大辭典』, 淡交社(日本), p.702, 1977.

다.

1.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직물(織物)의 종류(種類)와 특성(特性)

「고려사(高麗史)」,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동국통감(東國通鑑)」 「대동야승(大東野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동문선(東文選)」 등 각종(各種) 문헌(文獻)에 다양(多樣)한 고려시대의 직물명(織物名)이 나타나 있다.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보다 직물명이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려시대에 대한 문헌이 풍부하게 전하여져 오기 때문이다. 직물명(織物名)에 색(色), 승수(升數), 문양(紋樣), 생산지(生産地) 등이 나타나 있어 고려시대 직물의 실상이 잘 나타나 있다. 더욱이 고려시대의 직물은 근간 불복장유물(佛腹藏遺物)로서 발견되는데 그 종류가 다양하여 문헌에 나타나 있는 직물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 문헌(文獻)을 통하여 본 고려(高麗)의 직물(織物)

각종(各種) 문헌(文獻)에 나타나 있는 직물명(織物名)을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4> 고려시대의 직물

포(布)	포(布), 오승포(五升布), 세포(細布), 추포(麤布), 백포(白布), 조포(皂布), 청포(靑布), 적포(赤布), 홍염포(紅染布), 백세포(白細布), 흑(黑)세포, 양(壤)세포, 대(大)포, 광(廣)포, 평포(平布), 중포(中布), 생평포(生平布), 소평포(小平布), 중평포(中平布), 생중포(生中布), 광평포(廣平布), 공평포(貢平布), 토포(討捕), 관포(官布), 빈포(賓布), 폐포(幣布), 이장포(理藏布), 녹봉포(祿俸布), 실포(實包), 만전포(盤纏布), 다포(多包), 노포(弩砲), 개자포(丐者布), 금포(及捕), 전포(田圃), 국포(國布), 초포(蕉布), 종포(綜布), 오종포(五綜布)
마포(麻布)	마포, 세마포, 세중마포, 이십승마포(二十升麻布), 흑마포(黑麻布), 흑세마포, 황마포(黃麻布), 이십승황마포, 세황마포(細黃麻布)
저포(紵布)	저포, 세저포(細紵布), 이십승(二十升)백저포 백저포(白紵布), 황저포(黃紵布), 홍저포(紅紵布), 문저포(紋紵布), 화문(花紋)백저포, 사저포(紗紵布)
견포(絹布)	면포(綿布), 목면(木綿)포, 대(大)면포, 면(綿), 면자(綿子), 운면(雲綿), 사면(絲綿),(면)
백첩포(白氎布)	백첩포(白氎布), 세백첩포, 목면(木綿)
백(帛)	백, 채백(彩帛), 금백(金帛), 조백(皂帛), 폐백(幣帛), 속백(束帛)
견(絹)	견, 세견(細絹), 생견(生絹), 백견(白犬), 조건(皂絹), 청견(靑絹), 홍견(紅絹), 황견(黃犬), 비견(緋絹), 색견(色絹), 소견(小絹), 중견(中絹), 대견(大絹), 관견(管見), 동견(洞見), 금면견(錦綿絹)
주(紬)	주, 세주, 황주, 조주, 자주(紫紬), 면주, 조하주(朝霞紬), 어아주(魚牙紬), 자화면주(紫花綿紬), 약향주(若鄉紬)
초(綃)	초, 백초, 홍초,
릉(綾)	릉, 생능, 백능, 황능, 자릉, 문능, 화릉(花綾), 대능, 이색능(二色綾), 소능, 백면능(白綿綾),릉소(綾所), 명황색소능(明黃色小綾), 남황(藍黃)색소릉, 천분홍(淺粉紅)색소릉, 심분홍(深粉紅)색소릉, 행황(杏黃)색소릉, 치황색(梔黃色)소릉, 천색(淺色)소릉, 매화(梅花)색소릉, 자색(紫色)소릉, 운벽(雲碧)색소릉, 치황색(梔黃色)대릉
사(紗)	사, 소사(素紗) 백사, 조사, 강사(絳紗), 조사(鳥紗), 홍사, 자사, 진자사(眞紫紗), 색화사(色花紗), 복두사(頭紗), 모자사(帽子紗), 명황(明黃)색화사, 남황(藍黃)색화사, 천분홍(淺粉紅)색화사, 심분홍(深粉紅)색화사, 행황(杏黃)색화사, 치황색(梔黃色)화사, 천색(淺色)화사, 매홍(梅紅)색화사, 자색(紫色)화사, 운벽(雲碧)색화사
라(羅)	라, 생라, 백라, 조라, 흑라, 강라, 청라, 황라, 녹라, 비라, 색라, 금라, 채라, 선라, 자라, 진자라(眞紫羅), 홍라, 초금홍라(초金紅羅), 화라(花羅), 색화라(色花羅), 명황(明黃)색화라, 남황(藍黃)색화라, 천분홍색화라, 심분홍색화라, 행황색화라, 치황색화라, 천색화라, 매홍색화라, 분벽색화라, 홍화라, 홍매화라, 초금홍매화라, 문(문)라(文(紋)羅), 오색문라, 홍문라, 자문라, 비문라, 진홍대문라, 색대문라, 진자대문라, 명황대문라, 생대문라(生大文羅), 생후라(生厚羅), 상평문라(常平紋羅)
기(綺)	기
단(段)	단, 색단, 백단, 소단(素段), 수단(繡段), 금단, 홍지금은오색선직성일월용봉오단(紅地金銀五色線織成日月龍鳳燠段), 단자(段子), 소단자(素段子), 잡색필단(雜色匹段), 채단(彩段)
채(彩)(채(綵))	채(綵), 은채, 채첩
수(繡)	수, 오사수(五絲繡), 자수, 황수, 홍수, 부벽수(父碧繡), 청질수(靑質繡), 금수, 나수, 홍화라수, 자라수(紫羅繡), 금홍라수, 문수, 자수, 대수(大繡), 문수(文繡), 홍라수(紅羅繡)
긴사(緊絲)	만화(萬花)긴사, 조기자화(早地紫花)긴사, 청사(靑絲)긴사
주사(注絲)	금화(金花)주사, 금선(金線)주사, 금선주사(金線走絲)

계(鬮)	계, 황계, 홍계, 금계, 은계, 계금(鬮錦), 홍지금은오색선직성화조계금(紅地金銀五色線織成花鳥鬮錦), 홍지금은오색선직성용어계(紅地金銀五色線織成龍魚鬮), 금은장계금(金銀裝鬮錦)
전(氈)	전, 오색전, 청전, 채전
담(毯)	담
제(緋)	제
시(緇)	시
저사(紵絲) (수자(繡子))	저사, 금룡(金龍)저사
□	□
란(欄)	소란(素欄)
회(繪)	회
회(繪)	회
곡(穀)	곡
금(錦)	금, 적금, 사금(絲錦), 홍금, 자금, 전백금(全白錦), 전청금(全靑錦), 중금(重錦), 구금(具錦), 잡색천금(雜色川錦), 문금(文錦), 연□문금(練□文錦), 담문금, 서금(西錦), 계금(鬮錦), 궁금(宮錦), 열선세잡색천금(列仙細雜色川錦), 천하악훈문(天下樂暈文)잡색천금, 잡화(雜花)훈문잡색천금, 합라운안세(合羅雲鴈細)잡색천금, 반담(盤毼)운안세잡색천금, 찬안(攢鴈)운지세잡색천금, 족사금조대(簇四金鵬大)잡색천금, 비취모(翡翠毛)자대잡색천금, 황사(黃獅)자대잡색천금, 보소(譜所)대잡색천금
소금(銷金)	홍라(紅羅)소금
홍라힐(紅羅纈)	홍라힐, 비라힐(緋羅纈)
화(畫)	황라건금화, 홍라건금화
직성(織成)	홍지금은선직성용상육(紅地金銀線織成龍床褥), 홍지금은오색선직성운룡전자(紅地金銀五色線織成雲龍箭釵)

2) 고려시대(高麗時代) 직물(織物)의 특성(特性)

(1)포(布)

고려시대의 각종 문헌에 다양한 포(布)의 종류가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포(布)는 섬세도(織細度)(정추(精麤)), 색(色), 포폭(布幅), 산지(產地), 용도(用途)등에 의하여 명명되었다. 고려시대 포(布)는 왕의 하사품, 교역품(공물품(貢物品)), 과렴(科斂), 부조(賻助), 세(稅), 녹봉(祿俸), 진상(進上), 의복(衣服), 장식화(裝飾畫)의 재료, 화폐 등으로 쓰였다.

포(布)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평포(平布)는 선종(宣宗) 원년(元年)(1084)에 1천필(千匹)로 사졸(士卒)의 의고(衣袴)를 만들어 분사(分賜)한 사실이 「동국통감(東國通鑑)」에 나타나 있어 보통 의료(衣料)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卷)八十七에는 목종(穆宗) 7년(1004)에 시중(侍中) 한언공(韓彦恭)이 졸(卒)한 때에 부포로 중포(中布)가 사여된 기록이 있다. 동서(同書) 권(卷)二百五十에는 ‘判貢中布一匹折貢平布二匹四尺五寸貢紵布一匹折貢平布二匹 貢絲紬一匹折貢平布二匹’이라고 있어 평포(平布)는 저포(紵布)와 사세(絲細)(견세(絹細)), 중포(中布)보다 품질이 못한 포(布)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서(同書) 권이백칠십이(卷二百七十二)에 문종(文宗) 25년(1071) 송(宋)나라에 생중포(生中布), 생평포(生平布), 각이천필(各二千匹)씩과 기타 각종 물품을 예물(禮物)로 보낸 데 대하여 그 물품(物品)들을 ‘화선지물(華鮮之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 품질이 좋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서(同書) 권(卷)一百六十에는 예종(睿宗) 10년(1115) 삼사개정절토법(三司改定折計法)에 ‘大絹一疋折米一石七斗絲錦小絹各一疋折七斗 小平布一疋折一斗五升五合大綾一疋折 四石中絹一疋折一石綿一疋折 六斗常平紋羅一疋折 一石七斗五升大紋羅一疋折二石五斗’라고 하여 소평포(小平布)가 가장 값싼 직물(織物)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소평포(小平布)가 가장 값이 싸고 평포(平布)가 그 다음이고 중포(中包)가 가장 비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 세가권이십이(世家卷二十二) 고종(高宗) 7년(1220) 금(金)나라의 우가하(兀哥下)에게 내린 물품중(物品中)에 광평포(廣平布)가 있는데 평포(平布)의 폭(幅)이 넓은 것으로 추측한다. 이것은 보통 포폭(布幅)(36cm 정도)보다 폭이 더 넓은 것도 있었음을 나타내는 일례이다. 「고려사(高麗史)」志卷二十이 희종(熙宗) 4년(1208) 유직자(有職者)에게 광평포(廣平布) 일필(一匹), 소평포(小平布)십필(十匹) 무직자(無職者)에게 소평포(小平布) 십필(十匹)등을 사여한 기록이 있어, 광평포(廣平布), 소평포(小平布)가 국내(國內)의 사여품으로도 사용된 것을 나타낸다. 충혜왕(忠惠王) 복위(復位) 2년(1341) 소은병(小銀瓶)하나에 오종포(五綜布) 15필(匹)이라고 한 기록이 있는데, 이 경우는 화폐(貨幣)로 사용된 것이다. 공민왕(恭愍王) 5년(1356) 5승포(升布)를 은병과 더불어 화폐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중(綜)과 승(升)은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되었다. 「동국통감(東國通鑑)」 권(卷)五十二에 폐포(幣布)는 가례용포(嘉禮用布)로 쓰였고 관포(官布)는 백마관포(白麻官布)를 조공품(朝貢品)으로 사용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마포(麻布)로 추정되며 관용(官用)으로 사용된 포(布)인 것으로 본다. 토포(土布)는 충렬왕(王) 24년(1298)에 마인국(馬人國)에서 고려로 가져온 포(布)로 되어 있다. 이렇듯 고려시대에는 용도(用途)에 의하여 명명된 포명(布名)이 많이 나타나 있다.

(2)마포(麻布)

「고려사(高麗史)」 권삼십에 경상도(慶尙道)의 안렴사(按廉使) 유원개(柳元開)가 20승마포(升麻布) 30필(匹)을 헌납한 기록이 있다. 동서(同書) 권(卷)二百二十三에는 제도(諸道)로 하여금 20승마포(升麻布)를 받치게 하였다고 하는데 방적녀공(紡績女工)으로서는 최난(最難)한 일이라고 하였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포폭(布幅)으로 환산하면 30승(升) 가까이 되는 것이다. 동서(同書) 고종(高宗) 40년(1253) 20승저포(升紵布)를 경상도(慶尙道) 안찰부사(按察副使)가 주현(州縣)에 명하여 받치게 하여 백성들이 백은(白銀) 1근(斤)으로도 포(布) 1필(匹)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섬세포조직은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졌으나 그 제작이 힘겨운 것이었음을 알게 한다.

고려에서는 흑마포(黑麻布)가 특산(特産)으로 제작되어 공물품(貢物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동국통감(東國通鑑)」 권(卷)五十二에 의하면 포(布) 5만필(萬匹), 백저포(白紵布) 4천3백필(匹), 흑마포(黑麻布) 2萬4千4百필(匹), 백마관포(白麻官布) 2萬千3百필(匹)이 북원(北元)에 세공(歲貢)으로 나갔던 사실이 나타나 고려의 각종(各種) 마포(麻布)는 고려의 특산품(特産品)으로서 많은 양이 중국과 교역(交易)되었던 것이다.

(3)저포(紵布)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왕(王)도 연거시에는 저포(紵布)의 의복(衣服)을 입으셨다고 한 바와 같이 저는 고려에서 의료(衣料)로 선호되었다. 저포(紵布)는 평직(平織)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문직(紋織), 사직(紗織)으로도 제작되었다. 「후한서(後漢書)」 서남(西南)이전에서 애우이(哀宇夷)가 난간세포(蘭干細布)를 제작하였다고 하는데 이 포(布)가 문저포(紋紵布)라고 한다. 애우이(哀宇夷)는 중국(中國)의 명제(明帝) 영평(永平) 12년(69)에 영창군(永昌郡)이었던 지역에 있었는데 영창(永昌)은 오늘날 운남(雲南)의 서남단(西南端)이라고 한다. 저포(紵布)에 직문(織紋)한 지역이 남중국영(南中國域)과 우리나라에 걸쳐 있었던 것이다.

문저포(紋紵布)의 문화권(文化圈)은 북중국역(北中國域)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며 원(元)나라때에는 고려의 문저포(紋紵布)를 선호하여 진공품(進貢品)으로서의 요구(要求)가 많았다. 원(元)나라의 진공품(進貢品) 요구에 대하여 공민왕(恭愍王) 4년(1355)에는 지신사(知申事)가 가서 술을 사(賜)하고 문저포(紋紵布)의 제공(除貢)을 받아낸 사실도 있어 원(元)나라에서 문저포의 요구가 심하였던 것이 나타난다.

「고려사(高麗史)」 열전권이(列傳卷二)에는 충열왕(王) 2년(1276)에 한 여승이 잡이화문(雜以花紋)으로 직문(織紋)된 문저포(紋紵布)를 공주(公主)에게 바쳤는데 이것은 매미날개와 같이 섬세하여 전에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하였다. 이 화문(花紋)으로 직문된 저포(紵布)는 여승의 여종이 제작한 것이었는데 공주(公主)가 그 여종을 내줄 것을 청하여 부득이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직문저포(織紋紵布)의 여공(女工)이 흔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나는 기록이기도 하다. 사저포(紗紵布)는 「고려사(高麗史)」 세가권육(世家卷六) 정종(靖宗) 4년(1038)에 거란에 진공(進貢)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고려시대의 섬세저포로서는 20승저포(升紵布)정도이다. 고종(高宗) 40년(1253)에 경상도 안찰사가 백성에게 거두게 하였으나 백은(白銀) 한근으로 1필(匹)을 쉽게 구할 수 없었다하니 이 정도의 저포가 제작될 수는 있었으나 품귀(品貴)한 것이었던 것이 나타난다. 고려시대의 포폭(布幅)을 35cm 정도로 보고 통일신라시대의 포폭(布幅) 50cm여로 환산하면(35:20=50:x)고려의 20승백저포(升白紵布)는 통일신라의 30승(升) 가까이가 되니 저포의 섬세포도 통일신라에 이어 제작됨을 알 수 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麻枲之利 午羊畜產宜...其國自種苧麻 人多衣布 絕品者謂之絕..潔白如玉而窘邊王與貴臣皆衣之’ 라고 있는 바와 같이 고려의 모든사람이 저포(紵布)를 선호하여 입었던 기록이 있으며 이것은 옥과 같이 맑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고려백저포의 특성인 것이다. 오늘날에도 중국저포가 흔하게 수입되어 값싸고 손쉽게 사용하고 있으나 투명하지 않고 섬유가 탁하다. 원(元), 진(晉), 명(明), 몽고 등지에 교역(交易)된 것은 백저포(白紵布), 세저포(細紵布), 황저포(黃紵布), 홍저포(紅紵布), 문저포(紋紵布), 사저포(紗紵布) 등이다.

일본(日本)의 경우 「고사기(古事記)」에 저금(苧衾)(むしぶすま)가 있는데 ‘むし’는 한국어의 모시와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 가라무시(からむし)도 한저(韓紵)로서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어 처리기술이 발달된 방법이 있어 기술전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일본(日本)에서도 보고 있다.⁷⁸⁾

「계림유사(鷄林類事)」에 ‘苧曰毛 苧布曰毛施背’라고 있던 것이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등에 나타나 있어 고려에서는 저포(紵布)외에 ‘모시’로서 명명된 명칭으로서 불리웠음이 나타난다.

일본(日本)의 「만엽집(萬葉集)」, 「고사기(古事記)」에도 무시(むし)라는 기록이 있어 고려이전에도 모시로 불리웠던 것이 나타난다.

(4)면포(綿布)와 백첩포(白氎布)

「고려사(高麗史)」 권육(卷六), 七十九, 一百八, 一百十二, 一百三十六에 면포(綿布), 면포(縣布), 대면포(大綿布), 목면포(木綿布)가 나온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卷三, 四, 三十二, 三十五에도 현종(顯宗) 9년 (1018), 정종(靖宗) 5년(1039), 신우(辛禰) 12년(1386)조(條)에 면포(縣布)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동국통감(東國通鑑)」에도 충열왕(忠烈王) 15년(1289), 공민왕(恭愍王) 13년(1364)조(條)에 면포(綿布)의 기록이 있다.

78) 岡村吉右衛門, 『日本元始織物の研究』, p.61, 文化出版局, 1977.

이들 면포(縣布), 면포(縣布)를 예(濺), 마한(馬韓)의 면포(縣布)와 같이 해석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고려사(高麗史)」 권이(卷二)에 백첩포(白氎布), 세백첩포(細白氎布)를 후진(後晉)에 조공한 때가 945년이다.

면종자(綿種子)가 들어오기 전의 면직물(綿織物)에 대하여는 백첩포(白疊布), 백첩포(白氎布)에 국한하지 말고 면포(綿布)의 경우도 재고하여 보아야 될 것 같다.

(5) 소견(小絹), 중견(中絹), 대견(大絹)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예종(睿宗) 10년(1115)에 삼사개량정절토법(三司改良定折討法)에 ‘大絹一疋米一石七斗 小絹各一匹折石..中絹一匹折石...’이라는 기록이 있다. 대견(大絹)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중견(中絹), 가장 싼 것이 소견(小絹)이다.

「신당서(新唐書)」 지리지(地理誌)에도 토공(土貢)에 소견(小絹), 대견(大絹)이 나오는데 일본(日本)의 좌등무민(佐藤武敏)씨는 소견(小絹)은 소폭(小幅), 대견(大絹)은 대폭(大幅)인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고려의 경우도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6) 능(綾)(대능(大綾), 소능(小綾), 이색능(二色綾))

대능(大綾)은 삼사개량정절토법(三司改良定折討法)에 일필당미사석(一疋當米四石)으로 상평문라일필일석칠두오승(常平紋羅一疋一石七斗五升), 대문라(大紋羅) 일필이석오두(一疋二石五斗)보다 훨씬 비싼 절가(折價)이다. 대견(大絹), 소견(小絹)과 같이 폭(幅)에 의하여 구별되는 능(綾)의 명명(命名)으로 능(綾)의 규격(規格)에 의하여 절가(折價)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색능(二色綾)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卷)一百五十四에 고종(高宗) 18년(1231)에 백관(百官)의 의복유차(衣服有差)에 ‘今百官出衣有差以助國贖諸王宰樞以上卷錦二色綾衣三四品二色綾衣五品權參以上 綿細衣名一領’이라고 있다. 일본(日本)의 서촌병부(西村兵部)씨는 2색(色)의 지색(知色)으로 된 능(綾)과 적색능(赤色綾)이라고 하였다. 2색능(色綾)과 같은 것이다. 第三章에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아미타불복장유물의 능직물중에서 2색능(色綾)을 발견하여 설명하였다.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에 의하면 「계림유사」에서 고려에서는 ‘능왈보살(綾曰菩薩)’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능(綾)에 대한 고유명칭이 있었음이 나타난다.

(7) 사(紗)와 라(羅)

고려시대에 사용된 라(羅)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 사(紗)의 종류도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있다. 고려시대의 사(紗)와 라(羅)에는 고려에서 제작한 것과 송(宋), 명(明)에서 들어온 것이 있다. 고려시대의 사(紗)에는 송(宋)나라에 보낸 사(紗),⁷⁹⁾ 복두사(幘頭紗)와 모자사(帽子紗)⁸⁰⁾가 있다. 자사오자(紫紗襖子)가 원(元)에 조공되기도 하였다.⁸¹⁾ 홍사(紅絲)가 다구(茶具)를 덮는 건□(巾□)로 사용된 기록도 있다.⁸²⁾ 고려왕의 상복(常服)의 모자사(帽子紗)가 오사(烏紗)이고 좌우위견농군(左右衛牽農軍)의 모자(帽子)도 오사(烏紗)였다.⁸³⁾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고려(高麗)의 홍자(紅紫)의 염채(染彩)가 중국

79) 「宋會要輯禱」, 蕃夷七歷代朝貢, 熙寧 四年八月

80) 「高麗史」世家, 卷九, 文宗 三十四年, 七月 癸亥條

81) 「高麗史」, 卷二十三

82) 「高麗圖經」, 卷三十二, 器皿

83) 「高麗圖經」, 卷七十二, 二十四

(中國)보다 우수하였다고 한다. 송(宋)나라에 보낸 복두사(幘頭紗), 모자사(帽子紗)는 오사(烏紗)였을 것이고 방공적(方空的)인 칠사류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같은 칠사가 일찍이 제조된 것으로 보며 특산류(特産類)가 이 공물품(貢物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고려도경(高麗圖經)」 권(卷)九十에서도 고려에서 복두사(幘頭紗)의 공기(工技)가 대단한 데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동서(同書) 병촉조(秉燭條)에서 홍사(紅絲)독룡(籠)이 나오고 광명대조(光明臺條)에는 강사롱(絳紗籠)이 나와 있다. 홍사(紅紗), 자사(紫紗)도 고려에서 제조된 특산류로 본다. 고려시대에는 색라(色羅), 문라(紋羅)가 많이 있었다.

「고려도경」에는 자라(紫羅), 청라(靑羅), 강라(絳羅), 자문라(紫文羅), 문라(文羅), 홍문라(紅文羅), 향羅 등 다양(多樣)한 라의 종류가 나타나 있다. 라는 왕의 복식(服飾), 관복(冠服), 국상복(國相服), 근시복(近侍服), 종관복(從官服), 향현복(鄉賢服), 조관복(朝官服), 번홍위좌우친위군(幡興威左右親衛軍)의 포(袍), 상육(上六軍衛中檢郎將)의 건(巾), 관부문위교위(官府門衛校慰)의 의복(衣服), 영군랑장기병(領軍郎將騎兵)의 저포(戰袍), 영병사기장군(領兵上騎將軍)의 의복(衣服), 진사(進士)의 의복(衣服), 단인(丹人)의 두건(頭巾), 민서여자(民庶女子)의 속발(束髮), 방자(房子)의 두건(頭巾), 여기(女騎)의 몽수(蒙首)등 그 용도가 다양하다. 「고려도경」에 문라(文羅)가 극히 좋은 것이 제조된다고 하였는데 고려에서는 특히 라(羅)가 공교하게 제조되었던 것으로 본다.

고려시대의 라에 대하여는 오늘날 동국대학교박물관(東國大學校博物館)에 문수사불복장유물(文殊寺佛腹藏遺物)과 온양민속박물관(溫陽民俗博物館)에 아미타불복장유물이 유품(遺品)으로 다양하게 소장되어 있어 고려시대에 사용되었던 라의 실상이 나타나고 있다. 第三章 遺物調査報告(遺物調査報告) 견직물(絹織物) 부문(部門)에 그 제조양식을 명기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송(宋)의 회사품중(回賜品中)에 색화라(色花羅)(명황(明黃), 남황(藍黃), 천분홍(淺粉紅), 심분홍(深粉紅), 행황(杏黃), □황(□黃), 천색(淺色), 매홍(梅紅), 자(紫), 운벽(雲碧)가 一百匹이 고려에 들어온 것이 있다.⁸⁴⁾ 색화사(色花紗)도 색화라(色花羅)와 같은 종류의 색으로 된 것이 五百필(匹)이 들어왔다. 사(紗)가 라(羅)의 5배(倍)가 들어온 것이다. 송(宋)의 사(紗)와 라(羅)는 색(色)은 같고 익직(溺職)되는 양식(樣式)은 각기 판이(判異)하였던 것으로 본다. 중국(中國)에서 사(紗)가 방공사(方空紗)가 아닌 익경사직(溺經絲織)으로 보고된 것은 「금□남송주유묘(金□南宋周瑀墓)」에서 발견된 소사(素紗), 화사(花紗)가 있다.⁸⁵⁾ 소사(素紗)는 ‘一叫(絞)一的基本絞紗組織’이라고 하였다. 곧 두올이 경사가 일조(一組)가 되어 지경사(地頸絲), 익경사(溺經絲)가 익경(溺經)되어 된 사(紗)이다. <그림 11>

화사(花紗)는 ‘구문화사(矩紋花紗)’ <그림 12>가 있는데 ‘一紋一紗組織爲地 平紋爲花の大提花織物’이라고 하였다. 곧 소사(素紗)의 지(地)에 문(紋)은 평직(平織)이라고 한 것이다. ‘진지화회사(纏枝花卉紗)’ <그림 13>도 있는데 그 제조양식이 “구문화사(矩紋花紗)와 같다고 하였다. 라(羅)는 동묘(同墓)에서 출토되어 조사되었는데 소라(素羅) <그림 14>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한다. 화라(花羅)는 <그림 15>와 같다고 하였다. 화라(花羅)에는 경사가 4올이 일조(一組)가 된 것과 3올이 일조(一組)가 된 것이 있다. 3올이 일조가 되어 익경된 화라(花羅)는 ‘纏枝牡丹花羅’로 명명된 문양(紋樣)으로 <그림 16>과 같은 것이 있다. ‘地組織以三根經□爲一組 一根糾經 兩根地 經同穿一筵’라고 설명하였다. 경사 4올이 일조가 되어 익경된 것은 ‘兀何花羅’라고 명명된 <그림 18>과 같은 문양(紋樣)으로 된 것인데 <그림 15>와 같이 익경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화라(花羅)는 문(紋)은 <그림 19>, 지(地)는 <그림 14>와

84) 「高麗史」, 文宗 二年(1078)

85) 鎮江市博物館, 「金□南宋周瑀」, 『考古學報』, p.123, 第I期,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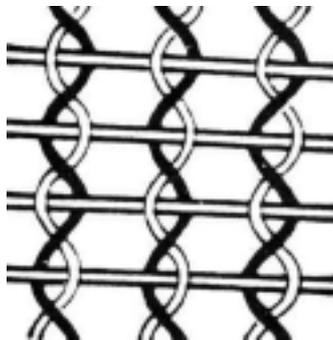
같이 익직된 것이 복합된 것이다. 송(宋)에서 고려에 들어온 회사품(回賜品)에 기록된 색화사(色花紗)와 색화라(色花羅)도 「금□남송주유묘 (金□南宋周瑀墓)」에서 출토(出土)되어 조사된 양식(樣式)에 준(準)하여 생각하게 될 것 같다.

고려시대 불복장유물의 익직물(溺織物)에는 2올의 경사가 일조(一組)가 되어 익경되어 지(地)를 이루고 평직으로 문(紋)을 이룬 것, 3올의 경사가 일조(一組)가 되어 평직으로 문(紋)을 이룬 것, 4올의 경사가 일조(一組)가 되어 익경된 것과 2올의 경사가 일조가 되어 익경된 것이 복합된 것등 다양한 것이 있다. 다양(多樣)한 익직물(溺織物)에 대하여는 第三章에서 각기 확대사진으로서 분류하여 명명하였다. 3올의 경사가 익경된 것은 오늘날의 직물조직화(織物組織學)에서 변화사직(變化紗織)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고려시대는 라(羅)로 분류된 것이 타당한 것 같다.

(8)기(綺)

「고려도경(高麗圖經)」 권(卷)二十四에서는 채여(采與)에 ‘繽錦綺五色間錯’으로 화교(華巧)하게 제작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卷一에는 태조(太祖) 원년(元年)(918)에 왕(王)의 사여품중(賜與品中)에 금수기릉백(錦繡綺綾帛)등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卷二十二에서는 궁중(宮中)에 적(籍)을 둔 관기(官妓), 가무가(歌舞者)의 의복(衣服)이 라기(羅綺)였다고 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는 공주의 수레장식으로 기(綺)가 사용된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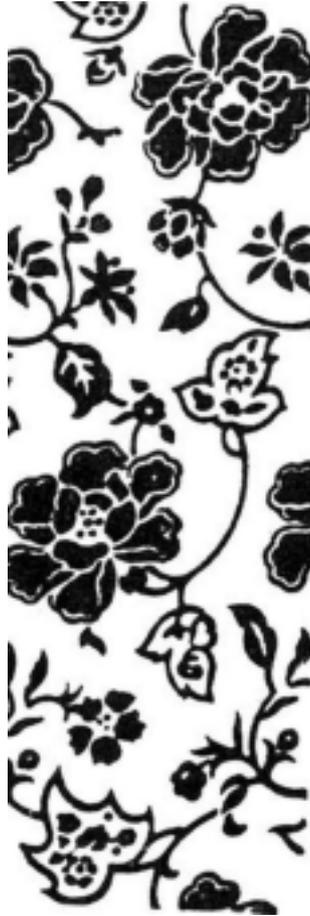
금기(錦綺)는 송제(宋帝)가 고려에 사(賜)한 품목(品目)으로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卷)5, 권(卷)40에 나와 있다. 卷二十三에는 원(元)나라에서 고려에 사여된 것과 권(卷)3 현종(顯宗) 3년(1012)에 제도(諸道)의 금기잡직(錦綺雜織), 갑방(甲坊)의 장인(匠人)들을 감원하고 농사에 종사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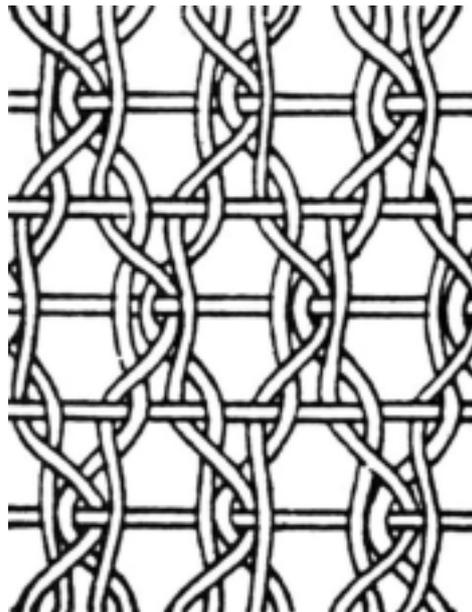
<그림11> 소사(素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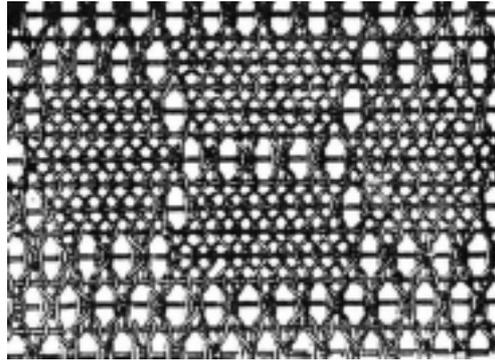
<그림12> 구문화사(矩紋花紗)



<그림13> 전단화훼사(纏枝花卉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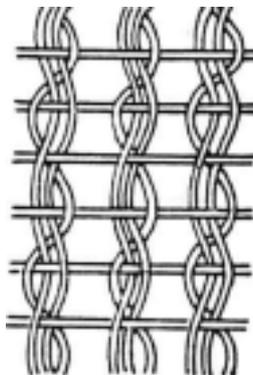
<그림14> 소라(素羅) 조직(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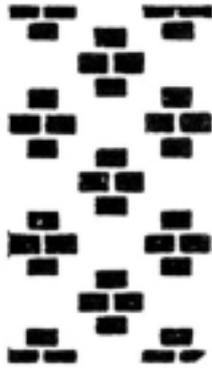
<그림15> 화라(花羅)조직(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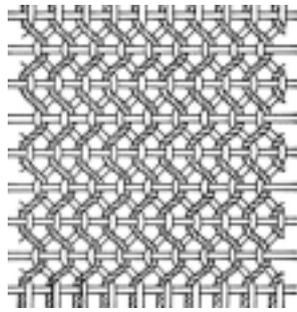
<그림16> 화라(花羅) (전지모란화라(纏枝牡丹花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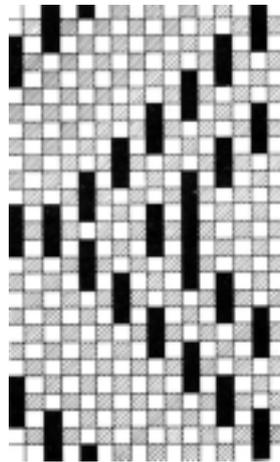
<그림17> 화라(花羅)



<그림18> 화라(花羅)



<그림19> 화라(花羅)의 문(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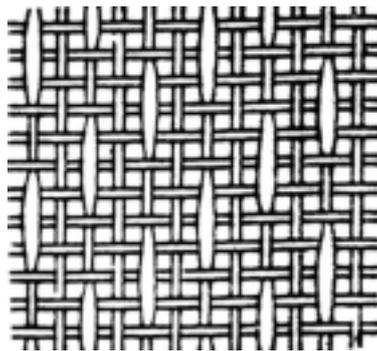


<그림20> 자의(恣衣)의 조직(組織)

이상과 같은 문헌기록에 의하여 고려에서는 기(綺)가 널리 사용되고 제작되었으며 송(宋), 원(元)에서 수입되기도 한 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고려의 기(綺)가 어떤 조직양식으로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통일신라시대의 직관(職官)에 기전(綺典)이 있었으며 이 기전(綺典)은 경덕왕(景德王)때 별금방(別錦房)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기전(綺典)으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기(綺)는 별금(別錦)에 해당되는 문직물(紋織物)이었다는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별금(別錦)이 어떤 조직의 양식인가에 대하여는 알길이 없다. 다만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미타불복장유물중에 자의(恣衣)의 직물(織物)의 조직을 필자가 조사한 결과 조직이 <그림 20>과 같이 되어 있었다.

「금□남송주유묘(金□南宋周瑀墓)」에서 출토(出土)된 ‘방형소화기(方形小花綺)’로 명명된 기(綺)가 보고되고 있다. 이 기(綺)의 조직(組織)양식은 아미타불복장유물중의 자의(恣衣)의 직물(織物)의 조직양식과 같다. 이 조직양식은 중국(中國)의 하정(夏鼎)이 ‘한식조직기(漢式組織綺)’라고 명명한 조직양식과도 유사성이 있다. 다만 한식조직기는 경사 2올에 위사 1올이 평지경부문으로 되었고 남송(南宋)과 고려(高麗)의 조직양식은 한올의 경사와 한올의 위사가 평지경부문으로 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자의(恣衣)의 직물(織物)이 고려(高麗)에서 제직된 것인지 원(元)에서 수입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판별되지 못하였다. 다만 중국 지역에서 하정(夏鼎)이 발표한 한식조직기(漢式組織綺) 이후 당대(唐代), 송대(宋代)에는 평지능문(平地綾紋), 평지부문(平地浮紋)의 직물(織物)을 기(綺)라고 보고하고 있다. 문헌상에 기(綺)는 능(綾)보다 더 일찍 나타나았으나 당대(唐代)에 이르러서는 기(綺)보다 능(綾)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북조(北朝)에서 수(隨), 당(唐)때에는 지(地)는 평조직(平組織)이고 문(紋)은 경사문(經斜紋)정도의 조직양식으로 된 직물(織物)을 기(綺)로 보았는데 당대(唐代) 이후 차차 이것을 평지능문능(平地綾文綾)으로도 보기 시작한다.



<그림 21> 소능(素綾) 조직(組織)

「금□남송주유묘(金□南宋周瑀墓)」 보고서에서 <그림 21>과 같은 조직양식으로 된 것을 ‘소능(素綾)’이라고 하나 이것은 기(綺)의 일종류(一種類)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다만 직물(織物)의 표면(表面)이 사문적(斜紋的)이어서 소능(素綾)으로 개인적으로 명명(命名)한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日本)에서도 평지부문(平地浮紋), 평지능문(平地綾紋)을 평지부문능(平地浮紋綾), 평지능문능(平地綾紋綾)으로 분류하는 경향이다.⁸⁶⁾

능(綾)과 기(綺)를 유별(有別)하는 방법으로 문양(紋樣)을 제직하는 문경(紋經)이 지경(地經)의 반수(半數)가 될 때 기(綺)가 된다는 설(設)⁸⁷⁾도 있어 흥미롭다. 아미타불복장중의 자의(紫衣)는 평지경부문(平地經浮紋)이며 문경(紋經)이 지경(地經)의 반수(半數)가 된다. 이와 같은 관점을 종합할 때 ‘평지부문능(平地浮紋綾)’인 문능(紋綾)보다는 ‘기(綺)’로서 명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사용된 기(綺)의 일종(一種)으로서 볼 수 있다.

86) 西村兵部, 『紋織の系譜(紋織-I)』, p.2, 藝草堂, 1975.

87) 服裝文化協會編輯集, 『服裝文化』 No. 168, p.75, 文化出版局(日本 東京), 1980.

(9)금(錦)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액정원(掖庭院)과 잡직서(雜織署)에 금장(錦匠)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려에서는 금(錦)을 제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헌(文獻)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금(錦)은 견(絹), 모(毛) 두 종류가 있었다. 고려의 금(錦)은 동여진(東女眞) 송(宋), 진(晉) 등지에 조공형식(朝貢形式)으로 교역품(交易品)으로 사용되었다. 홍금(紅錦), 전백금(全白錦), 전청금(全靑錦), 구금(具錦), 계금(鬪錦) 등이 교역품(交易品)으로 사용된 금(錦)이다.⁸⁸⁾ ‘홍지금은선직성화조계금(紅地金銀線織成花鳥鬪錦)’으로 명명된 계금(鬪錦)으로 한과사요(捍膀四腰)를 제조하여 오대후진(五代後晉)에 보낸 기록이 있다.⁸⁹⁾ 『고려도경(高麗圖經)』 권(卷)11에서는 구문금(毬文錦)이 용호좌우친위군장포(龍虎左右親衛軍將袍)와 친위기두포(親衛旗頭袍), 친호좌우친위군포(新虎左右親衛軍袍)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구문금(毬文錦)은 모(毛)로 된 문금(紋錦)이다.

고려시대에는 진(晉), 송(宋), 원(元), 명(明)에서 각종(各種) 직물(織物)이 고려에 들어왔고 그 중에는 금(錦)과 그 제품(製品)이 많다. 『고려사(高麗史)』 卷二에 의하면 진(晉)에서 자사조연홍금장배책갑(紫絲條聯紅錦裝背冊匣), 나화홍금탁(나環紅錦탁) 친책(襯冊) 등이 들어왔다. 동서(同書) 卷九에는 송(宋)에서 홍금대(紅錦袋)가 들어온 기록이 있다. 또 선조천하낙훈문, 잡화훈문, 합라운안세, 반술안세, 찬안운지세, 족사금일대취모사자대, 황사仙組天下 樂暈文, 雜花暈文, 合羅雲鴈細, 盤述鴈細, 欖鴈雲地細, 簇四金鴈大翠毛獅子大, 黃獅자대잡색천

子大雜色川 등으로 명명된 금(錦)등도 들어왔다. 동서(同書) 卷二十六에는 원(元)에서 서금(西錦)을 보내왔다고 하였다. 서금(西錦)은 위금(緯錦)(Samit)이다. 卷二十八에는 중금(重錦)도 보내왔다고 하였다. 卷七十二에서는 명(明)에서 백관제복(百官祭服)으로 자금(紫錦), 녹금(綠錦), 적금(赤錦)을 보내왔다고 하였다. 「익제집(益齊集)」에는 천자(天子)가 보낸 관금(官錦)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상과 같이 고려의 금(錦)에는 고려에서 금(錦)과 수입(輸入)된 각종금(各種錦)이 있다. 금(錦)의 세계적(世界的)인 제직사상(製織史上)에서 볼 때 고려시대(高麗時代)는 위금(緯錦)이 많이 제직된 시대(時代)이다. 화려한 위금(緯錦)의 발전(發展)과 더불어 경금(經錦)은 상대적으로 제직량이 줄어들었으며 위금의 전성기에는 그 제직량이 극히 적어져 쇠미하여 졌다. 위금(緯錦)도 주자문직(朱子紋織)의 단(緞)이 출현(出現)하자 제직량이 줄기시작하여 결국에는 쇠미하여 졌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금(錦)의 유품(遺品)이 발견되어 조사된 바가 없다. 그리하여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에서 발견 조사된 금(錦)을 참고하여 그 조직(組織)과 문양(紋樣), 색채(色彩)를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제직된 금(錦)을 조사 연구하기에 앞서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의 금(錦)의 분류(分類)와 명명(命名)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금(錦)의 조직적(組織的) 분류(分類)와 명명(命名)에 대하여 고찰(考察)한 바가 있다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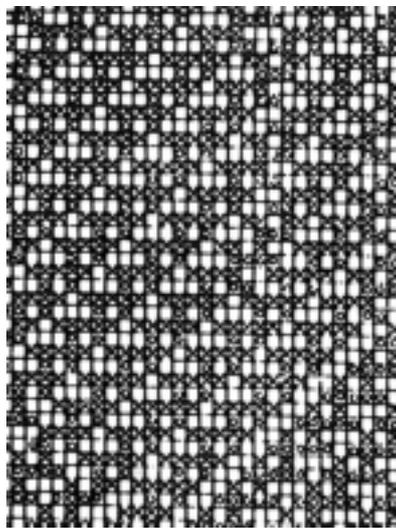
금(錦)의 조직적(組織的) 명명(命名)은 다음과 같이 가칭(假稱)하였다.

88) 『高麗史』, 卷二, 卷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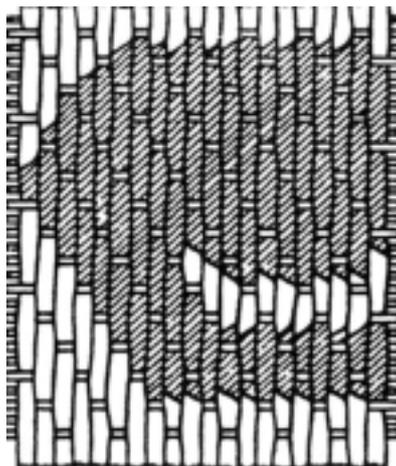
89) 『高麗史』, 世家 惠宗 二年條

90) 閔吉子, 「韓國傳統織物の 組織에 대한 考察 I (錦綺의 組織的 分類와 命名)」, 『국민대학교 교육논총』, 제10집, pp.97-123, 1990.

이것은 이색(二色)이 일조(一組)가 되어 중조직(重組織)으로 제직되는 경금(經錦)이다. 중국(中國)의 하정(夏鼎)은 이것을 경선기화적평문중조직금(經□起花的平紋重組織錦)의 이색채금(二色彩錦)⁹¹⁾이라고 하였고 일본(日本)의 서촌병부(西村兵部)는 복양평조직경금(復樣平組織經錦)⁹²⁾이라고 하였다. 중조직평직경금(重組織平織經錦)은 일조(一組)가 되는 색채수에 따라서 경이중(經二重), 경삼중(經三重)...조직경금(組織經錦)으로 분류(分類)하였다. 이것은 경금의 일조가 경사의 색수로서 명명된 것이다. 중조직능직경금(重組織綾織經錦)은 <그림24>와 같은 조직으로 경위사가 <그림 25>와 같이 지문(地紋)이 능조직(綾組織)으로 제직되는 금(錦)이다. 이 금(錦)을 하정(夏鼎)은 중조직사문경금(重組織斜紋經錦)이라고 하였다.⁹³⁾ 서촌병부(西村兵部)는 복양능조직경금(復樣綾組織經錦)이라고 하였다.⁹⁴⁾



<그림24> 중조직능직경금(重組織綾織經錦) 조직(組織)



<그림25> 중조직능직경금(重組織綾織經錦) 경위사(經緯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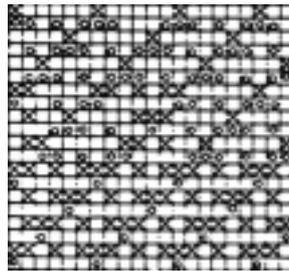
91) 夏鼎, 『新疆新發現의 古代絲織品一綺, 錦和刺繡』, 『考古』, 1963

92) 西村兵部, 『紋織の系譜(紋織-II)』, p2, 藝草堂,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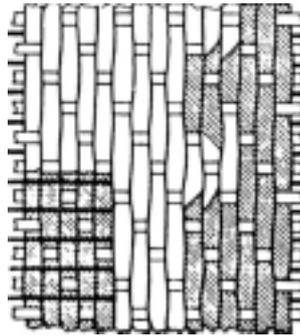
93) 註 91)과 同

94) 註 92)과 同

위금(緯錦)에 있어서는 중조직평직위금(重組織平織緯錦)은 곧 위사(緯絲)로 지문(地紋)을 제직하되 그 조직(組織)이 평직(平織)인 것인데 극히 보기 드문 양식(樣式)이다. 보통 위금(緯錦)은 중조직능직위금(重組織綾織緯錦) 곧 지(地)와 문(紋)을 위사(緯絲)수색(數色)이 일조(一組)가 되어 중조직(重組織)으로 조직되어 제직되는 금(錦)이다. <그림 26>과 같은 조직으로 경위사가 <그림 27>와 같은 제직양식으로 제직된 금(錦)이다. 하정(夏鼎)은 위선기 화적사문중조직적직금(緯□起花的斜紋重組織的織錦)이라고 하였고,⁹⁵⁾ 서촌병부(西村兵部)는 복양능조직위금(複樣綾組織緯錦)이라고 하였다. 필자가 분류, 명명한 것을 필자(筆者)의 가칭(假稱)이다.



<그림 26> 중조직능직위금(重組織綾織緯錦) 조직(組織)



<그림 27> 중조직능직위금(重組織綾織緯錦) 경위사(經緯絲)

전형적인 금(錦)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분류(分類)한 종류의 범위 안에 있다. 이와같은 분류(分類)는 금직물(錦織物)의 조직적(組織的) 분류(分類)이다. 그러나 금(錦)에는 여러 가지로 변칙적(變則的)인 종류도 많다. 전형적인 금(錦)으로서는 경금(經錦)에 중조직평직경금(重組織平織經錦)으로 일조(一組)(이색(二色) 또는 삼색(三色))의 경사(經絲)와 평조직(平組織)을 하는 위사(緯絲)와 지(地)와 문양(紋樣)을 표출(表出)시키는데 사용되는 위사(緯絲)가 있어, 지(地), 문(紋)이 평조직으로 조직되어 금(錦)을 제직한 것이다. <그림 22>와 같은 것이다. 금 중에서 가장 일찍 제직된 것이다. 중조직능직경금(重組織綾織經錦)은 중조직평직경금(重組織平織經錦)과 같은 이종(二種)의 위사(緯絲)로 조직되는 것인데 단지 다른 것은 지(地), 문(紋)이 삼매릉직(三梅綾織)으로 조직되어 금(錦)을 제직하는 것과 같은 조직으로 제직된 금이다. <그림 24> 위금(緯錦)으로서 전형적인 것은 중조직능직위금(重組織綾織緯錦)이다. 지(地), 문(紋)이 능직(綾織)으로 제직되는 금이다. 이 위금(緯錦)은 원칙적으로 일조(一組)의

95) 註 91)과 同

위사(緯絲)와 조직(組織)으로 조직되어 지(地)와 문(紋)을 제직하는 경사(經絲)와 문양(紋樣)을 표출(表出)시키는데 작용되는 경사(經絲)가 있어 지문(地紋)이 능조직(綾組織)으로 제직되는 금(錦)이다. <그림 26>과 같이 조직되는 금(錦)이다. 위금(緯錦)에 중조직평직위금(重組織平織緯錦)이 있기는 하나 지(地)와 문(紋)이 평조직(平組織)으로 되어 능조직(綾組織)으로 된 것 보다 직물표면(織物表面)에 광택이 적어 덜 화려하기 때문에 별로 선호되지 않은 듯하며 유품(遺品)으로 남아 있는 것도 드물다. 이 위금(緯錦)도 2종류의 경사와 일조의 위사가 조직되어 지(地), 문(紋)을 제직하는 방법은 중조직능직위금(重組織綾織緯錦)과 같다.

그런데 금(錦)에는 이와같은 전형적인 금(錦) 이외에도 변칙적(變則的)인 금(錦)이 많다. 제직사(製織絲)의 소재(素材)에 따라서 금편사(金片絲), 은편사(銀片絲)가 직입(織入)된 경우 직금금(織金錦), 직은금(織銀錦) 또는 금란(金欄), 은란(銀欄)으로 명명(命名)된 금이 있으며 그 제직양식(製織樣式)에 있어서 조직(組織)이 전형적인 금(錦)과는 판이하다. 직금금(織金錦)에 대하여는 第三章에서 고려시대의 유품(遺品)을 실례로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당(唐)나라에서 직성(織成)이라고 한 직성금(織成錦)과 일본(日本)에서 칠직(綴織)이라고도 하고 칠금(綴錦)이라고 한 것은, 그 지(地)와 문(紋)을 연결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다르게 명명되어 금(錦)의 일종(一種)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금(錦)과는 직금금(織金錦)보다 더 거리가 먼 것이다.

다음으로 평지(平地)에 부문(浮紋)된 평지부문금(平地浮紋錦)과 능지(綾地)에 부문(浮紋)된 능지부문금(綾地浮紋錦)이 있다. 금문(錦紋)이 평직(平織), 능직(綾織)에서 부문(浮紋)으로 변화된 금(錦)이다. 또 외관상으로는 문능(紋綾)과 같이 보이나 문능(紋綾)으로 보기에 조직적(組織的)으로 맞지않아 금(錦)으로 명명(命名)되는 종류가 있다. 곧 능(綾)인 듯, 금(錦)인 듯한 문직물(紋織物)이다. 이런 종류의 금(錦)은 일본(日本)의 ‘茶地鳥獸花卉文錦’ 또는 ‘茶地花樹鳥獸文錦’ 등으로 명명된 것으로 조직은 삼매경능(三枚經綾)으로 지(地)를 조직하고 육매능(六枚綾)의 문위(紋緯)로 문양(紋樣)을 조직하여 제직한 특수한 조직의 금(錦)이다. 지(地)와 문(紋)을 같은 조직으로 조직하여 제직한 위금(緯錦)과는 조직상(組織上) 외관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조직의 금(錦)이다. 이 금(錦)에는 또 지(地)와 문(紋)을 표출(表出)시키는데 작용되는 경사(經絲)가 없다. 금(錦)은 금(錦)이며 금중(錦中)에서 경금(經錦)보다 위금(緯錦)쪽에 가까운 금(錦)이면서도 전형적인 경금(經錦)의 필수조건인 두 종류의 경사(經絲)중에서 한 종류의 경사가 생략되어 전형적인 위금보다 두께가 얇고 촉감이 부드러운 금(錦)이다.

필자(筆者)가 조사한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직물중(織物中)에서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아미타불목장중의 직물중(織物中)에 지조직(地組織)은 삼매경능(三枚經綾)이고 문조직(紋組織)은 육매위능(六枚緯綾)으로 조직된 문직물(紋織物)이 있다. 경사(經絲)는 녹색(綠色)이고 위사(緯絲)는 회색과 황금색 두종류이다. 회색위사는 녹색경사와 삼매지능조직으로 조직되어 지(地)를 제직하고 황금색위사는 직금금(織金錦)을 제직할 때의 조직과 유사하게 위사(緯絲)가 일월(一越)하여 녹색경사와 육매능직(六枚綾織)으로 조직되어 문(紋)을 제직하였다. 경사(經絲)는 한 종류(지경(地經))만 있고 문위(紋緯)로 문양(紋樣)을 조직할 때 지익(地擲)으로 조직(組織)하였다. 그리하여 직물(織物)의 뒤인 이면에는 문위(紋緯)(중위(縉緯))가 경사와 조직되어 얇고 떠 있다. 그런데 다만 지(地)의 경능(經綾)은 좌능(左綾)이고 문(紋)의 위능(緯綾)은 우능(右綾)이다. 이점에서 일본(日本)의 ‘다지조수화훼문금(茶地鳥獸花卉文錦)’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직물(紋織物)이 직금금(織金錦)의 일종류(一種類)의 양식(樣式)과 같고 또 통일신라의 금전(錦田)이 경덕왕(景德王)(742-765)때 직금방(織金房)으로 명명되어 직금(織金)을 제직하였다는 점등을 참조하여 전형적인 금보다 얇고 가볍고, 부드러운

금(錦)이 오히려 선호되어 사용되어 제작되었던 것이라고 보고 이 문직물(紋織物)을 ‘綠地蔓草花紋錦’이라고 명명하여 금(錦)으로 분류하였다.

주황지(朱黃地)에 황금색(黃金色)으로 직문(織紋)된 문직물(紋織物)로 온양민속박물관의 아미타불복장유물중의 문직물(紋織物)(DB-147)도 별종(別種)의 금(錦)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錦)은 주자문직(朱子紋織)인 화려한 단(段)(단(緞))의 출현(出現)으로 차차 쇠퇴되어 갔는데 직금금(織金錦)은 그 화려함이 단(段)과는 또 다른 아취(雅趣)가 있어 계속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의 직물유품중에 직금(織金)이 많은 것은 고려인들이 이 아취를 즐겼음을 보여 준다.

(10) 단(段)

단(段)은 단(緞), 단자(緞子)라고도 한다. 고려에서 단(段)의 용도는 왕(王)의 하사품(下賜品), 공경피복(公卿被服), 백관헌납품(百官獻納品) 등이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고대(古代) 후진(後晉)에 보낸 단(段)으로서 ‘紅地金銀五色線織成日月龍鳳襖段’이 있다. 홍지(紅地)에 금은오색선(金銀五色線)으로 직성(織成)한 용봉문(龍鳳紋)의 오단(襖段)이라는 뜻이다. 직성(織成)은 제직을 뜻하며 문직물명(紋織物名)으로서의 직성(織成)이 아니다. 이것은 모금(毛錦)과 더불어 고려의 특산인 것 같다.

단(段)은 주사(注絲)(走絲), 저사(紵絲)라고도 한다. 주자문직물(朱子紋織物)이다. 단(段)은 경주자직(經朱子織)을 지(地)로 하고 위주자직(緯朱子織)을 문(紋)으로 하여 조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자조직(朱子組織)이 언제 어느지역에서 제작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1969년 신강(新疆)의 도루관 아스타나 지구(地區) 第381號墓에서 출토(出土)된 금화(錦靴)의 바닥에 주자직물(朱子織物)이 깔려있다는 보고가 있을뿐이다.⁹⁶⁾

그리고 중국송대(中國宋代)의 홍호찬(洪皓撰) 「송막기문(松漠紀聞)」에 ‘주사(注絲)⁹⁷⁾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원(紀元) 12세기(世紀)에 중앙아세아에 세력을 펴고 있던 위글인(人)이 황하상류(黃河上流)의 서하(西夏)를 넘어 전국(全局)으로 가져온 직물(織物)의 이름인데 이것을 주자직물(朱子織物)로 보고 있어 12세기 정도에는 주자직물이 있었다고 보는 경향이다. 주자직물의 기원에 대하여는 서역의 페르시아 또는 동역의 중국지역으로 이원적(二元的)으로 생각하나 확실한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卷二十一에는 충열왕(忠烈王) 23년(1297)에 원(元)에서 고려의 종신(從臣)에서 금단(金段)을 사(賜)한 기록이 있다. 금단(金段)은 금사(金絲)가 직입(織入)된 단(段)이다. 중국(中國) 한 대(漢代)의 「감철논(監鐵論)」에는 금루(金縷)로 제작된 것은 대하(大夏), 대진(大秦)의 외래품(外來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원(紀元) 7세기경(紀元前)에는 중국(中國)에서도 금사(金絲)로 직물(織物)이 제작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신라 경덕왕(景德王)때 (742-765)에 직금(織金)곧 금사(金絲)로 금(錦)을 제작하였으니 직물제작(織物製織)에 있어서 선진적(先進的)이었던 것이 나타난다. 동서(同書) 卷三 에도 현종(顯宗) 5년(1014)에 송(宋)나라에 ‘金綿織成龍鳳鞍幪’을 고려에서 보낸 기록이 있다. 중국(中國)의 원대(元代)에는 단(段)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고려에 원(元)으로부터 단(段)이 수입되고 고려에서는 모직물이 원(元)에 수출되었다고 한다.⁹⁸⁾ 그러나 고려시대의 직물 유품에서 단(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단(段)은 금(錦)보다 화려하여 단(段)의 발달과 더불어

96) 北村哲郎, 「文織の系譜(紋織-III)」, p.96. 藝草堂, 1973

97) 註 86)과 同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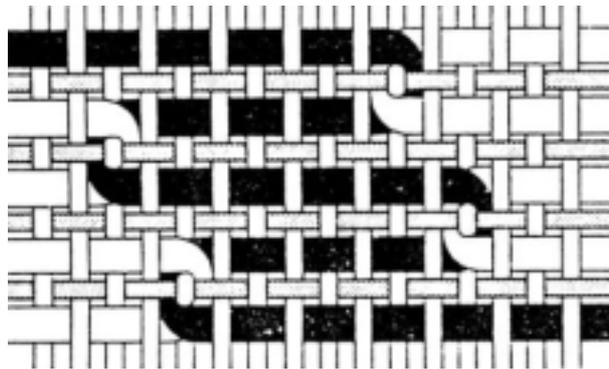
98) 『原色染織大辭典』, p.702, 淡交社(日本), 1977.

어 금(錦)의 제직이 쇠퇴하여 갔다. 그러나 직금금(織金錦)은 계속 제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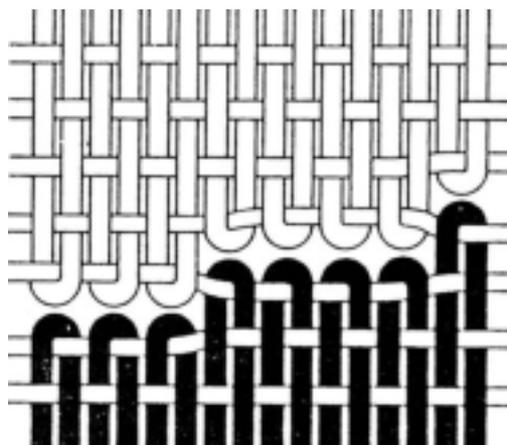
(1) 직성(織成)

『고려사(高麗史)』⁹⁹⁾에는 ‘紅地金銀五色線織成日月龍鳳燠段’을 후진(後晋)에 보낸 기록이 있다. 그리고 ‘紅地金銀線織成龍床褥’도 보냈다. 전자(前者)는 홍지금은선(紅地金銀線) 곧 홍지(紅地)에 금은사(金銀絲)로 일월용봉(日月龍鳳)을 직문(織紋)하여 제직(製織)한 오단(燠段)이라는 뜻으로 본다. 후자(後者)는 홍지(紅地)에 금은사(金銀絲)로 제직한 직성(織成)이라고 보아도 되게 직물명이 명명되었다.

직성(織成)은 당(唐)나라의 문헌에도 있어 우리나라와 중국(中國)에서 그 명명이 같았던 것이 나타난다. <그림 28> 직성(織成)은 타피스리(Tapestry weave)의 일종(一種)으로서 일본(日本)에서 칠(綴) 또는 칠금(綴錦)<그림 29>이라고 명명한 것과는 지(地)와 문(紋)을 연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 제직양식은 서(西)아시아지역에서 발달되어 이집트의 고프트직(織)에 많이 사용된 제직양식이다.



<그림 28> 직성(織成)



<그림 29> 칠직(綴織)

99) 『高麗史』, 世宗 惠宗條

(2) 난(欄)

난(欄)은 금(金), 은(銀)의 편사(片絲)(平絲), 연사(撚絲)를 직입(織入)한 문직물(紋織物)이다.

고려시대에는 동사(銅絲)도 금사대신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니 금란(金欄), 은란(銀欄), 동란(銅欄)으로 유별(類別)된다. 고려시대의 불복장유물중에 난류(欄類)가 많다. 편금사(片金絲)를 사용한 것인데 한지(韓紙)에 금(金), 은박(銀箔)을 하여 가늘게 잘라서 만든 것이다. 연금사(撚金絲)를 심사(芯絲)에 금은박(金銀箔)의 편사(片絲) 또는 평금사(平金絲)를 말아서 만든 것이다. 난(欄)의 지조직(地組織)은 평직(平織), 능직(綾織), 주자직(朱子織)으로 되어 다양하다. 원래 난지(欄地)는 삼매능직(三枚綾織)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직물조직이 널리 응용되어 후대(後代)에는 금편사(金片絲), 금연(禁煙)사가 직입(織入)된 직물(織物)은 모두 난(欄)이라고 하였다.

(13) 소금(銷金)

고려(高麗)에서 송(宋)나라에 보낸 물목(物目)을 전하는 중국측(中國側)의 문헌(文獻)인 『송대조령집(宋大詔令集)』 100에 의한면, ‘賜進奉回書’, ‘賜進奉太皇太后物回書’, ‘賜謝恩進奉回書’등에 각종진봉물목중(各種進奉物目中)에 ‘紅羅銷金畫複裏’가 있다. 소금(素琴)은 라지(羅地), 사지(紗地), 능지(綾地)또는 기타 직물에 호(糊)또는 교(膠)등 접착제로 금박을 압인(押印)한 것이다. 「송사(宋史)」도파국전(도파국傳)에는 그 지역의 염직물중 소금(銷金)이 나온다. 송(宋)나라에서 파견된 사신에게 헌납한 것이다. 도파국(도파국)은 10세기경부터 그 후 반까지 동남아세아의 자바도(島), 발리도(島) 등 부근에서 번영하였던 왕국(王國)이다.

소금(銷金)은 10세기경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주위지역에서도 제조되었다. 일본(日本)에서는 인금(印金)이라고 하는데 고려인금(高麗印金)이 있다고 한다. 금박기교는 일찍이 인도(印度)의 김화포(金華布)(김(金)사라사)로서 일찍이 알려졌다. 금채포(金彩布)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와같은 것이 사용된 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잡지(雜誌)의 색복조(色服條)의 기록에 의하여 ‘金銀泥纈纈’등으로 알려져 일찍이 제조, 사용된 것이 나타난다. 고려의 고분벽화도 댕기에 금박이 된 것이 나타나 일찍이 사용된 것이 나타난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 금니(金泥)는 일본(日本)으로 전과되었다.

第6節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직물(織物)

1392년 건국된 조선왕조(朝鮮王朝)는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차차 독자적 체계를 갖추어 성종(成宗) 5년(1474)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영포(領布)하여 조선왕조 500년을 이끈 제반제도의 기반(基幹)을 세워 건국초기(建國初期)에 이미 문화적(文化的) 황금시대(黃金時代)를 이루었다. 대외적(對外的)으로는 명(明), 여진(女眞), 왜(倭), 조와(爪哇)(자바), 섬라(暹羅)(삼, 지금의 태국(泰國))등과 교린(交隣)하여 문물(文物)이 교류(交流)되었다.

연산군시대(燕山君時代)의 당쟁적(黨爭的) 사화(士禍)와 왜란(倭亂)으로 혼란기가 되었고 광해군(光海君) 이후 명청(明清)의 세력이 교체(交替)되는 여파(餘波)로 호란(胡亂)을 겪게 되

100 『宋大詔令集』, 卷二三七, 賜權知高麗國王事王徽起居回書(熙寧 七年八月)

어 제반제도가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영조대(英祖代)에 이르러 실학풍(實學風)을 이루고 중흥기(中興期)를 맞게되었으나, 정조대(正祖代)부터 일어난 서양선함(西洋船艦)과 쇠국(鎖國)과 개국(開國)의 충돌 이후 고종(高宗) 13년(1878)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으로 개국(開國)을 하게되며 급격한 근대화(近代化)의 목전(目前)에 서서 동학혁명(東學革命), 청일전쟁(淸日戰爭), 갑오경장(甲午更張)의 여파(餘波)속에서 1910년 한일합병(韓日合併)을 하게되니 조선(朝鮮)의 문물(文物)도 이에 따라 변화(變化)를 거듭하게 되었다.

1.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섬유제품제조(纖維製品製造)

1)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통하여 섬유제품제조(纖維製品製造)

조선왕조(朝鮮王朝)는 유교(儒敎)를 국시(國是)로 하는 전제군주체제(專制君主體制)로서, 신분계층(身分階層)이 뚜렷이 구분된, 정치(政治), 사회구조(社會構造)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노비(奴婢), 양인(良人)(농민(農民))이 양역(良役), 천역(賤役)을 맡아 군역(軍役)과 물납(物納)의 원천(源泉)이 되었으며, 곡물(穀物), 직물(織物) 기타 현물(現物)을 진상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역적(役的) 자산적(資產的), 자원(資源)이 되었다. 군역(軍役)은 직물(織物)(포(布))로서 대변될 수도 있었고 직물(織物)이 화폐로 통용되었으므로, 직물(織物)은 조선시대에 있어서 의류(衣類) 이상의 자원(資源)이었다. 이리하여 관노(官奴), 사노(寺奴), 사노(私奴)와 양인(良人)들이 필연적으로 직물(織物)을 생산하는 계층이 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복식(服飾)과 생활용품(生活用品)을 제조하는 공장(工匠)이 제도화되어 나타나 있다. <표 5>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나타난 복식(服飾)과 직물(織物)고 관련한 각종공장(各種工匠)이다. 경공장(京工匠), 외공장(外工匠)이 있는데 경공장(京工匠)은 중앙의 각관사(各官司)에 소속되어 왕족(王族), 귀족(貴族)들의 소용품(所用品)을 제조하였다. 외공장(外工匠)은 지방관사(地方官司)에 소속되어 있었다. 외공장(外工匠)에 소속된 복식자료 제조공장은 피전(皮典)정도이므로 표에 수합하지 아니하고 경공장의 공장만을 발췌하였다.

<표 5>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경공장(京工匠)

경공장(京工匠)	본조(本曹)	상의원(尙衣院)	군기사(軍器寺)	내자사(內資寺)	내첨사(內瞻寺)	제용감(濟用監)	전설사(典設司)
능나장(綾羅匠)		一百五					
사모장(紗帽匠)	二	四					六
다회장(多繪匠)	二	四					
망건장(網巾匠)	二	四					
모자장(帽子匠)	六	二					
잠장(箴匠)		十					
금박장(金箔匠)	二	四					
이피장(夷皮匠)	二	四					
화장(靴匠)	六	十八		二	二	二	
삼혜장(鞞鞋匠)	六十四	十八					
숙피장(熟皮匠)	四	八				二	
사피장(斜皮匠)		四					
모의장(毛衣匠)		八					
전장(氈匠)							
입사장(入絲匠)							

모관장(毛冠匠)	四	二				二	
사금장(絲金匠)	二	四					
생피장(生皮匠)		二	四				
웅피장(熊皮匠)		二					
전피장(狍皮匠)		二					
침선장(針線匠)	十	十四				二十	
합사장(合絲匠)		十					
청염장(靑染匠)		十				二十	
홍염장(紅染匠)		十				十	
세담장(洗踏匠)		八				四	
연사장(練絲匠)		七十四	二				
방직장(紡織匠)		二十		三十	三十	三十	
초염장(草染匠)	六	四				二十	

이 표를 보면 사(紗), 라(羅), 능(綾), 다회(多繪), 전(氈), 모직(毛織)이 제조되고 청염(靑染), 홍염(紅染), 혁염(革染), 금박(金箔)등과 금채문(金彩紋)의 직물(織物)이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제직(製織), 염색공장(染色工匠)은 궁중소용(宮中所用)의 직물(織物)을 제조한 공장(工匠)이다.

2) 「육전조례(六典條例)」을 통하여 본 섬유제품제조(纖維製品製造)

「육전조례(六典條例)」는 정조(正祖) 4년(1779)에 육관제사(六官諸司)의 사례(事例)를汇集(彙集)하여 十卷으로 편찬한 것이다. 卷之十 공전(工典)중의 한 부서인 영조사(營造司)의 공장(工匠)에는 삼혜장(鞞鞋匠), 피장(皮匠), 이피장(夷皮匠), 모의장(毛衣匠), 모전(毛氈)匠, 모방석장(毛方席匠)이 있고 산택사(山澤司)에는 관장(官匠), 사모장(紗帽匠)이 있다. 또 상의원(尙衣院)이 있어 어의대(御衣櫛)와 내부재화금보(內府財貨金寶)등을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의대색(衣櫛色), 교자색(轎子色), 직조색(織造色), 금은색(金銀色)등이 있다.

직조색(織造色)은 단(緞),사(紗)초, 견(絹)을 직조(織造)한다고 한다. ‘各色生絹 肩龍胸 背錦衣必緞 戶曹物力因傳校織造 毛羅以本院物力織造’라고 있다. 또한 직조색(織造色)에는 능라장(綾羅匠), 잠장(簪匠), 방직장(紡織匠), 합사장(合絲匠), 초장(綃匠), 재금장(裁金匠), 연사장(練絲匠)이 있는데 , 재금장(裁金匠)에서는 금사(金絲)를 제조하였을 것이니 직금(織金)이 제작되었을 것이다.

금은색(金銀色)에는 금박장(金箔匠), 은장(銀匠), 이피장(夷皮匠), 생피장(生皮匠), 전장(氈匠), 모의장(毛衣匠), 모관장(毛冠匠), 화장(靴匠), 온혜장(鞞鞋匠), 온혜장(鞞鞋匠), 웅피장(熊皮匠), 사피장(斜皮匠), 피장(皮匠), 화피장(靴皮匠), 입염장(入染匠), 숙피장(熟皮匠) 전피장(狍皮匠) 등이 있다.

의대색(衣櫛色)에는 사모장(紗帽匠), 유립장(儒笠匠), 관장(冠匠), 망건장(網巾匠), 모자장(帽子匠), 다회장(多繪匠), 도다익장(都多益匠), 초염장(草染匠), 홍염장(紅染匠), 청염장(靑染匠) 등이 있다. 피물(皮物)과 모물(毛物)의 제조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권지삼(卷之三) 호전(戶典)의 관별방(辦別房)의 북정(卜定)으로서 영남양호관동윤정(嶺南兩湖關東輪定)의 고모(羔毛), 산저모(山猪毛), 송도(松都)의 가저모(家猪毛)의 기록이 있고, 상의원(尙衣院)의 금은색(金銀色)에서 사용되는 양모(羊毛)에 대하여는 경상감영(慶尙監營)과 전라감영(全羅監營)에서 양(羊)을 길러서 양모(羊毛)를 상송(上送)했다고 한다. 양모전이십오부(羊毛氈二十五浮)도 매년추조(每年推造)하여 입용(入用)하게 되어있다. 관별방(辦別房)의

소관공물(小官貢物)로서 우모전단(牛毛氈單)도 있다. 정월(正月)에 2백부(百浮)를 공물(貢物)하게 되어있는데 이부(二浮)의 값이 해목일필(亥木一匹)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각종모물(各種毛物)이 국내에서 생산되어 모제품(毛製品)을 제조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권지삼(卷之三), 호조(戶曹)의 응관색(應瓣色)의 「객사지수(客使支需)」에 자적광다회(紫的廣多繪), 남광다회(藍廣多繪)가 쓰인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다회장(多繪匠)에서 제조된 것으로 본다. 회계사(會計司)의 「사전궁원공사(四殿宮元供上)」에 대전(大殿)에 공상(供上)되는 모라익선관(毛羅翼善冠), 세자궁(世子宮)의 마미두면(馬尾頭冕)이 있는데 이것도 국내의 모관장(毛冠匠)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모라(毛羅)의 제직이다.

「용하(用下)」에는 숙초직조장료(熟綃織造匠料), 초기이아등조성장료(綃機伊我等造成匠料), 백숙사연사장료(白熟紗練絲匠料), 염남능라장료(染藍綾羅匠料), 등 숙초(熟綃), 숙사(熟紗)가 제직된 것이 나타난다.

3) 「직조반기(織組伴記)」와 「직조불기」를 통하여 본 섬유제품제조(纖維製品製造)

고문서(古文書)로서 임오가례시(壬午嘉禮時) 직조(織造)를 한 건기(件記)와 시대(時代)와 용도(用途)가 밝혀져 있지않은 「질조불기」에 다양(多樣)한 문양(紋樣)으로 제직된 직금(織金)과 대란(大欄), 슬란(膝欄)의 명칭(名稱)이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에 화려한 문직물(紋織物)이 궁중소용(宮中所用)으로 제직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직조건기(織造件記)>

- 임오 가례시 직조건기 (壬午 嘉禮時 織造件記)
- 자적전자수복자 직금원삼차일차(紫的篆字壽福字 織金圓衫次 一次)
- 자적전자수복자 직금당고의차이차(紫的篆字壽福字 織錦唐古衣次 二次)
- 초록금수복자 당고의차이차(草綠金壽福字 唐古衣次 二次)
- 초록구봉직금 당고의차이차(草綠具鳳織金 唐古衣次 二次)
- 다홍전자두천만세 칠복슬란차일차(多紅篆字壽千萬世 七福膝欄次一次)
- 다홍전자두천만세 칠복대란차일차(多紅篆字壽千萬世 七福大欄次一次)
- 다홍전자수천만세 육복대란차 일차(多紅篆字壽千萬世 六福大欄次一次)
- 다홍전자수복자 칠복대란차일차(多紅篆字壽福字 七福大欄次一次)
- 다홍적자수복자 육복대란차일차(多紅篆字壽福字 六福大欄次一次)
- 다홍구봉칠복대란차 일차(多紅九鳳七福大欄次一次)
- 다홍구봉 육복대란차 일차(多紅九鳳六福大欄次一次)
- 다홍칠복용대란차 일차(多紅 七福龍大欄次一次)
- 다홍육복용대란차일차 (多紅 六福龍大欄次一次)

<직조불기>

- 다홍구봉직금원삼 일차(大紅九鳳織金 圓衫一次)
- 다홍용직금육폭대한 일차(大紅龍織金 六幅大捍一次)
- 다홍용직금칠폭대한 일차(大紅龍織金 七幅大捍一次)
- 다홍전자수복자직금 육폭대한일차(大紅篆字壽福字織金 六幅大捍一次)

대홍전자수복자직금 칠폭대한일차(大紅篆字壽福字織金 七幅大捍一次)
 대홍수천만세 직금 육폭대한일차(大紅壽千萬歲織金 六幅大捍一次)
 대홍수천만세직금 칠폭대한일차(大紅壽千萬歲織金 七幅大捍一次)
 대홍수천만세직금 칠폭슬한일차(大紅壽千萬歲織金 七幅膝捍一次)
 대홍구봉직금 육폭대한일차(大紅九鳳織金 六幅大捍一次)
 대한구봉직금 칠폭대한일차(大紅九鳳織金 七幅大捍一次)
 자적수천만세직금 칠폭슬한일차(紫的壽千萬歲織金 七幅膝捍一次)
 자적전자수복자직금 칠폭슬한일차(紫的篆字壽福字織金 七幅膝捍一次)

「직조반기(織組伴記)」에 직금(織金), 슬란(膝襪), 대란(大襪) 41점, 직조볼기에 33점의 직금(織金)과 자적향직(紫的鄉職) 21척(尺)이 제직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의 직금(織金)의 제직사(製織史)는 길고 이르기 부터이다. 통일신라(統一新羅)의 공장중(工匠中) 금전(錦典)이 경덕왕(景德王)때에 직금방(織金房)이었다고 하니 적어도 경덕왕(742-765)때부터 제직된 것이다. 직물(織物)에 금사(金絲)를 직입(織入)하는 것은 서역(西域)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전파(傳播)된 것이다. 오숙생(吳淑生)은 중국(中國)에서 금(金)을 금(錦)에 직입(織入)하는 기법(技法)은 성당(盛唐)때에 개시(開始)되어 유행(流行)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직금(織金)이 동아시아(東亞細亞)에서 얼마나 일찍 제직되었던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난다.

중국(中國)의 명대(明代)의 묘법원(妙法院)에는 ‘黃地麟鳳文縐珍袴’로 명명(命名)된 붕모란 당초문(崩牧丹唐草文)의 단자(緞子)의 지(地)에 봉황(鳳凰), 기린문(麒麟文)이 금사(金絲)와 색사(色絲)로 직입(織入)되었는데 문위(紋緯)가 직금(織金)뒤에서는 떠있는 것이다. 한 종류의 경사만이 사용된 직금(織金)이다. 여기에 딸린 포(袍)는 적운문단지(赤雲紋緞地)에 흉배(胸背), 견(肩), 요(腰)에 용문금란(龍文金襪)으로 된 것이라고 한다.

이 포고(袍袴)는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조선왕(朝鮮王)에게 받아간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다. 이 포고(袍袴)에 대하여 서촌병부(西村兵部)씨는 의보(依報)의 형식(形式)은 조선(朝鮮)의 양식(樣式)이나 생지(生地) 특히, 고(袴)의 것은 명제(明製)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일본(日本)의 실전(室田), 도산시대(桃山時代)에 일본(日本)에 전하여진 조선 칠기(朝鮮漆器), 예를들면 신내천명월원(神奈川明月院)의 칠완(漆碗)에 보이는 당초(唐草)와 그 양식(樣式)이 틀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⁰¹⁾ 그러나 경문왕(景文王)때부터 조선조말까지 대단히 화려한 직금(織金)을 제직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왕실(朝鮮王室)의 직금의류(織金衣類)가 명제(明製)로 간단하게 판명(判明)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직물(織物), 복식(服飾) 연구인(研究人)들의 재조사(再調査)를 요(要)하는 유품(遺品)이라고 본다.

4)기타문헌(其他文獻) 에 산재(散在)된 제직기록(製織記錄)을 통하여 본 섬유제품제조(纖維製品製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기타 각종 문헌에는 각종(各種) 금제(禁制)와 상소내 용으로 ‘紗羅綾緞은 本國所産이 아니니...’라는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다. 이 내용을 전제로 하여 조선시대에는 사(紗), 라(羅), 능(綾), 단(緞)이 제직되지 않았다고 속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삼국시대(三國時代)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제직(製織)되었던 극세포(極細胞), 특산주(特産紬), 금(錦), 진(氈), 문염직물(紋染織物)을 포함

101) 西村兵部, 「中國の染織」, 下卷p.1, 藝草堂(日本,京都), 1973.

한 각종 염색포(染色布), 사(紗), 라(羅), 단(緞)의 제직기술(製織技術)과 제직기구(製織器具)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아주 소멸되었다는 것이 되는데 그와같은 일은 인류(人類)의 제직사(製織史)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제직기술에 의한 직물제직은 여타의 조선시대의 제도와 고려시대의 제도를 답습하며 변화 발전하였듯이 직물제직도 답습되었고 다만 경제적인 상황으로 변화가 있었을 뿐이며 단절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태종(太宗) 16년(1416)에 단자직조읍(段子織造邑)이 설치되었던 사실이 있으니 단자직(段子織)이 제직된 것이다. 단자(段子)는 주자문직(朱子紋織)으로서 문직물중(紋織物中)에서 가장 화려한 직물(織物)이다. 그 화려함이 금(錦)을 능가하여 단(段)의 출현(出現)으로 금(錦)이 쇠퇴되기에 이른 문직물(紋織物)이다. 단(段)은 세계직물사상(世界織物史上) 중국(中國)에서 기원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당대(唐代)에 제직되어 송(宋), 원(元), 명(明)때에 오매단(五枚段)이 제직되었고 청대(清代)에 이르러 더 화려한 팔매단(八枚段)이 제직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출토(出土)되는 조선시대의 단(緞)을 필자가 조사한 결과 조선시대 전기의 단(緞)은 오매단(五枚段)이고 후기(後期)의 단(緞)은 팔매단(八枚段)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단(緞)이 많이 출토(出土)되는 것이 놀라웁다. 명(明), 청(淸)에서 수입되기도 하고 조선조 초기부터 궁중소용(宮中所用)으로 제직되기도 한 것이다. 연산군(燕山君) 9년(1503)에는 유문아청라(有紋鴉靑羅) 백라(白羅) 각(各)4필(匹)을 상의원에 명하여 짜올리게한 기록도 있어 문라(紋羅)의 제직이 계속되었음이 나타난다.

연산군(燕山君) 10년에는 통직(通織)이라는 제직관아에 감직관(監織官), 직조장(織造匠), 인문장(引紋匠), 집경장(執經匠) 집위장(執緯匠), 염장(染匠)등의 명칭이 나와 문직물(紋織物)이 제직된 것이 나타난다. 또 조선말(朝鮮末)까지 경복궁(景福宮)에 향직원(鄉職院)이 설치되어 향직(鄉職)이 제직한 것이 나타나는데 향직(鄉職)은 문단대용(紋緞代用)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향직(鄉職)은 다홍대단(多紅大緞)과 그 절가(折價)가 같게 나타나 있는 직물이다. 중종(中宗) 11년(1516)에는 부녀자(婦女子)들이 토산(土產) 필단(匹緞)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사(私私)로이 짜고 매매하는 것을 금한 기록도 있어 이와 같은 직물(織物)이 사사(私私)로이 제직되고 있었음이 반증(反證)으로 나타난다.

「일성록(日省錄)」에는 고종(高宗) 21년(1884)에 농상(農桑)과 직조(織造)에 관한 하교(下敎)가 있었던 것이 나타나고 그 후에 근대적(近代的)인 직조국(織造局)이 설립(設立)되었다. 또 1884년 6월 고종(高宗)의 명(命)으로 중국인(中國人) 2인이 항주(杭州)에서 공장(工匠)을 모집하였고 1885년 3월부터는 직물(織物)을 제직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상해(上海)에서 공인(工人) 16명을 모집하는 한편 사기(紗機) 4대를 구입하였고 9월에는 중국(中國)에서 수입한 직금기계(織錦機械) 32건(件)을 인천(仁川)에서 서울로 보낸 통기(統記)(1885. 7. 9. 1885. 9. 27)의 기록도 있다.¹⁰²⁾ 근대적(近代的)인 제직기구(製織器具)의 변화(變化)가 나타나는 것이며, 이리하여 우리나라에서 문직물제직(紋織物製織)은 계속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2.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사용된 직물(織物)

조선시대에는 마저직물(麻紵織物), 견직물(絹織物), 모직물(毛織物), 모의 축융포 「모전(毛氈)」 등이 고려시대에 이어 계속 제조되었다. 면직물(綿織物)도 태조시대(太祖時代)에 이미

102) 權泰禧, 「19C末 20C初 서울地方의 織物業」, 서울대학교대학원, pp.17-18, 1980.

일본(日本)과 교린(交隣)하여 일본(日本)에 수출되었고 이후 면직물(綿織物)이 일반화되어 국폐(國幣)로까지 사용되기에 이른다. 조선시대 저마포(苧麻布), 면포(綿布) 사용에 대한 승수제한(升數制限), 사라능단(紗羅綾緞)의 사용제한에 관한 각종 금령이 태조시대(太祖時代)부터 계속 내려져 있는 것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중에 곳곳이 나타나 있다.

태조(太祖) 3년에 사라능기각색진채(紗羅綾綺各色眞彩)를 궁중에서만 사용하라고 하였고 7년에도 ‘남아있는 풍습이 없어지지 않으니 금은(金銀), 주옥(珠玉) 진채사(眞彩絲) 화단자(花段子)을 일체 금단(禁斷)하게 한 기록이 있으니 조선시대 초기의 직물사용은 고려시대에 이어 그 화려함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태종(太宗) 12년 12월 을미(乙未)에는 서인(庶人)이 세주(細紬), 세마포(細麻布)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태종(太宗) 16년에는 잠직(蠶織)이 매우 어려우니 석자(席子)의 선을 목면(木綿)으로 대신하라고 하고 호조(戶曹)에 각전(各殿)의 석(席)의 선에 자주(紫紬)를 사용하지 말고 압두록(壓頭綠)의 칠승목면(七升木綿)을 사용하고 차일(遮日)과 사람의 자리의 선도 청염정오승포(靑染正五升布)를 사용하고 외방(外方) 각 고을의 자리선도 오승포(五升布)를 금하고 대궐안에서도 어욕(御褥)이외에는 자주(紫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태종(太宗) 6년에는 예조참의 자문(咨文)에 ‘라금초단(羅錦綃段)이 전연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니...’라는 기록도 있다. 그런데 태종(太宗) 6년 5월에 ‘시치단자직조색(始置段子織造色)..’이라고 하여 단자(段子)가 제직된 것도 나타난다.

세종(世宗) 9년에는 지초(芝草)와 홍화(紅花)가 비록 본국에서 나는 것이나 지금 경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천례에 이르기까지 자색(紫色)을 입기를 좋아하니 자색의 값이 한 필 염색에 또 한필이 든다고 염려하고 자색염료는 진상하는 의대와 대궐안에서 소용되는 외에는 일체 엄격히 금하였다. 자염(紫染), 홍염(紅染)이 궁중밖에서도 쓰이고 있어 금한 것이 되는 것이다.

세종(世宗) 10년에는 승려가 흑세마포(黑細麻布)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다. 흑마포(黑麻布)는 고려시대부터 특산(特産)으로서 송(宋), 원(元)으로 많이 수출되었는데 조선시대에도 흑세마포(黑細麻布)가 계속 제직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세종(世宗)은 28년에는 사용되고 있는 저포(苧布) 15, 14, 13승(升)을 12승(升)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성종(成宗) 2년에는 내간(內間)에서 쓰는 포백(布帛)을 10승(升), 11승(升)으로 제한시키어 예조에서 사족은 10승(升), 9승(升), 서인(庶人)인 9승(升), 8승(升)을 쓰게 하였는데 이로인하여 섬세직제직이 줄어들어 응용(應用)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여 ‘풍속을 교정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검소하게 하는 것도 계속할 방법이 아니니..’라고 하고 사족(士族)의 의복(衣服)의 승수(升數) 제한을 풀었다. 이에앞서 성종 2년 호조, 예조에 전지하여 남녀(男女)의 옷의 포백(布帛)이 13승(升), 14승(升)에 이르고 치마폭도 15, 16폭(幅)이 되니 금하게 하고 몸소 실행할 것이니 10승(升), 11승(升)을 진상하라고 하였었다.

성종대(成宗代)의 「대전속록(大典續錄)」에는 ‘公私行用綿布 升數則五升 長則三十五尺 廣則七寸以上’이라고 하였다 보통 상용(常用)되는 면포(綿布)가 5승(升)이었음이 나타난다. 이 시대(時代)에는 포백척(布帛尺)이 사용되었으므로 오늘날의 포폭(布幅)과 같은 소폭(小幅)으로 규격화(規格化)된 것이다.

성종(成宗)때에는 성종(成宗) 2년 정월(正月) 능금단자(綾錦段子)대신 면주(綿紬), 면포(綿布)를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종(成宗) 23년에 편찬한 「대전속록(大典續錄)」 六, 공전(工典), 잡령(雜令)에는 ‘尙衣院綾羅匠所織中之 下則織匠削仕二十五 引紋匠仕二十五 緯奉足削仕十五 下之上以下則織匠削仕五十 引紋匠削仕四十 緯奉足削仕二十’등으로 규정된 것이 있다.

인문장(引紋匠)이 있으니 문직(紋織)이 제직된 것이다.

연산군대(燕山君代)에 이르러서는 4년 6월에 유생(儒生)의 교기교직(交綺交織)함을 금하고 사족(士族)이 아닌 자도 초세교기교직(초細交綺交織)을 금한다고 하였다 상고(商賈)와 서인 부녀도 사라능단(紗羅綾緞)을 금하게 한 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연산군(燕山君) 8년 정월(正月)에는 북경(北京)에 가는 사행(使行)에 능라장(綾羅匠)을 따라가게하며 대홍(大紅), 초록(草綠) 여러 가지 색의 저사(紵絲)를 염색도 익히고 직조를 익혀 4-5척(尺)씩 가져오게 하라고 하였다. 「원사여복지(元史與服志)」에서 ‘紵絲與蠶絲也’라고 한 바와 같이 저사(紵絲)는 견직물(絹織物)이다. 저사(紵絲)는 흉배용직물(胸背用織物)로 많이 사용된 것이 나타난다. 직금안배기린대홍저사(織金暗背麒麟大紅紵絲), 암세화대홍저사(暗細花大紅紵絲) 등과 대홍(大紅), 남(藍) 기타 각 색의 저사(紵絲)도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연산군(燕山君) 10년 5월에는 사사로이 짜는 저사(紵絲)의 포장에 대한 교시가 있다. 그리고 사라능단(紗羅綾緞)을 누구에게나 사사로이 짜서 온나라가 같이 쓰게 하라고 하였고 직조장(織造匠)에도 인문장(引紋匠), 집경장(執經匠), 집위장(執緯匠),염장(染匠)을 두었다. 그런데 ‘사라능단(紗羅綾緞)은 우리나라 물산이 아니므로..’라는 기록이 중종(中宗) 2년 11월 임인(壬寅), 11년 5월 기유(己酉) 등에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일반적(一般的)으로 제직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며 아주 단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종(中宗) 31년 사라능단(紗羅綾緞)의 사치금지, 명종(明宗), 즉위년(即位年)의 능단(綾緞), 저사(紵絲)의 무역금지, 사라능단(紗羅綾緞)의 무역금지와 향직(鄉職)을 사용하게한 명종(明宗) 12년의 기록, 인조(仁祖) 15년의 필단(匹緞)을 당상관(堂上官)에서 금지시키고 방사주(方絲紬), 화사주(花絲紬), 면주(綿紬)를 당하관(堂下官)에서 금지시키고 모의(毛衣)를 유생(儒生)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문헌비고(文獻備考)」七十九에 의하면 영조(英祖)때에는 문단(紋緞)짜는 것을 금하고 상방(尙方)으로 하여금 적색(赤色), 청색(青色), 현색(玄色), 표색(縹色), 녹색(綠色)의 단(緞)을 짜게 하되 문(紋)을 없게 하라고 한 기록이 있으니 공단 즉 무문(無紋)의 주자직물(朱子織物)로 본다. 영조(英祖) 23년이후 교색단(交色緞)대신 향주(鄉紬)를 쓰게한 기록도 있다. 영조(英祖)는 상방(尙方)의 직금방(織金房)을 영구히 철폐했다고도 하였다.

정조어제(正祖御製)의 「영조행록(英祖行錄)」에는 왕(王)께서 문단(紋緞)을 입지 않으시고 주고(紬袴)도 입지 않으시었으며 옷가운데 여러번 뻥 것이 많아서 숨이 보이는 것까지 있다고 하였다. 「추관지(秋官志)」第三篇 고율부(考律部) 정제(定制)에 의하면 곤의(袞衣)는 구름무늬, 첩리(帖裏)는 용무늬, 적의(翟衣)는 금선, 연여(輦輿)는 구름무늬, 조신(朝臣)의 장소(章昭)는 모두 구름무늬, 장신(將臣)이하 군복에는 구름무늬, 상사(賞賜)하는 단사(緞紗)는 대접문(大楮紋)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 단사의 갖가지 무늬없는 품종(品種), 주우사(注雨紗), 향라(尙羅), 개지주(改只紬), 소능(小綾)의 무늬있는 것을 일체 금한다고 하였으며 율명(律名)은 「대전통편(大典通編)」에 따라 시행한다고 하였다.

「추관지(秋官志)」第三篇 고율부(考律部) 속조(續條) 상가(商賈)는 문단(紋緞)을 금지하기 위하여 영조가 몇 해를 고심(苦心)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무늬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것은 즉 비단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처럼 사치하여지는 때에...’라는 구절이 교시중에 나온다. 사치를 금하기위하여 그렇게 고심(苦心)하였으나 사치는 그치지 않았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인(日本人) 길영언태랑(吉永彦太郎)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직물류를 수집하여 1915년(대정(大正) 4年)에 조선향염직물명칭류휘(朝鮮尙染織物名稱類彙)로 발표(發表)한 것

이 오늘날까지 전하여지고 있다. 이것은 순종년간(純宗年間)1907-1910)에 우리나라에서 제
직된 직물(織物)이다. 각종주(各種紬), 반주(班紬), 단(緞), 초(綃), 항라(亢羅), 관사(官紗), 국
사(菊紗), 저(苧), 면포(綿布), 마포(麻布) 등이 다양하게 조선(朝鮮)에서 제직된 것이 나타나
있다. 국말(國末)의 정치적(政治的)경제적(經濟的), 사회적(社會的) 혼란에도 불구하고 직물
(織物)은 각종(各種)으로 이어져 제직된 것이다.

직물중(織物中)에서 가장 귀(貴)히 여기고 화려한 것은 역시 견직물(絹織物)이다. 우리나
라에 있어서 농상(農桑)과 양잠직조(養蠶織造)의 역사(歷史)는 유구(悠久)하다. 기자조선(箕
子朝鮮)때에 기자(箕子)가 전잠직조(田蠶織造)을 백성에게 가르쳤다고 한다. 오늘날 견(絹)의
기원(起源)하면 중국(中國)으로 세계적(世界的)으로 알려져 있다.¹⁰³⁾ 그러나 동(東)아시아의
문명(文明)의 기원(起源)과 그 기원(起源)의 주재자(主宰者)는 동이인(東夷人)이었다는 전설
(傳說)을 앞으로 학구적(學究的)으로 연구(研究)한다면 새롭게 해명될 사항(事項)이 많을 것
으로 본다. 기자(箕子)에 대한 실존여부의 논의(論議)는 뒤로하고 오늘날까지 문헌(文獻)과
논고상(論考上)에 나타나있는 사실을 그대로 들어 견직물제직사(絹織物製織史)를 상고한다
면 기자(箕子)는 동이인(東夷人)이며 기자(箕子)가 은(殷)나라의 삼현중(三賢中)의 1인(人)으
로 은(殷)나라 문물(文物)을 주관하였으니 은(殷)나라의 견직물문화(絹織物文化)는 곧 동이
인(東夷人)인 기자(箕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중국지역(中國地域)에서는 최근 20년의 발굴결과 중국(中國) 동남부(東南部)의 양
저문화(良渚文化)(기원전(紀元前) 3300-2300 연기(年紀))에서도 견직물(絹織物)이 출현(出現)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계직물사상(世界織物史上)에서 오늘날까지 거론된 중국견직물제직
(中國絹織物製織)의 상한(上限)은 은허출토품(殷墟出土品)의 견직물(絹織物)의 흔적이다.

오늘날 이태리 실크 하면 전세계적인 실크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다. 견직물(絹織物)이 서
역(西域)으로 전해진 것은 기원초(紀元初)이다. 잠란(蠶卵)이 constantinople(현(現) Turkey
Istambul)에 전해진 것은 Justinian I (483-565)때인데, Persia의 승려가 중국의 잠란의 속이
빈 대나무 지팡이 속에 넣어 가져 갔다.¹⁰⁴⁾ 이리하여 그리스에 잠업이 보급되었다. 이태리
실크나 뽕나무에 대하여는 시실리왕 Roger 1세(1031-1101)때 아테네 코린트에서 실크기술
자를 포로로 하여 비단을 짜게 되었다. 불란서에는 1466년 리혼에 실크산업을 세우기로 결
정하여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는 1170년부터 시장에서 뽕나무가 거래되었다고 하니 견직물이
생산된 문헌적 기록은 17세기에야 나타난다. 미국에 견사(絹絲)가 제사된 것은 17C이고 견
직회사가 맨스필드에 세워진 것은 1810년이다.

이와 같이 세계견직물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견직물 제직년대는 세계견직물사상 대단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헌적으로 기자조선때에 견직물제직이 나타났고 그후 삼한(三韓)의 양잠
(養蠶)과 면포(綿布)(견직물(絹織物)), 곁포(縑布)제직이 나타난다. 신라의 시조(始祖)가 농상
(農桑)을 장려하였고 고려의 태조(太祖)도 즉위하여 농상(農桑)을 장려한 것이 「고려사(高
麗史)」卷七十八 식화(食貨)에 나타나 있다. 그후 현종(顯宗) 19년, 문종(文宗), 원년(元年),
동(同) 20년, 인종(仁宗) 6년, 동(同) 23년 충열왕(忠烈王) 즉위년(即位年), 공민왕(恭愍王) 5
년, 동(同) 25년에도 계속 농상(農桑)을 장려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고려 최자(崔滋)의 「삼
도부(三都賦)」에는 ‘계림(경주, 영가(永嘉)(안동)엔 뽕나무가 우거졌네’하였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도 「태종실록(太宗實錄)」卷三十一 十六年條에 잠실(蠶室)을 설치한

103) 夏鼎, 「中國文明の起源」, p.97, 日本放送出版協會, 1984.

104) Joun Feltwell, 「The Story of Silk」, p.9 ST. MARTIN'S PRESS NEW YORK.NY 10010. 1900.

기록이 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제도(諸道)에 잠실(蠶室)을 설치하고 본조(本曹), 본도(本道), 본읍(本邑)에서 양잠(養蠶)한 사건(絲繭)을 상납(上納)하게 되어있다. 궁중(宮中)에서는 중전(中殿), 세자빈(世子嬪)이 친히 친잠례(親蠶禮)를 거행하였다.

태종(太宗)때에 친잠(親蠶)의 의례(儀禮)가 창정(創定)되어 그 후 역대(歷代)500년간 친잠(親蠶)의 발달(發達)이 된 것이다.¹⁰⁵⁾ 친잠례(親蠶禮)는 잠신(蠶神)에 대한 의례(儀禮)인데 일반적으로 잠신은 서능씨(西綾氏)라고 한다. 서능씨(西綾氏)가 양잠(養蠶)의 시조(始祖)라고 보는 까닭이다. 오늘날 전설적으로 양잠(養蠶)을 처음한 사람은 황제(黃帝)의 정비(正妃) 서능씨(西綾氏)라고 하나 좌등무민(佐藤武敏)¹⁰⁶⁾씨에 의하면 주광명(周匡明)씨의 설(說)을 예(例)로 들어 「남제서(南齊書)」卷六 명제기건무(明帝紀建武) 2년(495)조(條)에는 ‘食惟民天義高姬載 蠶室生本 教重軒經..’이라고 있어 잠(蠶)을 최초로 가르친 사람은 현원씨(軒轅氏) 곧 황제(黃帝)라고 하였는데, 그 후(後) 북조(北朝)의 북제(北齊), 북주(北周)의 「수서(隨書)」 권(卷)7 예의지(禮儀志)에 선잠(先蠶)은 황제현원(黃帝軒轅)이고 북주(北周)에 처음 황제비(黃帝妃) 서능씨(西綾氏)가 선잠(先蠶)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황제가 양잠을 발명하였다는 설(說)은 남북조이전(南北朝以前)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황제가 양잠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역경(易經)」의 ‘神而化之使民宣之’를 공영달(孔穎達)이 황제 이전에는 조수(鳥獸)의 가죽을 착용하였으나 황제때에 이르러 견마(絹麻)로 의복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하였는데 이것은 묘양임집본(茆洋林輯本) 「세본(世本)」에 ‘皇帝造化食旃冕(禮記冠義正義)’라고 있어 황제가 전면(旃冕)을 만들었다고 하고 또 「세본(世本)」에서 전(旃)과 면(冕)은 백(帛)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전설적인 내용이 전해져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역경(易經)」에서 「신이화지(神而化之), 사민선지(使民宣之)」이 확대 해석되어 황제가 전(旃), 면(冕)을 만들었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또 확대 해석되어 전(旃)과 면(冕)은 백(帛)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드디어 남북조(南北朝)에 이르러 그러한 전설들이 합리화(合理化)되어 황제비(黃帝妃) 서능씨(西綾氏)가 처음 양잠을 한 것으로 전설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中國)에서는 은대(殷代)의 갑골문(甲骨文)에 잠신(蠶神)이 나오나 잠신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비로소 한 대(漢代)에 이르러 「속한서(續漢書)」 예의지상(禮儀志上) 第四에 ‘今蠶神曰菴廡婦人 寓氏公主 凡二神’이라고 있다. 서능씨(西綾氏)가 잠신(蠶神)이라고 한 것은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에 이르러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날 잠신(蠶神) 자체도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중국에서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부터의 전설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잠신을 서능씨(西綾氏)라고 받아들인 것뿐이다 중국견(中國絹)의 기원(起源)에 대한 전설은 이와같이 확대 해석되어 이루어진 것이니 진위(眞僞)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문혀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견(絹)의 기원에 대한 고고학적(考古學的) 자료(資料)와 역사학적(歷史學的) 문헌자료(文獻資料)의 연구(研究)과제는 아직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친잠의(親蠶儀)에서의 잠신으로 봉안한 서능씨(西綾氏)는 중국(中國)에서 성립된 후대(後代)의 잠신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여야 한다. 포목순랑(布目順郎)씨는 일본(日本)의 동북지방(東北地方) 청삼(靑森), 암우지방(岩牛地方)의 민가(民家)에서 모시는 오시라가미(おしらかみ) 또는 오시라사마(おしらすみ)가 있는데 삼목(森目)에서 네가지로 된 것을 잘라서

105) 金文浹 「蠶學概要」, p.6.富民文化社

106) 佐藤武敏, 『中國古代絹織物史研究.上』, pp.38-43, 風聞書房, 日本:東京,1977.

8촌(寸)쯤으로 하여 인체(人體)같이 만들고 포(布)를 감아 남녀양신(男女兩神)을 만드는데 남신(男神)쪽은 목을 마수(馬首)와 같이 만들어 일년(一年)에 한번 신제(神祭)를 치른다고 하는 촌도저(村島渚)¹⁰⁷⁾씨의 설(說)과 오시라신(神)은 잠신(蠶神)이고 부사산(富士山) 동쪽(東麓)에서 갑주(甲州)의 군내(郡内), 또 산을 넘어 무장(武藏)의 다마질부(多摩秩父)에 걸쳐 잠(蠶)과 그 신(神)을 오시라마사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유전국남(柳田國男)씨의 설(說)¹⁰⁸⁾ 「동아고속고(東亞古俗考)」의 「오시라신고(神考)」에서 오시라 신신(神信)은 러시아의 네 후스키의 조사에 의하면 시베리아연해주(沿海州)의 쓴구스문(問)에도 있고 만주(滿洲), 북조선(北朝鮮), 민월지방(閩越地方)의 묘족간(苗族間)에도 남아 있다고 동원조지조(藤原祖之助)씨의 설(說)¹⁰⁹⁾을 소개하고 등원(藤原)씨는 월전(越前), 가하지방(加賀地方),의 신라신(新羅神)이 오시라神이고 가하(加賀), 동북지방(東北地方)에서 양잠(養蠶)의 신(神)으로서 제사지내고 있는데 백산신(白山神)도 된다고 하였다.

포목순랑(布目順郎)씨는 오시라신(テシラ신)의 시라(シラ)는 신라신(新羅神)(しらぎ), 신라국(新羅國)(しらぎ)에서 유래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조선어(朝鮮語)에서 견(絹)을 의미하는 실(Sir), 견을 의미하는 만주어(滿洲語) Sirge, 몽고어(蒙古語) Sirkek, sirghek, Sereg 등과 연관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하였다.¹¹⁰⁾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일본(日本)으로 양잠(養蠶)과 제사, 제직기술이 전과되어 이루어진 신화(神話)일 것이다.

이 신화(神話)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있다함은 그 시대에 잠신(蠶神)이 있었다는 것이 된다. 곧 조선시대(朝鮮時代) 이전 기원초(紀元初) 잠신(蠶神)이라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잠신(蠶神)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다. 낙랑(樂浪)의 한 현중(縣中)에 ‘잠태(蠶台)’가 있었다고 전장(前章)에서 기술하였다. 태(台)는 ‘기름대’라고 하여 누에를 기른 곳에서 유래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일찍이 이땅에는 양잠(養蠶)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Silk’의 어원(語源)과 우리나라의 ‘실’과의 관계는 각국의 견을 나타내는 말과의 관계를 비교할 때 가장 가깝다. 즉 중국(中國)은 sz’, ssu, szu, see, si, 만주(滿洲)는 Sirge, Sirghe, Sarghe, 몽고는 Sirkek, Sirghek, Sereg이다. 우리나라와 견(絹)과의 관계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경제적(經濟的), 정치적(政治的), 사회적(社會的) 어려움과 또 계속 내린 견문직(絹紋織)과 견직물(絹織物) 사용금지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국말(國末)에 제직된 직물(織物)이 사(紗), 라(羅), 단(緞)이 다양(多樣)한 것은 우리나라가 뿌리깊은 견직물사(絹織物史)의 토태(土台)위에서 오랜기간에 걸쳐 견직물(絹織物), 제직문화(製織文化)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직물(織物)이 국폐(國弊), 공납(貢納), 진상(進上), 외국(外國)과의 무역품(貿易品)으로 사용되어 「경국대전(經國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만기요람(萬機要覽)」, 「궁중발기(宮中發記)」, 「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尙方定例)」 「도지준절(度支準折)」 기타 많은 문헌(文獻)에 다양한 직물(織物)의 종류가 나타나 있다.

1)마(麻),저직물(紵織物)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마(麻), 저직물(紵織物)은 문헌상(文獻上)에 마(麻), 마포(麻布), 저(紵)(苧), 저포(紵布)(苧布), 포(布)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화폐로 통용된 정포(正

107) 村島渚, 『蠶神考』 pp.92-94, 明文堂(日本), 1933.

108) 柳田國男, 「オシラ神は蠶神」, 『定本柳田男全集』 19卷pp.234-236. 「西は何方」所收, 1963.

109) 藤原助元, 「東亞古俗考」(春陽選集), 「おしら神考」 pp.255-289.春陽堂(日本), 1948.

110) 布目順郎, 「卷蠶の起源と古代絹」, pp.75-76. 雄山閣(日本.東京), 1979.

布)가 마포(麻布)인데 5승포(5升布)가 사용되었다. 5승포는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된 마포(麻布)이다. 「상방정례(尙方定例)」에 오승포(伍升布), 육승포(陸升布), 「도지준절(度支準折)」에 5승광포(升練布), 7승연포(升練布), 8승연포(升練布)등이 기록되어 있어 포(布)에는 광폭포(廣幅布)도 있고 7-8승포(升布)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에는 발내포(鉢內布)가 있는데 배 한필이 밥바리안에 들어간다고 하여 명명된 것이니 가히 그 섬세도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된다.

안동시(安東市), 강포(江布), 영포(嶺布), 북포(北布)등으로 지역(地域)에 따라 명명되어 각기 특성을 갖고 있다. 「통문관지(通文館志)」에 의하면 흑마포(黑麻布)는 청(淸)나라에 공물(貢物)된 것이고 흑세마포(黑細麻布)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성종대(成宗代)에 명(明)나라에 공물된 것으로 나타난다. 「만보전서(萬寶全書)」에는 고려(高麗)의 흑마(黑麻)가 우량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흑마포(黑麻布)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서 중국(中國)쪽의 공물품(貢物品)으로 사용되어 중국인(中國人)들에게 선호되어 「만보전서」에 까지 올라 칭송하게 된 것이다.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전공지(展功志)에서는 관북지방(關北地方)이 마포(麻布)의 명산지(名產地)라고 하였다.

저포(苧布)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誌)에 의하면 주로 충청(忠淸), 전라도해안지대(全羅道海岸地帶)에서부터 후기(後期)에는 한산(韓山), 서천(舒川), 홍산(鴻山), 비인(庇仁), 임천(林川), 정산(定山), 남포(藍浦)등에게 생산되어 ‘저포칠처(苧布七處)’라고 일컬은 사실이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전공지(展功志)에 전하여져 있다. 조선시대의 저포는 7승, 8승, 9승, 10승, 11승, 12승, 정도가 「도지준절(度支準折)」에 나타나 있다. 홍저포(紅紵布), 대홍(大紅)저포, 청(靑)저포, 흑(黑)저포, 황(黃)저포, 아청저포(鴉靑苧布)등으로 염색(染色)된 것도 있었다. 칠승백(七升白)저포의 一尺의 절가(折價)가 일전칠분일리(一淺七分一里)인데 십이승백저포(十二升白紵布)가 사전(四箋)이고 홍저포(紅紵布) 일필(一匹)이 칠량일분(七兩一分) 아청저포(鴉靑苧布)가 칠량일분, 아청저포(鴉靑苧布)가 칠량일전칠분(七兩一箋七分)인 것으로 「도지준절(度支準折)」의 절가(折價)로 나타나 있어 섬세저포와 염색저포가 상당히 고가였음을 알 수 있다. 「도지준절(度支準折)」에 의하면 저포(苧布)의 규격(規格)은 10-12승 저포는 ‘廣七寸, 長四十尺’이며 7-8승저포는 ‘廣七寸 長三十五尺’으로 되어있다.

「통문관지(通文館志)연공(年貢)」, 「만기요람(萬機要覽)(방물(方物))」 등에도 저마겸직포(苧麻兼織布)도 있어 마(麻)와 저(苧)가 교직(交織)된 것도 나타난다.

2)면직물(綿織物)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면직물(綿織物)이 면포(綿布), 목(木), 목면(木綿), 고구(古具), 길구(吉具) 등으로 문헌에 나타나 있다. 「물명고(物名攷)」 권(卷)3 무정류(無情類).초조(草條)에는 ‘백첩(白疊) 송이소옴’이라고 해설한 것도 있다. 면화(棉花) 즉 송이솜이 백첩(白疊)이라고 한 것이니 삼국시대(三國時代) 고구려에서 제직한 백첩포(白疊布)를 「물명고(物名攷)」에서 「송이소옴」으로 풀어준다. 조선시대의 면직물은 면포(綿布), 백(白)면포, 목(木), 하지(下地)목, 백목(白木), 백목면(白木綿), 생목면(生木綿) 등으로 명명(命名)되며 홍(紅), 대홍(大紅), 황(黃), 남(藍), 초록(草綠), 청(靑), 자(紫), 흑(黑), 아청색(鴉靑色)등으로 염색(染色)되었다.

「도지준절(度支準折)」에 의하면 칠승백목(七升白木)의 일척절가(一尺折價)가 일절일분사리(一箋一分四里)이고 구승백목(九升白木)이 이절(二箋)이고 대홍면포(大紅綿布) 일필(一匹)이 이십육양구전사분(二十六兩七箋四分), 청목(靑木)이 삼양삼절구분(三兩三箋九分) 등인 것

으로 보아 승수(升數) 염료(染料)에 따라 가격차가 달랐던 것이 나타난다. 관목(官木), 무녀목(巫女木), 장세목(匠稅木), 전세목(田稅木), 납세목(雜稅木) 등 공납(貢納)되었던 종류에 따라서 명명(命名)되었으며 면직물(綿織物)의 규격(規格)은 「도지준절(度支準折)」에 ‘白細木一匹 長三十五尺 廣七寸’이라고 나타나 있다. 그러나 ‘草綠木一匹 地木一匹十尺’이라고도 있어 면직물의 종류에 따라 일필(一匹)의 척장(尺長)이 다른 것도 있었다. 남목(藍木), 자목(紫木), 홍목(紅木), 황목(黃木), 흑목(黑木), 일필장(一匹長)이 十尺으로 되어 있어 염색(染色)된 것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적은 척수로 한필을 묶은 것으로 보인다. 관목(官木), 지목(地木), 하지목(下地木), 무녀목(巫女木), 장세목(匠稅木), 전세목(田稅木), 노세목(蘆稅木), 반세목(般稅木), 납세목(雜稅木), 현목(玄木)등은 모두 일필장(一匹長)이 長三十五尺, 廣七寸인데, 공목(貢木)은 四十尺長에 七寸廣이다. 표리백면포(表里白綿布)는 五十尺에 七寸廣이라고 되어 있다. 규격(規格)이 다양(多樣)하였다.

개국(開國)이후에 면직물명(綿織物名)은 서양목(西洋木), 양목(洋木), 광목(廣木), 금건(金巾)(生金巾, 金巾)등이 나타나 있는데 모두 평직물(平織物)이다. 직공니(直貢呢)(5매(枚)주자(朱子), 무지(無地)모수린, 날염모스린, 면(綿)네루, 고르덴, 의마포 등도 개국(開國)이후에 선호되어 그 수요가 높아갔다.¹¹¹⁾ 1914년 일본인(日本人) 목포영사(木浦領事) 약송토삼랑(若松兎三郎)씨에 의하여 고하도(高下島)에서 미육지면(美陸地綿)이 시작(試作)되어 다음해부터 면화재배협회(棉花栽培協會)를 설립(設立)하여 육지면(陸地綿)을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개국 후(開國後) 영국산(英國產) 목선단, 수포단(水浦緞), 나단(羅緞), 태서단(泰西緞), 줄태서단(袞泰西緞), 목고단(木庫緞), 양고단(洋庫緞), 한라단(寒羅緞), 일본산(日本產) 목저(木苧), 중국산(中國產) 삼승(三升) 등 면직물(綿織物)이 많이 수입되었다.

3)견직물(絹織物)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사용된 견직물(絹織物)에는 주(紬), 초, 능(綾), 사(紗), 금(錦)과 직금(織錦), 나(奈), 단(緞) 등이 있다. 직물명(織物名)이 색(色) 문양(紋樣)에 의해 다양하게 명명된 것이 조선시대의 견직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1) 주(紬)

<표 6> 주(紬)의 종류(種類)

주(紬)	상주(上紬), 중주(中紬), 공주(貢紬), 장원(壯元)주, 수화주(水禾紬), 백(白)주, 황(黃)주, 홍(紅)주, 오색(五色)주, 각색(各色)주, 자적(紫的)주, 반주(班紬), 춘(春)주, 영흥(永興)주, 분주(粉紬), 산주(山紬)
토주(吐紬)	백토주, 자적토주, 초록(草綠)토주, 대홍(大紅)토주, 간색(間色)토주, 유청(柳靑)토주, 토주, 대구(大邱)토주, 표리백(表裡白)토주, 아청(鴉靑)토주, 흑(黑)토주, 진람(眞藍)토주, 남토주, 선(縑)초록토주
정주(鼎紬)	백정주, 초록정주, 반홍(礬紅)정주, 대홍정주, 남정주, 자적정주, 진람정주, 칠승(七升)정주
면주(綿紬)	생면주, 진헌(進獻)면주, 백면주, 홍면주, 녹면주, 자면주, 황유청(黃柳靑)면주, 각색면주, 백세(白細)면주, 황세면주, 자세면주, 황금(黃錦)주, 칙사례단면주(勅使禮單綿紬), 웨인(倭人)례단면주, 경용(經用)면주, 상방급대(尙方給代)면주

111) 宮林泰司, 「朝鮮の織物に就み」, p.20, 朝鮮綿絲布商聯合會, 1935

수주(水紬)	8승(升)수주, 9승(承)수주, 백수주, 다홍수주, 진초록(眞草綠)수주, 진랍수주, 진옥색수주(眞玉色水紬), 대홍수주
명주(明紬)	백명주, 홍명주
반주(班紬)	빅반주, 빅싱 반주
생주(生紬)	빅생주, 옥색낭생주, 양남생주, 아청숙집생주, 송화색생주, 옥색생주, 보라생주
쌍듀	분홍쌍듀, 다홍쌍듀, 남송쌍주, 남쌍주
방사주(方絲紬)	백방사주, 목홍(木紅)방사주
화방주(花紡紬)	송화색(松花色)화방주, 분홍(粉紅)화방주, 빅화방주, 옥색화방주, 일남화방주, 남화방주, 두록화방주
왜주(倭紬)	각색왜주, 분홍외주, 양남외주, 빅외주, 즈색외주, 초록외주, 녹홍외주, 회색외주, 남송외주, 남외주, 진분홍외주, 뉴홍외주, 즈색낭외주, 고동색외주, 낭색외주, 노랑외주
삼팔주(三八紬)	팔양(八兩)삼팔주, 십량삼팔주, 옥색삼팔주, 빅삼삼팔주, 보라사팔주, 남삼삼팔주, 분홍삼팔주, 다홍삼팔주, 남삼팔주, 양남삼팔주, 회보라삼팔주, 청옥색삼팔주, 심삼팔주, 즈색삼팔주
온듀	즈덕온듀, 가색온듀, 초록낭온듀
화사듀	옥색화사듀, 분홍화사듀, 남송화사듀, 남화사듀, 초록화사듀, 송화색화사듀, 두록화사듀, 삼팔디화사듀, 남수화사듀
생경광주(生鏡光紬)	청옥색경광주, 남경광주, 더경광주, 진분홍더경광주
십량주(十兩紬)	다홍십량주, 백십량주, 남십량주, 진분홍십량주, 양남십량주
팔양주(八兩紬)	진홍팔양주, 다홍팔양주, 진분홍팔양주, 양남팔양주, 옥색팔양주
육량주(六兩紬)	다홍육량주, 백육량주, 진홍육량주, 진분홍육량주, 양남육량주
운듀	남운듀, 송화색운듀
양싱듀	옥색양싱듀, 백양싱듀, 남송양싱듀
영듀	다홍영듀, 남영듀
싱합듀	다홍싱합듀
노방듀	백노방듀, 다홍노방듀
양듀	회보라양듀
원듀	분홍원듀, 즈덕원듀
즈으듀	옥색별문즈으듀
경광듀	보라경광듀, 남경광주
숙듀	각색숙듀, 송화색숙듀, 남숙듀, 보라숙듀, 회색낭숙주, 옥색낭숙주
더쥬	더쥬, 다홍더쥬, 분홍더쥬, 각색더쥬, 홍더쥬
외단듀	회색유문의단듀. 미색유문의단듀

(2)초(綃)

<표7> 초(綃)의 종류(種類)

초(綃)	백초(白綃), 자초(紫紹), 자적초(紫的綃), 홍초(紅綃), 대홍초(大紅綃), 청초(靑綃), 남초, 초록
생초(生綃)	
숙초(熟綃)	아청(鴉靑)숙초, 백숙초, 대홍숙초
광초(廣綃)	다홍광초
쌍문초(雙紋綃)	송화색쌍문초, 옥색쌍문초, 분홍쌍문초, 남쌍문초
영초(英綃)	송홍별문영초(松紅別紋英綃), 다홍별문영초, 남별문영초, 분홍문영초, 남양색집문영초, 송화색별문영초, 남송별문영초, 송화색집문영초, 양남집문영초, 옥색영초, 옥색별문영초, 백영초, 회색집문영초
고영초(庫英綃)	각색별문고영초, 다홍별문고영초, 황별문고영초, 양초록별문고영초, 일남별문고영초, 분홍별문고영초, 진홍별문고영초, 양옥색별문고영초, 보라별문고영초, 금항별문고영초, 백별문고영초
운한초(雲漢綃)	송화색운화초(松花色雲漢綃), 옥색운한초(玉色雲漢綃)
곡생초(曲生綃)	다홍곡생초

모초(毛綯)	각색접문모초(各色蝶紋毛綯), 양색(兩色)접문모초, 각색유문(有紋)모초, 각색무문(無紋)모초, 다홍모초, 다홍별문모초, 남화문모초, 일남접문모초, 아청접문모초, 양초록낭색모초, 양남별문모초, 진분홍접문모초, 뉴홍낭색접문모초, 남송낭접문모초, 다홍낭색접문모초, 도홍낭색접문모초, 분홍낭색모초, 주황색접문모초, 남접문모초, 보라접문모초, 다홍접문모초, 양초록접문모초, 분홍접문모초, 금향접문모초, 양초록남색접문모초, 양남낭색접문모초, 남송낭색별문모초, 일남낭색모초
궁초(宮綯)	아청궁초(鴉青宮綯)
고초	백고초
곱섬초	다홍곱섬초
숙초	옥색숙초
세초	진분홍세초
광초	다홍광초

(3) 능(綾)

<표8> 능(綾)의 종류(種類)

능(綾)	생능, 색능, 색대(大)능, 색소(色小)능, 백능, 남능, 초록능, 대홍능
소문능(小紋綾)	
백무문능(白無紋綾)	
송화색별문능(松花色別紋綾)	
공더능	진분홍공더능, 분홍공더능, 송화색공더능, 양초록공더능, 남송공더능, 보라공더능, 즈색공더능, 양옥색공더능, 일남공더능, 양남무문공더능, 송화색무문공더능, 다홍별문공더능, 다홍무문공더능, 진분홍무문공더능, 분홍무문공더능, 양초록무문공더능, 남송무문공더능, 보라무문공더능, 즈덕무문공더능, 양옥색무문공더능, 설백무문공더능, 일남무문공더능

(4)사(紗)

<표 9> 사(紗)의 종류(種類)

사(紗)	남사, 대홍사, 초록사, 청사, 목홍사
소사(素紗)	남소사
주사(走紗)	
광사(廣紗)	황광사, 대홍광사, 초록광사, 아청광사, 백황(黃)사, 자적광사, 남황(藍黃)사, 직금(織金)광사, 남광사, 옥색광사, 남송광사, 양남광사, 보라광사, 연분홍광사, 분홍광사, 다홍광사, 미색광사, 초록광사, 남접문광사
은조사(銀條紗)	분홍은조사, 다홍은조사, 백은조사, 설백(雪白)은조사, 진홍은조사, 옥색은조사, 청옥색은조사, 남은조사, 두록은조사, 사양남은조사, 백은조사, 초록은조사, 남송은조사, 각색은조사, 진분홍은조사, 일남은조사, 아황교
열고사(熟庫紗)	진홍별문숙고사(眞紅別紋熟庫紗), 아황(鴉黃)별문숙고사, 양록(洋綠)별문숙고사, 도홍(桃紅)별문숙고사, 아청(鴉靑)별문숙고사, 자색(紫色)별문숙고사, 남송(南松)별문숙고사, 설백(雪白)숙고사, 양옥색(洋玉色)숙고사, 품람(品藍)숙고사, 남숙고사, 옥색숙고사, 남송숙고사, 즈색숙고사, 백숙고사, 분홍숙고사, 다홍숙고사, 즈덕숙고사, 초록숙고사, 양남숙고사, 송화색숙고사, 옥색인화숙고사, 회색별문숙고사, 다홍여의숙고사, 다홍별문숙고사, 미색숙고사
생고사(生庫紗)	진홍별문생고사, 품월(品月)별문생고사, 아청(鴉靑)별문생고사, 아청(牙靑)별문생고사, 양록별문생고사, 설백별문생고사, 양옥색별문생고사, 도홍별문생고사, 품남별문생고사, 자색별문생고사, 보라(羅縵)별문생고사, 옥색별문생고사, 백별문생고사, 덕별문생고사, 다홍별문생고사, 남별문생고사
공사(貢紗)	구운(九雲)공사, 타색(駝色)공사, 각색구운문공사(各色九雲紋貢紗), 양남공사, 초록공사, 아청공사, 다홍공사, 화금공사, 향판공사, 황문문공사

싱사	분홍별문생사, 양남별문생사, 다홍별문생사, 유록운문생사, 남운문생사, 덕운문생사, 다홍운문생사, 턴청운문생사
싱슈사	분홍슈사
싱슈사	연다홍슈사, 깃튼둥슈사, 둥분홍교, 연둥분슈사, 깃튼초록슈사, 연초록슈사, 칠보초록슈사, 룩뉴청슈사, 깃튼남슈사, 조덕슈사, 보라슈사, 턴청슈사, 담낭슈사, 취향슈사, 갈색슈사, 당록색슈사
저우사(苧藕紗)	다홍저우사, 다홍별문저우사, 백저우사, 아황저우사, 분홍저우사, 옥색저우사, 즈색저우사, 양남저우사, 초록저우사,
서양사(西洋紗)	다홍서양사, 분홍서양사
양사	옥색양사, 분홍양사
약문관사	남송약문관사
도뉴사	송화색도뉴사, 초로도뉴사, 다홍도뉴사, 남도뉴사, 양남도뉴사, 설백도뉴사, 즈색도뉴사, 남송도뉴사, 남문도도뉴사, 다홍문도뉴사
나사	백유문나사, 송화색유문나사, 회색별문나사, 한나사, 초록별나사, 한나사, 미색별문나사
도리사	
비단사	각색비단사
별문사	옥색별문사, 남송별문사, 송화색별문사, 청옥색별문사, 분홍별문사, 양남별문사, 일남별문사, 초록별문사, 담송숙별문사, 다홍별문사
당사	남당사, 옥색당사, 아청당사, 보라당사
숙사	미색화접문숙사, 남송별문숙사, 송화색남송별문숙사, 옥색남송별문숙사, 백여의숙사, 덕운문숙사, 다홍운문숙사, 청옥색남송별문숙사, 양남남송별문숙사, 남남송별문숙사, 송화색남송별문숙사, 분홍남송별문숙사, 다홍남송별문숙사, 다홍여의숙사, 진분홍남송별문숙사
국사	옥색국사, 회색국사, 황국사, 분홍국사, 남국사, 남송국사, 송화색국사, 양초록국사
관사	옥색별문관사, 옥색무문관사, 백관사, 옥색관사, 각색관사, 무문맥관사, 남송관사, 남관사, 빅별문관사, 회색별문관사, 옥색진주문관사, 회보라관사, 분홍별문관사, 옥색별문양관사, 황별문관사, 옥색진주관사, 회보라무문관사, 색동관사.
진주사	옥색진주사, 빅진주사
단사	홍단사, 백단사. 운한초(雲漢綃)빅별문단사
여의사	분홍여의사, 남송여의사, 백여의사
즈우사	송화색별문즈우사, 다홍별문즈우사, 양초록별문즈우사, 운복문즈우사, 진분홍별문즈우사, 설백별문즈우사, 초록즈우사, 남즈우사.
공양사	목색공양사, 갈미공양사
천사	다홍천사, 일남천사, 양남천사, 양초록천사, 진분홍천사, 설백천사
고사	다홍닌접문고사
문사(紋紗)	송화색운학봉문사(松花色雲鶴鳳紋紗)사, 송하색운학문사, 분홍린(粉紅隣)문사, 초록도류사(草綠桃榴紗), 다홍도류사, 남송별문사(別紋紗), 송화색별문사, 분홍별문사, 청옥색별문사, 송화색운문사, 옥색삼팔사, 보라문사, 다홍운학문사, 슈황운문사, 홍운문사, 분홍별문사, 옥쌍닌접문사, 양남닌접문사, 남송닌접문사, 남닌접문사, 흥닌접문사, 다홍닌접문사, 아청닌접문사, 백닌접문사, 아황닌접문사, 분홍닌접문사, 초록닌접문사, 설백닌접문사, 즈색닌접문사, 닌접문사, 화금향닌접문사, 진분홍닌접문사, 양초록닌접문사, 옥색숙접문사, 다홍숙접문사, 남숙접문사, 양남숙접문사, 양남닌문사, 백닌문사, 옥색닉문사, 닌문사, 남닌문사, 초록닌문사, 다홍닌문사, 옥색순닌문사, 남순닌문사, 송화색운문사, 분홍순운문사, 아황순닌문사, 백순닌문사, 다홍순닌문사, 아황순닌문사, 분홍순닌문사, 초록순닌문사, 남송닌문사, 설백닌문사, 즈색닌문사, 금향나접문사, 남난화문사, 남화문사, 다홍화문사, 뉴청화문사, 화문사, 송화색화문자, 송화색닌화문자, 백닌화문자, 옥색닌화문자, 다홍닌화문자, 다홍유린문사, 즈덕유린문사, 양남숙별문사, 분홍숙별문사, 남송숙별문사, 송화색숙운문사, 분홍숙운문사
갑사(甲紗)	백숙(白熟)갑사, 다홍숙갑사, 백갑사, 남숙갑사, 남갑사, 진홍린접문갑사(眞紅隣摺紋甲紗), 품월접문갑사, 아청접문갑사, 타색접문갑사, 진홍화문갑사(眞紅花紋甲紗), 품남 순린문갑사(純隣紋甲紗), 설백숙소갑사(雪白熟素甲紗), 각색(脚色)생소, 가색숙구운갑사, 각색린접문갑사, 각색린소갑사, 각색도류문갑사, 각색매란갑사(各色梅蘭甲紗), 각색린화문갑사, 아청숙매란갑사, 회색갑사, 다홍갑사, 옥색갑사, 송옥색갑사, 송화색갑사, 슈황갑사, 분홍갑사, 진분홍갑사, 일남갑사, 보라갑사, 남송갑사, 다홍갑사,

	<p>초록갑사, 다홍운학문갑사, 다홍칠보문갑사, 다홍화학문갑사, 양남갑사, 즈색갑사, 초록갑사, 비상 회즈갑사, 남송화무갑사, 감향갑사, 다홍문갑사, 다홍슈복문갑사, 송화색슈복문갑사, 양초록슈복문갑사, 다홍백복문갑사, 일남백복문갑사, 송화색백복문갑사, 양초록백복문갑사, 진분홍백복문갑사, 다홍화접문갑사, 양초로고화접문갑사, 진분홍화접문갑사, 다홍운학룡봉문갑사, 일남운학룡봉문갑사, 송화색운학룡봉문갑사, 양초록운학룡봉문갑사, 다홍화문갑사, 일남화문갑사, 송화색화화문갑사, 양초록화화문갑사, 진분홍화화문갑사, 다홍접문갑사, 유흥접문갑사, 다홍운문갑사, 다홍비상희즈문갑사, 일쌍쌍희즈문갑사, 다홍숙운갑사, 일남숙운갑사, 유록숙운갑사, 남숙운갑사, 즈덕숙운갑사, 남송금슈복즈별문갑사, 양옥색별문갑사, 진분홍별문갑사, 양남별문갑사, 분홍별문갑사, 아청별문갑사, 일남별문갑사, 남별문갑사, 송화색별문갑사, 다홍별문갑사, 양초록별문갑사, 설백별문갑사, 진분홍칠보문갑사, 진분홍칠보문갑사, 즈덕별문숙갑사, 양보라별문숙갑사,, 다홍별문숙갑사, 양남별문숙갑사, 유록싱운문갑사, 남싱운문갑사, 아청운문갑사, 황싱운문갑사, 다홍생운문갑사, 일남생운문갑사, 양초록싱운문갑사, 진분홍싱운문갑사, 남닌접문갑사, 아청숙접문갑사, 백숙접문갑사, 아청별문싱수갑사, 청옥색별문싱수갑사, 양보라별문싱수갑사, 분홍숙갑사, 일남숙갑사, 진분홍숙갑사, 아청숙갑사, 다홍숙갑사, 백숙갑사, 남숙갑사, 남송별문숙갑사, 설백숙갑사, 송화색별문숙갑사, 양남숙갑사, 옥색숙갑사, 남별문숙갑사, 다홍별문숙갑사, 즈덕숙갑사, 연분홍숙갑사, 남송숙갑사, 양옥색숙갑사, 양남별문숙갑사, 옥색무문숙갑사, 즈색무문숙갑사, 초록무문숙갑사, 분홍무문숙갑사, 아황유문숙갑사, 즈색유문숙갑사, 옥색유문숙갑사, 분홍유문숙갑사, 초록유문숙갑사, 남송유문숙갑사, 설백유문숙갑사, 양남유문숙갑사, 양남싱숙갑사, 유흥별문싱숙갑사, 비상희즈접문싱숙갑사, 남송운학룡봉문싱숙갑사, 화학문싱숙갑사, 운학문싱숙갑사, 칠보문싱숙갑사, 칠보초롱문싱숙갑사, 백복문싱숙갑사, 슈복문싱숙갑사, 호접문싱숙갑사, 미란문싱숙갑사, 호조별문싱숙갑사, 호조별문싱숙갑사, 송화색싱숙갑사, 남숙슈갑사, 다홍숙슈갑사, 아청숙슈갑사, 양남숙슈갑사, 옥색화갑사, 송화색화갑사, 아황무문싱슈갑사, 분홍무문싱슈갑사, 초록무문싱슈갑사, 다홍무문싱슈갑사, 남송무문싱슈갑사, 설백무문싱슈갑사, 양남무문싱슈갑사, 즈색무문싱슈갑사, 옥색무문싱슈갑사, 다홍유문싱슈갑사, 분홍유문싱슈갑사, 양남유문싱슈갑사, 남송유문싱슈갑사</p>
생수갑사(生水甲紗)	<p>백생수갑사, 남송생수갑사, 다홍생수갑사, 남생수갑사, 아청생수갑사, 양남생수갑사, 양초록생수갑사, 분홍생수갑사, 별문생수갑사 일남싱수갑사, 송화색 싱수사, 양초록장수갑사, 진분홍싱수갑사, 양옥색싱수갑사, 설백싱수갑사, 아청싱수갑사, 빅복문싱수갑사, 미란문싱수갑사, 화접문싱수갑사, 화문싱수갑사, 칠폰싱수갑사, 별문싱수갑사, 화학문싱수갑사, 도유문싱수갑사, 운학룡봉문싱수갑사, 닐화문싱수갑사</p>
길상사(吉祥紗)	<p>송화색길상사, 자색길상사, 백길상사, 품목(品目)길상사, 아황길상사, 은회(銀灰)길상사, 양옥색길상사, 보라길상사, 양록길상사, 남송길상사, 품감(品監)길상사, 비.니숙길상사, 자근홍길상사, 옥색길상사</p>
고길상사(庫吉祥紗)	<p>설백고길상사, 자색고길상사, 도홍고길상사, 양색고길상사, 각색고길상사, 진분홍고길상사, 일남고길상사, 양옥색고길상사, 송화색고길상사, 즈덕고길상사, 양보라고길상사, 양초록고길상사, 회색고길상사</p>

(5)나(羅)

<표 10> 나(羅)의 종류(種類)

나(羅)	나, 보라별문나
항라(尙羅)	저(學)항라, 주항라(紬尙羅), 주저항라(紬紵尙羅), 진홍항라, 다홍유문항라, 옥색숙항라, 다홍랑아, 비.니더항라, 당항라, 숙항아, 다홍듀항라, 설비.니유문항라, 무문숙항라, 다홍더항라
생항라(生尙羅)	설백생항라, 다홍생항라, 백생항라, 옥색싱항나
은라(銀羅)	각색은라(백(白), 다홍, 진분홍, 양초록, 취남)
추라(秋羅)	백추라, 분홍유문추라, 다홍더추라
숙항라	다홍숙항나, 무문숙항나, 남숙항나, 초록숙항나

(6)금(錦)과 직금(織錦)

<표11> 금(錦), 직금(織錦)의 종류(種類)

금(鎰)	금(鎰)
직금(織金)	대홍구봉직금, 대홍용직금, 대홍전자수복자직금, 대홍수천만세직금, 자적수천만세직금, 자적전자수복자직금, 자적구봉직금, 자적용직금, 남전자수복자직금, 남전자수천만세직금, 남구봉직금, 남용직금, 초록금수복자직금, 초록구봉직금
란(欄)	영홍전자수천만세칠복슬란, 다홍전자수복자칠복대란, 다홍구봉칠복대란, 대홍구봉육복대란, 다홍칠복룡대란, 대홍육복룡대란, 자적수천만세칠복슬란, 자적용칠복슬란, 자적전자수복자칠복슬란, 남칠복룡대란, 자적금수복자대란

(7) 단(緞)

<표12> 단(緞)의 종류(種類)

단(緞)	백문(白紋)단, 송화색금수복자별문단(松花色金壽福字別紋緞), 일남만화문단(日藍萬花紋緞), 도류문단(桃榴紋緞), 아청단, 초록단, 옥색단, 다홍빅복문단, 다홍빅조봉치금단, 일남칠보초록문단, 다홍수복문단, 다홍호접문단, 초록도뉴단, 다홍도뉴문단, 양남복자단, 송화색복자단, 초록도뉴문단, 황운문단, 홍운문단, 아청운문단, 즈덕운문단, 아홍운문단, 초록화문단, 미색단, 분홍단, 남송복자단, 홍색슈문단, 옥색화문생수단, 금향색별문황조단, 남닌접문단, 빅접문단, 아청접문단, 다홍복즈단, 송하색도뉴단, 빅복문단, 운학용봉문단, 운학문단, 런복문단, 칠보문단, 칠보초롱문단, 유록운문단, 다홍도뉴단, 장색도뉴단, 연두도뉴단, 낭색뉴문다, 설빅도뉴문다, 양남도뉴문다, 옥색도뉴문다, 즈색도뉴문다, 남도뉴문다
면단(綿緞)	
광화단(廣禾緞)	
모단(冒緞)	
별문단	남송별문단, 옥색별문단, 송화색별문단, 다홍별문단, 뉴청별문단, 분홍별문단, 분홍별문단, 초록별문단, 조덕별문단, 양남별문단, 회색별문단, 황별문단, 다홍색슈별문단, 미색별문단, 아청별문단, 양초록별문단, 진분홍별문단, 남남색별문단, 년지회색별문단, 주황별문단, 당색별문단, 노랑별문단
아랑단(阿郎緞)	자적아랑단
장춘단(長春緞)	남만수(藍萬壽) 장춘단
영초단(英綃緞)	남별문(藍別紋)영초단
채단(綵緞)	각색백조봉(各色白鳥鳳)채단
금선단(金線緞)	각색금선단, 각색대금선단
금단(金緞)	각색금단, 다홍금단, 초록금단, 품남금단, 황금단, 즈덕금단, 다홍빅조봉즈금단, 분홍빅조봉즈금단, 양초록빅조봉즈금단, 일남빅조봉즈금단, 송화색빅조봉즈금단, 보라빅조봉즈금단, 회색빅조봉즈금단, 츠색백조금즈금단
다금선단	아청별문더금선단, 다홍별문더금선단, 취남더금선단, 양초록더금선단, 진황더금선단
통해단(通海緞)	각색유문통해단, 각색무문통해단
슈닌단	옥심순인단
모본단	남모본단, 남송모본단, 즈덕모본단, 양남모본단, 다홍모본단, 옥색모본단, 금향모본단, 홍모본단, 다홍별문모본단, 연분홍모본단, 남오복수모본단, 분홍모본단
능금단	조덕능금단
도규단	다홍도규단, 송하색도규단
양단	즈덕능금단양단, 옥색양단, 즈덕능금사양단, 분홍양단, 보라양단
필단	각색필단
슈단	양남슈단
양화단	남양화단, 초록양화단, 녹홍양화단, 다홍별문양화단, 분홍별문양화단, 양초록별문양화단, 송화색별문양화단, 일남별문양화단, 남송별문양화단
선초단	다홍맛수낙선초단, 무문선초단, 양초록무문선초단, 유문선초단, 아청유문선초단, 비.니유문선초단
호로단	남호로단
조개냥단	다홍조개냥단, 초록조개냥단, 황조개냥단, 양남조개냥단, 분홍조개냥단, 즈색조개냥단, 보라조개냥단

(8) 향직(鄉職)과 광직(廣的) 광사(廣紗)

영조(英祖) 25년(1749)의 「국혼정례(國婚定例)」에 의하면 향직(鄉職)은 왕비(王妃), 빈궁가례(嬪宮嘉禮)에 문단대용(紋緞代用)으로 사용하게 교칙을 내린 직물(織物)이다. 광직(廣的)

은 왕자(王子), 공주(公主), 응주명복(翁主命服)에 문사대용(紋紗代用)으로 사용하게 교칙을 내린 직물이다. 그리하여 대홍향직(大紅鄉職)이 중궁전(中宮殿)의 적의(翟衣), 별의, 내의(內衣), 폐슬(蔽膝), 대홍향직흉배(大紅鄉職胸背)와 전원문로의의(全圓紋露衣), 대홍향직흉배(大紅鄉職胸背)에 겹장삼(袂長衫), 초록향직대대(草綠鄉職大帶), 자적향직유적고리(紫的鄉職襦赤古里), 자적향직관의(紫的鄉職串衣) 자적향직화온혜(紫的鄉職花溫鞋)로 사용되게 되었고 대홍광적겹오(大紅廣的袂襖), 대홍광적겹적료(大紅廣的袂赤了), 대홍광적수(大紅廣的繡), 남황적유적료(藍黃的襦赤了)로 사용되게 되었다.

광사(廣紗)가 소용된 것은 황광사중삼(黃廣紗中衫), 남광사경의(藍廣紗更衣), 자적광사(紫的廣紗), 면사(面紗)등이다. 정조(正祖) 4년(1780)의 「육전조례(六典條例)」에도 권지삼(卷之三) 호조(戶曹) 객사지수(客使支需)에 자적향직(紫的鄉職)과 남황직(藍黃織) 名一匹씩이 있다. 「도지준절(度支準折)」에 의하면 자처호용(諸處所用) 유청향직(柳靑鄉職) 일척(一尺)에 구전(九箋)(제간-諸間), 자적향직(紫的鄉職) 어의대급복완원물소용(御衣襖及服完元物所用)에 一尺九箋 제간(諸間)도 같다. 초록향직(草綠鄉職) 一尺에 諸間(제처소용물(諸處所用物)구전오분(九箋五分), 홍향직(紅鄉職)은 一尺에 제간구전오분(諸間九箋五分), 남향직(藍鄉職)도 諸間이 一尺에 九箋五分이다. 남광적(藍廣的) 홍광적(黃廣的)이 一尺에 국간팔전(國良八箋), 백광적(白廣的)이 九箋(구전), 홍광적(紅廣的)이 국간(國良)이 一尺에 오전오분(五箋五分) 제간(諸間)도 같다.

흑광적(黑廣的)은 대자유자(或大油子)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홍황사(紅黃紗) 一尺價가 간오전(良五箋)이다. 자적대단(紫的大緞)은 국간(國良)으로 一尺에 일량삼전(一兩三箋)인데 자적향직(紫的鄉職)은 9전(箋)이다. 값으로 보아 대단(大緞)보다 약간 낮은 품질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의하면 ‘禁鄉織有紋’의 향직(鄉職)은 문직(紋織)인 것이 나타난다. 향직(鄉職)은 ‘국산직물(國產織物)’, 국산문단(國產紋緞)’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직물(織物)의 명명(命名)이 된 것 같다. 무늬없는 향직(鄉職)은 주자직물(朱子織物) 곧 공단이 되는 것이다.

(9)다회(多繪)

「국혼정례(國婚定例)」에 오색다회(五色多繪)와 아청다회(鴉靑多繪)가 쓰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육전조례(六典條例)」에서 상의원(尙衣院) 의대색(衣櫛色)에서 의대지용물중(衣櫛之用物中)에도 면복소용(冕服所用) 오색다회(五色多繪)와 강사포소용(絳紗袍所用) 오색다회(五色多繪)가 나오고 면복(冕服)에 청조(靑祖), 강사포(絳紗袍)에 청조(靑祖)가 나온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경공장(京工匠)의 전설사(典設司)에 다회장(多繪匠)이 있다.

일본(日本)의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흠명제(欽命帝) 23년 (562) 대반협수언(大伴狹手彦)이 고구려(高句麗)에서 조서타뉴(組緒打紐)를 가져갔으며 공인정부(工人貞部)도 데려가서 조서타뉴(組緒打紐)의 조(祖)가 되었다. 일본(日本)에는 내량시대(奈良時代)의 잡색조대(雜色組帶)가 정창원(正倉院)에 보존되어 있다. 조서타뉴(組緒打紐)는 다회(多繪)이다.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다회(多繪), 청조(靑祖)등이 이와같은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이어진 기공(技工)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본다.

(10)화단포(火浣布)

「성호세설(星湖塞說)」에 화완포(火浣布)는 「열자(列子)」에 ‘주목왕(周穆王) 서융(西戎)을 정복하며 서융이 바친 공물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공충자(孔叢子)」에는 주서(周書)의 말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화완포는 때가 끼면 반드시 불에 넣어 때를 빼는 것인데 진나라에서 이를 보물로 여기고 탐을 내는 까닭에 서융은 감추어 버리고 공물로 바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불연포(不燃布)인 석면포(石綿布)와 같은 것이다.

4)모제품(毛製品)과 피혁(皮革)

일찍이 우리나라에선 부여인(夫餘人)들이 모직물(毛織物)인 계(鬘)를 의류(衣類)로 사용하였고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답등(毳毼), 구유(毳氈)를 제조하여 교역품(交易品)으로 사용하였다. 실제로 신라의 화전(花氈)이 일본(日本)정창원(正倉院)에 오늘날까지 보존(保存)되어 있다. 통일신라(統一新羅)의 공장(工匠)에 모진(毛典), 피진(皮典)이 있고 고려시대에는 계단(契丹)에서 양(羊)이 들어왔고 여진(女眞)의 전공(氈工)들도 가세(加勢)되어 모물제조(毛物製造)가 활발하여 송(宋)나라의 공물품목(貢物品目)에는 홍계(紅鬘)가 있고 후진(後晉)에 보낸 공물품목(貢物品目)에는 계금(鬘錦), 홍지금은오색직성화조계금(紅地金銀五色織成花鳥鬘錦), 홍지금은오색선직성용어계(紅地金銀五色線織成龍魚鬘) 등과 같은 화려한 직물로 된 각종 물품(物品)등이 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당하관이하혼인(堂下官以下婚姻)에 계구사용을 허용한 기록과 모의장(毛衣匠), 전장(氈匠)이 있어 모물(毛物)이 제조되었음이 나타난다. 「육전조례(六典條例)」에도 상의원(尙衣院) 금은색(金銀色)에서 양모전(羊毛氈), 모좌자(毛座子), 모의자(毛倚子), 모답장(毛踏掌)이 예공(例貢)으로 준비(措備)되게 되어 있었다. 직조색(織造色)에서는 모라(毛羅)가 제직되었다. 「상방정례(尙方定例)」에는 홍전(紅氈), 남전(藍氈), 흑전(黑氈), 양모전(羊毛氈)등이 가례용품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다. 「도지준절(度支準折)」에는 모염(毛鬣)로서 이진(狸氈)(長二尺八寸, 廣一尺六寸, 該四百四十八), 홍전일부(紅氈一浮)(紅氈一浮)(장삼척이촌반, 광이척, 해육백오십촌), 흑전일부(黑氈一浮)(장삼척이촌반, 광이척, 해육백오십촌), 백염전일부(白戎氈一浮)(장삼척이촌반, 광이척, 해육백삼십촌), 우모전일부(牛毛氈一浮)(장삼척오촌, 광일척팔촌, 해육백삼십촌), 백양모전일부가(白羊毛精一浮價), 광모일금가(黃毛一金價), 연황미일조가(連黃毛一條價), 진홍상일근가(眞紅象毛一斤價), 조홍상모일근가(造紅象毛一斤價), 갱모(羌毛)一斤價, 장모(獐毛)一斗價, 가저모(家猪毛)一斤價, 산저모(山猪毛)一兩價, 마염(馬鬣)一斤價, 백마염(白馬鬣)一斤價, 초미(貂尾)一條價, 토미(兔尾)一兩價, 백마미(百馬尾)一兩價, 우미일개(牛尾一介), 백아미(白鵝羽), 반백조우(半白雕牛), 치미우(稚尾羽), 고염(羔鬣)一兩價 호염(虎鬣)1건(件) 등 각종 모물(毛物)이 다양(多樣)하게 절가(折價)가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섬유물(毛纖維物)의 제조(製造)의 역사(歷史)는 문헌상(文獻上)에 나타나있는 것만도 2천년이 넘으며 또 그 제조는 단절됨이 없이 계속된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우리나라와 모직물(毛織物), 우리나라와 전류(氈類)(Carpat, Rug)와는 거리가 먼것같이 생각하여 왔으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에서의 모물(毛物)의 역사적(歷史的) 연원(淵源)을 몰랐기 때문이다. 고려 최자(崔滋)의 「삼도부(三都賦)」에는 고려 공경(公卿)들의 저택에 채전(彩氈)을 깔았다고 하여 carpet의 용례(用例)가 나타난다.

(1)피물(皮物)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각종(各種), 피물(皮物)을 의료(衣料)와 복식자료(服飾資料)로서 사용하였다. 「도지준절(度支準折)」중(中)에 피물(皮物)에 ‘有毛曰令 無毛曰張’이라고 하고 홍어피(紅魚皮), 대록피일장(大鹿皮一張), 자적녹(紫的鹿)피일장, 흑록(黑錄)피일장, 중록피(中鹿皮)일장, 초록(草綠)녹피일장, 소록피(小鹿皮)일장, 진헌서(進獻黍)피일장, 서피(黍皮)일장, 사피(斜皮)일장, 우피(牛皮)일장, 수우피(水牛皮)일령, 노피일장, 왜우피(倭牛皮)일장, 마피(馬皮)일장, 백마(白馬)피일장, 홍마(紅馬)피일장, 흑마(黑馬)피일장, 웅(雄)피일장, 웅모피(熊毛皮)일편, 장피(獐皮)일장, 자적장피(紫的獐皮)일종, 홍장피(紅獐皮)일장, 궤자장피(麂子獐皮)일장, 백구피(白狗皮)일장, 모구피(毛狗皮)일령, 전피(狹皮)일장, 황구피(黃狗皮)일장, 대랑피(大狼皮)일장, 토저(土猪)피일장, 점찰피(占察皮)일장, 산저(山猪)피일장, 승어피(升魚皮)일장, 백어(白魚)피일장, 사어피(沙魚皮)일장, 당돈피(唐獬皮)일령, 향돈피(鄉獬皮)일령, 진헌수달피일령(進獻水獬皮一令), 예단표피(禮單豹皮)일령, 예단호피(禮單虎皮)일령, 진헌수달피(進獻水獬皮)일령, 수달피(水獬皮)일령, 산달피(山獬皮)일령, 해달피(海獬皮)일령, 적호피(赤狐皮)일령, 산양피(山羊皮)일령, 양피(羊皮)일령, 진헌향초피(進獻鄉貂皮)일령, 호(胡), 피(皮)일령, 당묘피(唐墓皮)일령, 당서피(唐鼠皮)일령 산서피(山鼠皮) 등 다양(多樣)한 피물(皮物)의 절가(折價)가 있어 참으로 다야한 피물(皮物)이 사용되었던 것이 나타난다.

「육전조례(六典條例)」에도 호조(戶曹) 소관공물중(小官貢物中)에 구피(拘皮), 달피(獬皮), 표피(豹皮), 호피(虎皮), 대록피(大鹿皮), 중록피(中鹿皮), 소록피(小鹿皮), 장피(獐皮), 서피(黍皮), 각색서피(各色黍皮), 각색우피(各色牛皮), 각색울피(各色熊皮), 모구피(毛狗皮), 적호피(赤狐皮), 산달피(山獬皮), 치미우(雉尾羽), 당돈피(唐獬皮), 향돈피(鄉獬皮), 서피(鼠皮) 등이 정하여진 것이 나타나있다. 모물(毛物)과 더불어 다양한 피물(皮物)이 사용된 것이다.

(2)모칠(毛綴) 조선철(朝鮮綴)

모칠(毛綴), 조선철(朝鮮綴)은 17세기(世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조선(朝鮮)에서 제작(製織)되어 일본(日本) 덕천막부(德川幕府)와의 교린(交隣)에 의하여 조선(朝鮮)에서 수출되어 일본(日本)에 건너간 일종(一種)의 모직(毛織) 장(帳)(벽거리), 필물(Carpat, Rug) 류(類)에 대한 일본(日本)의 명명(命名)이다.

<사진1-1>, <사진1-2>는 모칠(毛綴)(조선철(朝鮮綴))의 부분(部分)사진이다. <사진1-3>은 제직양식(製織樣式)(조직(組織))의 확대사진이다. <사진1-4>는 모칠(毛綴)에 있는 묵서(墨書)의 중요(重要)한 부분이다. ‘寬永拾五年六月二日’이라고 묵서(墨書)가 되어 있으며 녹증종무(鹿增宗茂)가 기증한 것으로 되어있다.가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日本)에서 고문서(古文書)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이 연대(年代)는 1638년(年)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일본(日本)에서도 강호초기(江戶初期)에 조선(朝鮮)과의 교역품(交易品)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日本)에서는 장(張)으로 사용되었으나 필자가 조사한 결과 장(張)과 필물에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봉황문(鳳凰紋)과 호문(虎紋) 이중류(二種類)에 대한 조사를 1991년 7월부터 하였다. 전자(前者)는 폭(幅) 117cm, 장(長) 185cm이고 후자(後者)는 폭(幅) 192.5cm, 장 271.5cm이다. 전자(前者)의 문양(紋樣)과 그 배치는 민화적(民畫的)이고 후자(後者)는 추상적(抽象的)으로 조직(組織)에 의한 문양표현(紋樣表現)의 맵시는 가히 일품(一品)으로서 조선적(朝鮮的) 직공공

예(織物工藝)의 정수(精髓)였다.

신라의 탐등(毳毼), 백제(百濟)의 구유(毳氈), 고려(高麗)의 모금(毛錦)과 직성(織成) 등 우리나라에서 이천년사(二千年史)를 가지고 이어 제직(製織)되어온 모직(毛織)타피스트리의 (Tapestry weave)의 함축물(含蓄物)인 것이다. 고려시대의 직성(織成)이 곧 이와 동류(同類)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직사의 굵기, 질에 차이에 있었을 뿐일 것이다. 첨모직물(添毛織物)이 아니고 경무직(經畝織)으로 평직(平織), 변화평직(變化平織)의 제직양식인 점에서 조선시대의 석자적(席子的) 특성(特性)이 나타나 특산(特産)으로서 동양(東洋)필물(Oriental rug)의 한 장(場)이 되는 직물공예품이다.

3. 개국(開國)(개화(開花))전후(前後)의 조선시대직물(朝鮮時代織物)

오랫동안 비외보수(非外保守)로서 국시(國是)를 삼아왔던 조선(朝鮮)이 1876년 일본(日本)과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을 체결하고 1882년에는 미(美), 영(英), 독(獨)과 1884년에는 노(露), 이(伊), 1886년에는 불(佛)과 각각 통상수호조약(通商修好條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1910년에 한일합병(韓日合併)을 하게 되니 조선시대에는 구미(歐美), 일본(日本)의 문물(文物)이 급격하게 들어오게 되었다.

조선(朝鮮)의 직물생산(織物生産)과 소비(消費)에도 큰 변화(變化)가 일어났다. 조선산(朝鮮産) 중국산외(中國産外)에 영국산(英國産), 일본산(日本産), 불국산(佛國産)이 수입되어 같이 유통(流通)되게 되었다. 일본(日本)의 궁촌태사(宮村泰司)씨는 「조선(朝鮮)의 직물(織物)에 취(就)て」에서 1917년(명치(明治) 39년)까지를 조선에 있어서 영국제품독점시대(英國製品獨占時代), 그 이후를 일본제품대항시대(日本製品對抗時代), 1909년(명치(明治)42년) 이항(以降) 이후를 일본제품독점시대(日本製品獨占時代)라고 하였다. 1917년 부산(釜山)에 조선방직주식회사(朝鮮紡績株式會社)가 설립(設立)되어 1919년 영등포(永登浦)에 경성방직회사(京城紡績會社)가 설립(設立)되고 1924년 목포(木浦)에 조선면화회사(朝鮮棉花會社)가 설립(設立)되어 조선(朝鮮)의 직물생산(織物生産)은 근대적(近代的) 공장공업형태(工場工業形態)로 변모하여 조선산(朝鮮産)과 일본산(日本産)의 근대적(近代的) 생산품(生産品)의 병용(併用)된 때를 내지제품(內地製品), 선산품병용시대(鮮産品併用時代)라고 하여 구분(區分)하였다. 외래직물중(外來織物中)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근대적(近代的) 직물공업(織物工業)의 산물(産物)인 영국산면포(英國産綿布)와 일본산면포(日本産綿布)였다. 이와같은 면포(綿布)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직기(手織機)(베틀)로 고래(古來)로부터 제직되어온 무영의 유통(流通)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면포(綿布)뿐만 아니라 견(絹), 모직물(毛織物)도 각종(各種)이 수입되어 병존(併存)하게 되었다.

일본인(日本人) 길영언태랑(吉永彦太郎)씨가 8개년(個年)을 수집하여 1915년 발표한 「조선향염직물각칭류회(朝鮮向染織物各稱類彙)의 직물명(織物名)과 수입원을 통하여 이 시기의 우리나라에서 유통(流通)되었던 각지역(各地域)의 직물명(織物名)과 조선산(朝鮮産)직물명(織物名)이 나타나고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 직물(織物)에 대한 설명도 첨가되어 있어 그 시대의 직물이해에 도움이 된다.

1)조선산직물명(朝鮮産織物名)

	은조사(銀條紗)	경생사(經生絲), 위련사(緯練紗) 일본(一本)아다 익직(搨織)
	국사(菊紗)	경호감(經糊甘)한 생사(生絲),위계(緯系), 연사(練絲), 평지(平地)에 익직(搨織)
	소국사(素菊紗)	무문국사(無紋菊紗)
	국사(局史)	국사(菊紗)
	갑사(甲紗)	경생사, 위련사, 인상익직(鱗狀搨織)
	문갑사(紋甲紗)	무문갑사
	무문갑사(無紋甲紗)	경위 모두 생사로 평직지(平織地) 익직문(搨織紋)
	생고사(生庫紗)	연사 사용 고사(庫紗)
	숙고사(熟庫紗)	진주를 이은 듯한 익직
	진주(眞珠)사	생직문사(生織紋紗)
	향운(香雲)사	국사(菊紗)같은 유문양(唯紋樣)
	란(蘭)사	의식용제등직물(儀式用提燈織物), 갑사같이 보인다.
	공사(貢紗)	춘포(春布) 련(練)한것
	춘사(春紗)	경생사, 위실켓가의 평직생주(平織生紬) 대용품(代用品)
라(羅)	한양(漢陽)사	려(紹)
	항라(尙羅)	평남(平南) 안천산(安川産)
	안(安)항라	평남 덕천산(德川産)
	덕(德)항라	삼월려(三越紹)
	삼족항라(三足尙羅)	오월려
	오족(五足)항라	염색항라(染色尙羅)
	색(色)항라	경생사, 위저사(緯苧紗) 이본생사(二本生絲)(견저(絹苧)) 이본교호직입(二本交互織入) 후련(後練)
단(緞)	선라(蟬羅)	선라
	신라(縮羅)	이합사, 와사사로 제직한 산형사문면포(山形斜紋綿布), 소, 중, 대폭유(大幅有)
	팔자(八字)단	이합사로 제직한 산형사문의 면포
	이합인자(二合人字)단	와사사로 제직한 산형사문면포
	와사인자단(瓦斯人字緞)	일본산(日本産)보통 사문나단(斜紋羅緞)과 同品位 大幅은 一尺六寸
	대폭속사단(大幅速斜緞)	미술품(美術品), 미술품제작공장제(美術品製織工匠製)
	단풍(丹楓)단	„
	백합(百合)단	„
	국화(菊花)단	„
	혜화(惠化)단	„
	노고화단(老姑花緞)	미술품, 미술품제작공장제
	이화(李花)단	„
	계화(桂花)단	„
	해운(海運)단	„
	불로(不老)단	„
	오엽(梧葉)단	„
	태극(太極)단	„
저(苧)	자손(子孫)단	표백하지 않은 저포(苧布)
	생저(生苧)	표백한 저포
	백저(白苧)	표백저포중 중등품(中等品)
	백중저(白中苧)	상등품(上等品) 표백저포, 사조직세포(絲條織細布)
	백전저(白烟苧)	전남장성군산
	장성(長成)저	장성저의 약칭
	장(長)저	충남 청양군산
	청양저(靑陽苧)	충남 한산산, 저산칠군(苧産七郡)으로부터 집산한 세포. 품위 최우량(最優良)
	한산저(韓山紵)	충남홍산사
	홍산저(鴻山苧)	

포(布)	저포(苧布) 생(生)저포 백(白)저포 황(黃)저포 장(長)포 청양(靑陽)포	반(半)표백한 저포 전남 장성군산 충남 청양군산
마(麻)	마포(麻布) 숙마(熟麻)포 토포(土布) 상포(常布) 농포(農布) 필(疋)포 세포(細布) 삼승(三繩)포 칠승(七乘)포 구승(九升)포 강(江)포 양(襄)포 조포(造布) 주광조포(紬廣造布) 환(換)포 무(茂)포 북(北)포 세북(細北)포 길(吉)포 경(鏡)포 초(楚)포 안동(安東)포 청운(靑雲)포 의성(義城)포 해남포(海南布) 거창(居昌)포 구례포(求禮布) 맹(孟)포	대마직포(大麻織布) 반표백한 마포 하등품마포 보통마포 농부의료용 마포 필이 되는 긴마포 섬세마포 삼승포(三升布)라고도 한다. 십삼산(十三算)으로 제직된것 칠산(七算)바디로 제직된것 구산바디로 제직된것 강원도 강릉산 강원도 양양산 함북산마포 환포(換布)라고도 한다 함북, 회령, 은성, 경성산 함북 무산산 함북 경성, 길주, 명천산 섬세북포 함북 길주군산 함북 경성산 함북 명천군, 초촌산(楚村産) 경북 안동산, 경북 청송군, 안동포와 품질이 같음 경북 의성군산 해안산 거창산 전남(全南) 구례산 평남 맹산산
갈포(葛布)	갈(葛)포	갈로제직한 포, 조선에서 많이 제직, 자가제직, 소비, 시판품 없음
교직(交織)	반주(班紬)포 춘포(春布)	반주(班紬) 소사(素紗)와 같다. 숙춘포(熟春布)가 있다.
면(綿)	소폭(小幅)면포 반포(班布) 생목면(生木綿) 백(白)목 준(準)목 세(細)목 중(中)목 상(常)목 수(水)목 청(靑)목 황(黃)	족담기(足踏機)로 제직한 일척폭면포 반비(班比)라고도 하는 소폭면포, 수건, 밥그릇 싸는데 사용 표백면포 우량목면 섬세면포 중등면포 보통면포 조목(粗木)면포 남염목면(藍染木綿) 갈색을 띠는 면화의 섬유로 방직, 제직한 것

보(褌)	삼승(三升)목	십삼산(十三算)바디로 제작한 목면	
	팔승(八升)목	팔삼산 바디로 제작한 목면	
	단계(單系)목	이합, 삼합 편사(片絲)로 사용한 것	
	이십방목(二十紡木)	이십번면사(二十番綿絲)로 제작한 것	
	四二二紡木	42번(이합사가 많다)로 제작한 것	
	진(晉)목	경남 진주산	
	진(全)목	전북 전주산	
	경(慶)목	경북의성산, 상등품, 해평산(海平産) 상등 대구산(大邱産) 하등	
	영암장지(靈岩長之)목	전남 영암지방산 일필장(一匹長) 九尺四十尺, 그래서 장척(長尺)이라고 함	
	한양(漢陽)목	염색한 편사로 경성에서 제작한 소폭면포	
	황(黃)보	목필보라고 하는 청색 면포에 흑색문양(黑色紋樣)	
	목필(木疋)보	금건(金巾)을 엮은 색으로 염색, 목판염(木版染)으로 흑문인화(黑紋印花)	
	목화(木花)보	백금건에 목판. 붓으로 문양을 그린 것	
	청(靑)삼승	남염소폭목면(藍染小幅木綿)의 상등품	
기타	반비(班比)	반포(班布)	
	조선조보자(朝鮮造褌子)	조선인이 문양을 인화 또는 그린 보자기 포	
	누비(縷飛)	등심포(燈心布)	
	필누비(疋縷飛)	일필이 되는 누비	
	누비(縷緋)	누비	
	노(老)비	“	
	욕판(褥板)	오뒤용 포	
	와사능(瓦斯綾)	와사사로 제작한 능직소폭면포	
	삼승	三升木, 上等小幅木綿布	
	세루	六내지 二尺幅 유색능목면(有色綾木綿) 수원지방(水原地方) 제작과 명명	
	생견(生絹)	생주	
	생삼팔주(生三八紬)	조선산보다 폭이 좀 넓고 지합(地合)이 좋다	
	백삼팔주	지나산(支那産) 명주(明紬)	
	색삼팔주	지나산 명주를 조선에서 염색한 것	
생노방주(生老紡紬)	생삼팔주와 같은 것으로 지후(地厚)하고 폭이 넓고 상등품		
백로(白老)방주	우이중(羽二重)같은 것으로서 지후하고 폭 一尺三寸, 숙로방(熟老紡)이라고도 한다		
주(紬)	문(文)주	갑배견(甲裱絹)같은 두꺼운 양산지 같은 것	
	진원지(眞原苧)주	저주라고도 한다. 목지주(木苧紬)와 구별 견직이 있다.	
	지(苧)주	일락직(一樂織), 평직, 평지문입(平地紋入), 전견(全絹), 견면교직(絹綿交織) 각종(各種)	
	해동(海東)주	산동주와 동,조선산임으로 조선인이 붙인 직물면	
	산(山)동주	작잠주(柞蠶紬)	
	출산(婁山)동주	백지(白地)에 남봉고(藍棒稿)의 삼입주(三入紬)	
	원(元)주	경실캣트, 위견사, 사문직(斜紋織)	
	원(原)주	원주(元紬)	
	초(綃)	색초(色綃)	감색무문의 항영(杭永)이다
		무문(無紋)초	무문의 항영, 많은 경우 소영(素英)을 가르킨다
		영(英)초	영초단(英綃緞), 접영(接永)이라고도 한다
		항영(杭永)초	상등품영초, 항영이라고도 한다 지나산 단자(緞子)이다
		영(英)초	영초(永綃)
		세문영(細紋英)초	문양이 세한 영초
생견(生絹)		경색 위생 또는 연교직(練交織)의 익직(摺織)	
나방(羅芳)견		경위색을 달리한 연려(練紹), 숙항라(熟尙羅)	
라(羅)	당항라(唐尙羅)	지나산려(紹) 조선산보다 사조정(絲條精)하고 색백(色白), 조선산 중에서도 상등품은 당항라라고 한다	
	은라(銀羅)	은라계(銀羅系), 은라단(銀羅緞)의 약칭	

단(緞)	추(秋)라	경계이우(經系二羽)에 三本 위사는 六本마다 간격을 두어 二一의 사문(斜紋)으로 조직. 一見 絹같으나 撈織이 아니다
	을(乙)라	경생사 위생사 일련사(一練絲) 二生絲 一言十四本마다 간격을 두어 絹같이 보인다
	생저항라(生苧尢羅)	저직려(紵織縞)
	백(白)저항라	정련 표백한 저항라
	모본(摹本)단	견문(絹文) 수자(繡子)
	모본(模本)단	“
	모본(毛本)단	“
	대(大)단	수자
	누(累)단	무문수자
	대화(大花)단	대화모본단(大花摹本緞)
	영초(永硝)단	문(紋)을 수자조직(繡子組織)으로 제직하고 지(地)는 평후지(平厚地)
	서식(西息)단	서양모양(西洋模樣)의 일종(一種)의 영단(英緞)
	고(庫)단	일종의 모본단
	문(紋)고단	“
	오채(五彩)단	경위오색(經緯五色)으로 시송지(市松地)에 문직입(紋織入). 일종의 모본단
	진주(眞珠)단	진주사
	은라단(銀羅緞)	은라관사(銀羅官紗), 은라(銀羅)라고도 한다
	공(公)단	수자
	금(錦)단	금(錦)
	정금(正錦)단	본금견직금(本金絹織錦)
양(洋)단	모본단 같은 두꺼운 것	
차양(次洋)단	얇은 문우이중지풍(紋羽二重地風)	
서식단(西式緞)	경흑위백(經黑緯白)의 일락직(一樂織)	
저(苧)	당저(唐苧)	생당포
포(布)	생(生)당저	“
	백(白)당저	생당저 표백한것
	세(細)당저	생당저의 상등품
	청반(淸班)포	남호중폭대면(藍縞中幅大綿)
	화(畫)포	남지백형양면염발목면(藍地白形兩面染拔木綿). 침구용
	생당포(生唐布)	저포(苧布)
	문(文)포	
	소화(小貨)포	소하포(小夏布)
	소하포(小夏布)	
	대(大)하포	
광당포(廣唐布)	광폭생당포(廣幅生唐布)	
세(細)광당포		
생(生)광당포		
백(白)광당포		
광승포(廣升布)		
갈(葛)	갈포(葛布)	
	세(細)갈포	
	진(眞)갈포	
마(麻)	도리마(道理麻)	도리사중 지후(地厚)한것
	차라마	도리사
면(綿)	삼승(三升)	상등품소폭목면(上等品小幅木綿)
기타	항영(杭永)	접영(接永), 무문영덕천산단(無紋永德川産緞)의 상등품, 지나단자(支那緞子)
	문(紋)항영	영초단(英納緞) 상등품

	정영(頂永) 소정영(素頂永) 소영(素永) 숙접(熟接) 항령(抗寧) 문항영(紋亢英) 항영(抗英) 생소(生素) 숙소(熟素) 축소(縮素) 숙수(熟睡) 노비(盧非) 노비(老緋) 노방(老芳) 순인(純仁) 숙운(熟雲) 항영(抗令) 대폭변자(大幅邊子) 소폭(小幅)변자 장의앵(長衣櫻) 三八	항영(亢英) 무문항영(無紋亢英) 접영(接永) 숙소(熟素) 숙소 경생사(經生絲), 위련사(緯練紗)의 사직(紗織) 숙운(熟雲)의 무문 숙소 숙소 일종의 호관사(縞官紗) 조방주 무문갑사(無紋甲紗) 문갑사(紋甲紗), 연사직(練絲織)으로 향운사(香雲紗)와 같은 것 미술공장제항영(美術工匠製杭永), 급사문(急斜紋), 유문(有紋) 리본같이 폭이 좋은 후지문(厚地紋) 子, 조선부인 구두용 주의경(周衣經) 수자지(繡子地), 끈 끝에 장식적 근모양(筋模樣) 삼팔주(三八紬)
모직(毛織)	모직(毛織) 대(大)모직 전(氈) 모전(毛氈) 호숙(胡叔) 세루(細縷)	양복지라사(洋服地羅紗) 다소면혼방(多少綿混紡) , 양복지용일락직 중선단(中縵緞)과 같은 지후(地厚). 유연하다
교직(交織)	아루마카	면모(綿毛)

3)일본산(日本産)(내지산(內地産))

사(紗)	왜사(倭紗) 주사(走紗) 목저(木苧)사 청(靑)사	사호견고기견(絲好絹高崎絹)으로 실이 섬세한 평직생견 순견축면(純絹縮綿) 목면축(木綿縮) 면직문장지(綿織蚊張地), 익직이 아니다
단(緞)	문고단(紋庫緞) 나단(羅緞) 일(日)고단 일본모본단(模本緞)	면직 견문고단(絹紋庫緞)과 같다 幅二尺, 十五尺, 산형(山形)사문, 사문 윤자 지나산과 같으나 위사에綿을 쓴것
저(苧)	목저(木苧)	木綿縮
포(布)	황화포(黃花布) 일화포(日畫布) 양대포(洋大布)	일본화보(日本花褌) 소폭목면 황색지(黃色地)에 흑형(黑形)에 야구(夜具)와 보자기 황화포(黃花布) 천축목면(天竺木綿)
면(綿)	일본(日本) 당목(唐木) 황보(黃褌) 일본화보(日本花褌) 책(冊)보	소폭(小幅)목면 금건(金巾), 양목(洋木), 광목(廣木)과 같은 것 일본산목(日本産褌) 필목보(疋木褌)
기타	고구라(古九羅)	소창직(小倉織)

(4) 영국산(英國產)

직물명(織物名)		직물설명(織物說明)
주(紬)	양저주(洋苧紬)	견면 세밀일락직
	문(紋)양저주	평지(平地)에 문(紋), 중국의 견사주와는 다르다
	목(木)저주	양저주(洋苧紬), 문(紋)저주
	양사(洋紗)	한랭사(寒冷紗)
	화(花)양사	실케트 능호직(綾縞織), 양복안감
	문망사(門網紗)	커튼용 레이스직(織)
	망사(網紗)	얼굴에 느리는 용도
	대모사(大毛紗)	경면(經綿), 위모(緯毛)
	유문모사	관사(官紗)같은 것(면모(綿毛))
	반(班)모사	면과 모로된 상강입(霜降入) 호직(縞織)
	줄(杼)모사	호면모교직모사(縞綿毛交織毛紗)
	대광모사(大廣毛紗)	생(生)모스린 풍
	줄(杼)대광모사	
	줄(杼)소광모사	
	십(十)모사	
사(紗)	소광라광사(少廣羅廣紗)	경면(經綿) 위흑(緯黑) 면계(綿系) 백인조견계(白人造絹系) 各二本 마다 직입(織入)
	양라사(洋羅紗)	보통라사
	양항라(洋尙羅)	한랭사 같은 것 면(綿)
	목모본다(木摹本緞)	실케트 지풍(地風)의 사문(斜紋)직
	대마미단(大馬尾緞)	대마미단의 三尺六寸幅 기사문(其斜紋) 즉 능(綾)의 굵기로 大, 中, 小 명명
	대광(大廣)대마미단	
	색(色)마미단	대마미단, 세마미단의 白地에 대한 有色的 意
	목(木)마미단	마미단이 목면직(木綿織)인것
	목선단(木宣緞)	대면선단(大綿宣緞)
	목선단(木線緞)	
	목포(木浦)단	호부(糊付)된 면포(綿布)에 목리양(木理楊)의 형(形)을 압인(壓印)한것
	나단(羅緞)	위사(緯絲)가 약간 굵은 묘직실케트 직물(織物)
	대광(大廣)라단	三尺六寸大幅의 나단(羅緞)
	소광목(小廣木)라단	三尺幅木綿羅緞 묘쪽
	대(大)라단	羅緞과 같은 것으로 위계(緯系) 굵고 광폭(廣幅)
나(羅)단(緞)	태서단(泰西緞)	면수자(綿繡子)
	무문태서단	
	유문태서단	흑지(黑地)에 방형문(方形紋)인 지후(地厚)한 두옹(斗絨)과 같은것
	줄(杼)태서단	면수자(綿繡子)에 횡근직(橫筋織)
	목고단(木庫緞)	실케트 수자문직(繡子紋織)
	양고단(洋庫緞)	인단(仁緞)과 유사한 화문점좌(花紋點左) 한 후목면일락직(厚木綿一樂織)
	목(木)양고단	
	인단(仁緞)	실케트 지후한 일락조직직물
	소광인단	二尺幅
	대광인단	二尺八寸幅
	차(次)인단	仁緞과 거의 같게 보이나 組織이 조금 다르고 品位가 조금 떨어진다.
	목(木)인단	木綿仁緞
	한(寒)라단	한라(寒羅), 한라(漢羅)모두 같은 것
	양격자단(洋格子緞)	격자(格子) 호와사직물(縞瓦斯織物)
	격(格)자단	양격자단洋格子緞
차우단(次羽緞)	면천연용(綿天鵝絨)	

목(木)	양목(洋木) 백(白)양목 옥양목(玉洋木)	얇은 금건(金巾)(광목(廣木)) 표백된 금건
포(布)	주한포(周漢布) 주란포(周蘭布) 회자포(回子布)	호부면포(糊付綿布), 로라처리 주한포(周漢布) 藍地에 백문양날염포(白紋樣捺染布), 침구用, 보자기用, 회자포(回子布), 회(灰) 자포라고도 함
용(絨)	홍심포(虹心布) 양(洋)포 상두용(上斗絨) 차(次)두용 회색(灰色)두용	누비(縷飛) 양식(洋式)실내장식용 면포(綿布) 능지(綾地)에 편면호(片面糊), 후란넬 같은 후지
보(褌)	필보(疋褌) 색(色)필보 화(花)보 색화(色花)보 문(紋)보 회자(回子)보	경(經)에 흑(黑) 위(緯)에 백(白)실케트사를 사용한 문직물(紋織物) 사라사
기타	누비(縷飛)	

5) 불국산(佛國產) 직물명(織物名)

직물명(織物名)	직물설명(織物說明)
화문망사(花紋網紗) 범용(法絨) 줄범용(法法絨)	양식문망직물(樣式紋網織物) 이태리(伊太利) 네루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지풍(地風)의 면(綿)후란넬 호모양(糊模樣) 날염면(捺染綿) 후란넬

6) 1930년경(年頃) 조선산(朝鮮產) 마포(麻布), 저포(紵布)의 품위(品位)

우리나라의 마포(麻布)와 저포(紵布)는 세계적(世界的)인 특산(特産)이다. 마섬유(麻纖維)는 세계(世界) 각지(各地)에서 생산되었으며 저섬유(紵纖維)도 동양권(東洋圈)의 여러지역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나 가장 섬세한 포(布)로 제작된 지역은 우리나라였음을 1985년에 필자가 국제복식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¹¹²⁾ 오늘날까지 이의(異義)가 없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마포(麻布)(베)와 저포(紵布)(모시)는 그 품질이 우수하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토(國土)가 마섬유와 저섬유의 생장에 적합하기 때문이며 또 직녀(織女)의 기교(技巧)가 섬세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국(中國)(당(唐), 송(宋), 원(元), 명(明), 청(淸))에서는 우리나라의 섬세한 마(麻), 저포(紵布)를 선호하여 교역품(交易品)으로서 무한히 수입하여 갔다. 이와 같은 마(麻), 저포(紵布)의 전통은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으나 그 품질(品質)에 있어서 옛것을 따를 수가 없다. 오늘날 그 유품(遺品)도 많이 전하여 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1930년경(年頃)의 마(麻), 저포(紵布)를 일본(日本)의 실전무린(室田武隣)씨가 그 품위(品位)를 조사한 것이 있으며 그 다시 시료(試料)로 사용한 마(麻), 저포(紵布)의 sample이 마포(麻布) 34편, 저포(紵布) 12편이 있어 필자가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산과 중국산의 품위(品位)를 비교한 결과도 보고 되어 있다.¹¹³⁾

품위비교개평(品位比較概評)에 포(布)의 균제도(均齊度)를 나타내 후차(厚次)는 조선산과

112) Gil Za Min, 「Ancient Korea speciality fiberics」, J. Int. Assoc. Custome, No.2., 1985

113) 室田武隣外, 「朝鮮產麻布の品位と製織改良標準」, 近澤印刷部(京城). pp.69-104, 1930.

중국산이 같고 번수(番手)와 밀도(密度)의 조합(組合)은 조선산이 우수하여 강도(強度)도 조선산이 우수하다. 마찰도는 중국산이 우수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1930년대의 우리나라의 마(麻), 저포(紵布)에는 오늘날의 마, 저포보다 상당한 전통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봄으로 그 전통성의 실험적(實驗的) 가치를 상고하여 보기 위하여 중요한 품위성적표(品位成績表)를 그대로 심는다.

조선산 대마포 품위 시험 성적(朝鮮產 大麻布 品位 試驗 成績)

시험기호 (試驗記號)	품명(品名)	산지(產地)	원료(原料)	1필(疋) 가격 (價格)	장(丈)	폭(幅)	중량 (重量)	후도평균 (厚度平均)	후박박 (厚薄差)
1	안동마포(安東麻布)(甲)	경북(慶北) 安東	수방(手紡) 大麻絲	8.45	22.80 (60.2)	36.8 (9.7)	1085 (290)	0.326	0.08
2	同 上 (乙)	同上	“	6.95	22.93 (60.5)	36.0 (9.5)	1080 (288)	0.288	0.07
3	청송(淸誦)마포(갑)	慶北 靑松	“	12.42	22.24 (58.7)	36.0 (9.5)	1116 (311)	0.309	0.12
4	同 上 (乙)	同上	“	8.40	22.40 (59.1)	36.4 (9.6)	1535 (410)	0.394	0.11
5	맹산(孟山)마포(甲)	平安 孟山	“	6.40	18.00 (47.5)	36.8 (9.7)	1036 (290)	0.388	0.07
6	同 上 (乙)	同上	“	4.50	18.04 (47.6)	35.6 (9.4)	1162 (310)	0.439	0.08
7	회녕(會寧)마포(甲)	咸北 會寧	“	10.00	10.95 (28.9)	45.1 (11.9)	445 (119)	0.265	0.06
8	同 上 (乙)	同上	“	5.00	10.76 (28.4)	45.1 (11.9)	685 (183)	0.372	0.90
9	무산(茂山)마포(甲)	咸北 茂山	“	3.25	1084 (28.6)	45.5 (12.0)	725 (192)	0.429	0.80
10	同 上 (乙)	同上	“	2.25	1084 (28.6)	44.0 911.6	732 (196)	0.465	0.14
11	준양(準陽)마포(甲)	江原 準陽	“	8.00	18.72 (49.4)	37.1 (9.8)	875 (233)	0.345	0.04
12	同 上 (乙)	同上	“	6.00	16.68 (44.0)	33.4 (8.8)	1175 (315)	0.442	0.08
13	남원(南原)마포(甲)	全北 南原	“	6.00	15.70 (41.4)	33.7 (8.9)	900 (240)	0.405	0.09
14	同 上 (乙)	同上	“	3.00	13.42 (35.4)	33.7 (8.9)	1054 (281)	0.565	0.10
15	삼수(三水)마포(甲)	咸男 三水	“	6.00	11.90 (31.4)	38.3 (10.1)	671 (179)	0.334	0.08
16	同 上 (乙)	同上	“	4.50	12.24 (32.3)	39.4 (10.4)	964 (257)	0.423	0.08
17	의성(義城)마포(甲)	慶北 義城	“	8.00	18.87 (49.8)	34.9 (9.2)	904 (241)	0.244	0.07
18	同 上 (乙)	동상	“	7.00	22.36 (59.0)	37.1 (9.8)	1354 (361)	0.375	0.14
19	거창(居昌)마포(을)	慶南 居昌	“	2.80	11.86 (31.3)	36.4 (9.6)	911 (243)	0.416	0.08
20	협천(陝川)마포 (甲)	慶南 陝川	“	3.10	11.97 (31.6)	36.4 (9.6)	416 (111)	0.420	0.11
21	同 上 (乙)	同上	“	2.80	11.63 (30.7)	36.8 (9.7)	544 (145)	0.473	0.10
22	양덕(陽德)마포(甲)	平南 陽德	“	10.00	19.58 (51.7)	37.1 (9.8)	1140 (304)	0.364	0.07
23	同 上 (乙)	同上	“	4.50	19.85 (52.4)	39.4 (10.4)	1392 (371)	0.479	0.14

시험기호 (試驗記號)	품명(品名)	산지(產地)	원료(原料)	1필(疋) 가격 (價格)	장(丈)	폭(幅)	중량 (重量)	후도평균 (厚度平均)	후박박 (厚薄差)
24	구례(求禮)마포(甲)	全南 求禮	“	15.00	18.45 (48.7)	37.9 (10.0)	964 (257)	0.376	0.14
25	同 上 (乙)	同上	“	8.00	15.23 (40.2)	36.4 (9.6)	922 (246)	0.446	0.13
26	희천(熙川)마포(甲)	平北 熙川	“	6.00	11.45 (30.2)	37.5 (9.9)	1793 (479)	0.507	0.09
27	同 上 (乙)	同上	“	3.50	22.93 (60.5)	36.8 (9.7)	2321 (619)	0.629	0.18
28	영동(永同)마포(乙)	忠北 永同	“	3.50	13.91 (36.7)	35.6 (9.4)	1403 (374)	0.599	0.13
29	명천(明川)마포(甲)	咸北 明川	“	2.70	11.75 (31.0)	36.4 (9.6)	776 (207)	0.412	0.16
30	同 上 (乙)	同上	“	2.30	11.86 (31.3)	36.8 (9.7)	889 (237)	0.507	0.19
31	강계(江界)마포(甲)	平北 江界	“	11.00	36.02 (95.1)	37.9 (10.0)	2438 (650)	0.469	0.10
32	同 上 (乙)	同上	“	4.80	24.17 (63.8)	35.6 (9.4)	2539 (677)	0.337	0.11
33	풍산(豊山)마포(乙)	咸男 豊山	“	10.20	13.33 (35.2)	37.9 (10.0)	750 (200)	0.337	0.08
34	갑산(甲山)마포(乙)	咸男 甲山	“	2.99	11.10 (29.3)	34.9 (9.2)	731 (195)	0.451	0.13

1平方 尺重量	算定番 手	밀도(密度)		수축율(收縮率)		호 감 율 (糊減 率 %)	강도(強度)		신도(伸度)		마찰도(摩擦度)	
		경(經)	위(緯)	폭(幅)	장(丈)		經方向	緯方向	경방향	위방향	경방향	위방향
20.6 (5.5)	44	18 (8.5)	20	7.2	5.8	3.3	54.7	56.2	29	27	400	349
20.6 (5.5)	53	22 (10.5)	24	8.4	3.6	3.3	51.1	43.8	30	29	192	952
19.9 (5.3)	51	21 (20.0)	22	4.2	3.6	13.6	51.6	71.0	39	29	531	752
27.4 (7.3)	32	19 (9.0)	18	8.3	8.8	14.5	61.0	62.7	33	28	1971	873
23.6 (6.3)	29	17 (7.0)	12	1.0	2.4	10.0	56.1	46.5	23	15	1767	231
25.9 (6.9)	23	14 (6.5)	11	4.3	2.0	8.7	59.1	54.2	21	24	195	175
12.0 (3.2)	75	22 (10.5)	16	1.7	0.0	8.7	34.7	28.2	16	12	39	31
20.3 (5.4)	33	14 (6.5)	14	1.7	2.8	8.5	41.6	43.7	16	17	64	35
20.3 (5.4)	33	14 (6.5)	14	1.8	2.4	9.1	47.1	38.4	16	16	37	80
18.8 (5.0)	24	11 (5.5)	8	0.9	2.0	16.5	40.3	282.2	15	15	15	9
19.9 (5.3)	37	16 (7.5)	15	1.2	2.4	7.4	55.8	64.1	21	26	286	518

1平方 尺重量	算定番手	밀도(密度)		수축율(收縮率)		호감율(糊減 率) %	강도(強度)		신도(伸度)		마찰도(摩擦度)	
		경(經)	위(緯)	폭(幅)	장(丈)		經方向	緯方向	경방향	위방향	경방향	위방향
25.5 (6.8)	24	14 (6.5)	12	2.3	3.6	10.8	54.5	67.4	19	20	151	236
24.4 (6.5)	33	18 (8.5)	15	4.5	1.6	7.8	58.0	48.4	21	19	157	104
32.3 (8.6)	18	13 (6.0)	12	5.6	5.2	14.8	46.4	42.7	24	29	236	140
21.0 (5.6)	41	18 (8.5)	18	6.9	3.6	5.6	63.2	66.9	20	22	219	343
26.6 (7.1)	25	16 (7.5)	12	3.8	1.8	14.0	65.8	65.3	26	21	2013	266
37.1 (9.9)	30	24 (11.5)	33	6.5	7.2	4.1	38.3	47.0	31	32	1637	1127
25.1 (6.7)	34	19 (9.0)	17	6.1	8.0	6.3	55.5	64.6	36	29	1158	461
27.0 (7.2)	23	14 (6.5)	12	2.1	3.8	13.9	71.5	63.2	16	17	114	147
24.4 (6.5)	29	15 (7.0)	15	3.2	2.8	9.6	56.6	60.3	21	23	138	197
28.9 (7.7)	30	14 (6.5)	10	2.1	4.0	13.5	88.5	90.6	18	20	122	176
23.3 (6.2)	38	21 (1.0)	16	5.1	4.6	9.0	66.6	57.3	23	21	136	130
24.0 (6.4)	22	12 (6.0)	10	1.9	2.8	11.4	63.8	67.4	24	16	53	66
19.1 (5.1)	45	19 (9.5)	17	3.4	6.0	11.8	48.0	44.1	21	19	62	72
23.3 (6.2)	26	12 (6.0)	14	2.8	6.2	9.9	53.6	54.1	19	18	132	191
30.4 (8.1)	20	15 (7.0)	11	2.2	3.0	8.0	84.1	93.8	24	20	1963	149
37.9 (10.)1	13	11 (5.5)	9	2.1	2.8	9.2	94.1	131.1	27	21	1170	149
38.6 (10.)3	13	12 (6.0)	9	0.0	2.8	3.7	72.5	70.7	26	20	319	146
22.9 (6.1)	33	17 (8.0)	15	1.0	3.6	13.0	91.6	66.5	21	16	528	132
27.0 (7.2)	28	17 (8.0)	15	0.0	2.0	8.3	74.1	68.2	24	17	1957	356
24.8 (6.6)	29	16 (7.5)	14	5.0	4.0	10.5	58.1	72.4	25	18	281	198
41.6 (11.1)	12	12 (6.0)	9	4.3	4.0	9.3	109.9	111.7	25	25	636	272
18.4 (4.9)	49	20 (9.5)	18	5.0	3.4	17.8	60.9	52.9	21	19	217	192
22.9 (6.1)	31	18 (8.5)	12	2.2	2.0	19.9	53.1	43.3	23	17	342	164

표<14> 조선산 저포 품위 시험 성적(朝鮮産 苧布 品位 試驗 成績)

시험기호 (試驗記號)	품명(品名)	산지(產地)	원료(原料)	1필(疋) 가격 (價格)	장(丈)	폭(幅)	중량 (重量)	후도평균 (厚度平均)	후박박 (厚薄差)
1	서천저포(舒川苧布)(甲)	忠南 舒川	手紡紵 마포(麻布)	10.70	23.84 (62.9)	34.5 (9.1)	810 (216)	0.267	0.03
2	同 上 (乙)	同上	“	9.20	24.71 (65.2)	64.5 (9.1)	1080 (288)	0.316	0.09
3	부여(夫餘)저포(甲)	忠南 夫餘	“	15.60	24.18 (63.8)	34.9 (9.2)	930 (248)	0.276	0.06
4	同 上 (乙)	同上	“	7.20	23.76 (62.7)	34.5 (9.1)	1220 (326)	0.338	0.07
5	고창(高敞)저포(甲)	全北 高敞	“	7.90	24.75 (65.3)	35.2 (9.3)	1555 (415)	0.378	0.10
6	同 上 (乙)	同上	“	6.00	24.71 (65.2)	34.5 (9.1)	1670 (446)	0.422	0.10
7	정읍(井邑)저포(甲)	全北 井邑	“	7.20	24.94 (65.8)	36.4 (9.6)	1552 (414)	0.373	0.09
8	同 上 (乙)	同上	“	5.80	25.20 (66.5)	34.9 (9.2)	1754 (468)	0.390	0.09
9	보령(保寧)저포(甲)	忠南 保寧	“	11.50	24.29 (64.1)	34.5 (9.1)	1455 (388)	0.135	0.06
10	同 上 (乙)	同上	“	8.60	24.75 (65.3)	34.5 (9.1)	1609 (429)	0.336	0.04
11	장흥(長興)저포(甲)	全北 長興	“	9.60	25.20 (66.5)	36.0 (9.5)	1474 (393)	0.352	0.07
12	同 上 (乙)	同上	“	7.36	24.60 (64.8)	36.4 (9.6)	1635 (436)	0.381	0.09

1平方 尺重量	算 定 番 手	밀도(密度)		수축율(收縮率)		호 감 율(糊 減 率) %	강도(強度)		신도(伸度)		마찰도(摩擦度)	
		경(經)	위(緯)	폭(幅)	장(丈)		經方向	緯方向	경방향	위방향	경방향	위방향
12.3 (3.3)	72	19 (9)	19	4.4	4.2	17.3	27.8	33.8	15	11	63	66
15.0 (4.0)	62	18 (8.5)	21	4.4	5.0	25.7	37.1	39.6	19	18	90	124
12.8 (3.4)	85	22 (10.5)	24	7.4	4.8	25.3	34.5	33.7	21	19	74	154
19.9 (5.3)	40	16 (7.5)	18	4.4	6.0	21.9	48.5	55.0	21	26	86	127
22.9 (6.1)	35	16 (7.5)	18	5.3	8.0	26.8	52.3	53.5	33	31	117	197
25.5 (6.8)	31	15 (7.0)	18	7.7	4.8	23.2	58.2	50.7	28	31	242	433
22.1 (5.9)	40	20 (9.5)	17	3.1	9.3	20.3	50.2	61.4	32	22	527	163
26.6 (7.1)	29	16 (7.5)	16	3.3	7.0	16.8	60.1	56.9	33	33	438	388
22.1 (5.9)	40	20 (9.5)	17	7.7	6.0	17.4	43.5	66.9	26	26	349	443
23.6 (6.3)	38	20 (9.5)	18	6.6	9.0	21.2	53.4	65.9	29	30	451	239
20.3 (5.4)	42	18 (8.5)	18	10.5	6.0	24.0	57.7	62.2	22	20	176	179
21.8 (5.8)	37	17 (8.0)	17	9.4	2.0	21.5	61.6	54.3	33	25	84	122

〈표 15〉 지나산(支那産) 마포 품위(麻布 品位) 시험 성적(試驗 成績)

시험기호 (試驗記號)	품명(品名)	산지(產地)	원료(原料)	1필(疋) 가격 (價格)	장(丈)	폭(幅)	중량 (重量)	후도평균 (厚度平均)	후박박 (厚薄差)
1	세생당(細生唐)	지나(支那) 광둥(廣東)	수방저	11.00	25.00 (66.00)	41.3 (10.9)	1189 (317)	0.288	0.07
2	사천포(泗川布)(갑)	지나(支那)	마사	5.50	15.00 (39.60)	45.5 (12.0)	1339 (357)	0.337	0.09
3	" (을)	사천(泗川)	"	5.00	15.00 (39.60)	46.2 (12.2)	1230 (328)	0.340	0.06
4	신기사(新機紗)(갑)	"	"	9.00	25.00 (66.00)	47.7 (12.6)	1960 (523)	0.353	0.09
5	" (을)	지나 광둥	"	8.00	25.00 (66.00)	47.7 (12.6)	2441 (651)	0.462	0.10
6	도리마(道理麻)(갑)	"	"	0.30	35.00 (92.40)	39.8 (10.5)	20.3 (5.4)	0.292	0.07
7	" (을)	"	"	0.25	30.00 (66.00)	39.4 (10.4)	26.6 (7.1)	0.350	0.12
8	갈포(葛布)	"	"	18.00	25.00 (66.00)	30.00	1868	0.258	0.10
9	" (을)	지나 회주(會州)	"	15.00	30.00 (79.20)	43.2 (11.5)	1639 (498)	0.274	0.08
10	생저항라(生苧尙羅)	"	"	3.00	8.00 (21.12)	43.2 (11.4)	349 (93)	0.320	0.04
11	도리사(道理紗)	지나 광둥	"	3.00	10.00 (26.40)	32.6 (8.6)	270 (72)	0.174	0.03
12	개량저(改良苧)	"	"	10.00	20.00 (52.80)	34.1 (9.0)	660 (176)	0.234	0.06
13	대광당(大廣唐)(갑)	지나 남방(南方)	"	7.00	15.00 (39.60)	56.1 (14.8)	1271 (339)	0.337	0.07
14	" (을)	지나 광둥	"	6.00	15.00 (39.60)	60.2 (15.9)	1620 (432)	0.394	0.07

1平方	算定番 手	밀도(密度)		수축율(收縮率)		호감율(糊減率) %	강도(強度)		신도(伸度)		마찰도(摩擦度)	
		경(經)	위(緯)	폭(幅)	장(丈)		經方向	緯方向	경방향	위방향	경방향	위방향
14.3 (3.8)	74	20 (9.5)	18	2.9	3.5	16.1	34.2	31.0	17	20	243	297
2.4 (6.4)	41	16 (7.5)	18	4.2	2.8	17.3	53.8	45.0	24	36	162	210
21.8 (5.8)	44	17 (8)	16	-	2.4	17.2	69.0	47.2	21	24	302	234
21.0 (5.6)	45	19 (9)	18	5.0	5.3	12.3	41.8	62.0	28	21	698	787
25.1 (6.7)	37	13 (6)	14	5.6	2.8	16.9	67.8	59.0	18	25	756	904
14.3 (3.8)	113	24 (11.5)	22	4.8	0.9	34.8	30.2	14.8	21	21	102	83
18.8 (5.0)	90	20 (9.5)	22	1.9	1.5	36.3	28.8	28.4	21	34	340	254
14.5 (3.8)	110	25 (12)	30	3.5	3.4	14.4	44.0	31.0	15	35	525	719
17.6 (4.7)	70	17 (8)	23	5.3	1.5	10.3	34.4	58.4	18	24	1,034	1,334
12.4 (3.3)	82	15 (7)	16	1.8	2.8	16.7	24.6	23.0	25	27	32	28
10.1 (2.7)	74	22 (10.5)	30	4.7	1.4	16.7	25.0	25.6	21	27	162	170
12.4 (3.3)	93	20 (9.5)	24	2.2	9.1	12.2	18.8	39.0	18	16	26	21
19.5 (5.2)	48	16 (7.5)	16	3.4	5.2	11.2	45.8	72.0	32	18	284	283
22.9 (6.1)	37	15 (7)	15	5.7	7.3	12.6	49.9	73.4	20	19	376	426